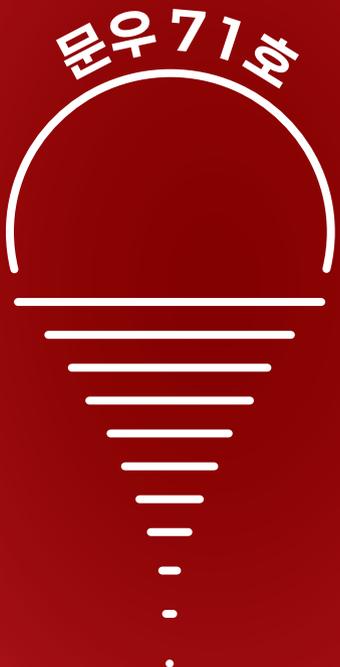


태양은 묘지 위에



북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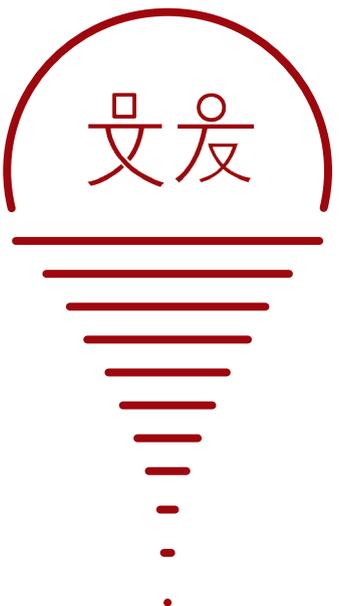
떠오르고

문우

2024 겨울 일.한.한.반.책.이.야.기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문우

2024 | 겨울호 | 71호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편집장	유연(국문 22)
편집위원	데어(문정 21) 단(丹)(독문 21) 지구인(경영 21) 포도(중문 23)
수습편집위원	필자(筆者)(HASS 22) 팽(영문 22) 함함(철학 24)
역은이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발행일	2025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지하 1층 문우방
디자인	이젠디엔피

71호의 제목은 양희은의 노래, '아침 이슬'의 가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북
극
계

떠
오
리
고



태
양
은
묘
지
위
에

유리세계 송승연

누군가 유리의 숲이라고 명명한 곳에는 무엇이 있지요? 유리가 있습니다. 숲은 없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의 숲에 숲은 없고 유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 속에는 무엇이 있지요? 유리가 있습니다. 진실 속에도 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유리의 숲이라고 명명한 곳에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모여 없는 것들이 되는 사이를 잘 살펴 주십시오. 누군가 검은 눈동자로 잘 살펴보면 그 존재의 간격이 바로 광선들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를 유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깨진 진실을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진실은 깨진 유리이고 광선은 깨진 유리를 관통합니다. 없는 것들의 존재 가능성이야말로 광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광선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유리의 숲이라고 명명한 곳으로 상릉경을 들고 걸어옵니다. 그 굴곡을 투과한 광선이 보여 주는 풍경은 유리 도시입니다. 산산조각 난 도시를 비추는 빛보라의 냉정함을 진실의 폭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 주십시오. 광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입니다. 광선은 우리의 어깨를 비추고, 치아를 드러내고, 병든 민낯을 밝힙니다. 우리는 매분 매초 빛의 각도가 달라지는 순간마다 새롭게 죽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이란 깨달음이며 깨달음이란 죽음에 한 뼘쯤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삶의 진실일까요? 누군가 죽음을 경험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것이어서 그것은 경험될 수 없고 불완전하게, 미지의 예감으로만 쏟아질 뿐입니다.

느낌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느낌 앞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죽음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부서진 유리 조각들처럼 연대하십시오.

누군가 유리의 숲이라고 명명한 곳에는 고발의 흔적으로 눈부십니다. 눈을 뜰 수 없겠지만, 부디 눈 떠 주십시오. 눈멀 것 같겠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숲이 아닌 깨어진 유리 조각들뿐이겠지만. 부디 눈 떠 주십시오. 깨어진 세상에 진실이 하나 있다면 깨어진 진실이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우리 속에 광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 속에서 당신이 본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숲의 여기저기에서 맥락 없이 출몰하는 개들이 바로 당신의 거울이라고.

[편집장 서문]

안녕하세요, 독자분들은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참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의 공허함과 뭉툭함을 실감하면서도 슬퍼하는 친구에게 별달리 적절한 말을 건네지 못할 때, 도무지 괜찮지 않아서 나를 걱정하는 얼굴에 아무 말도 돌려줄 수 없을 때, 아무도 잘 지내지 못함을 알 때. 올해는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 잦았습니다.

압도적인 재난에 휩쓸리고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니 웃기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절절 끊었던 여름을 지나보내고, 문우는 이번 학기에 생태정치를 공부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만든 어낸 자본주의와 성장중심 체제의 그물망을 살펴보고, 이를 마주하는 우리의 정치를 고민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평은 ‘쌍인 이메일만 지워도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캠페인을 떠올리며, ‘지금의 체제에서 개인에게 기후위기 해결 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스크린 너머의 물질 세계」를 통해 평이 주목한 IT기업이 가리고 있는 ‘비물질’ 산업의 ‘물질성’과, 그것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함함은 이토록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치로 돌봄을 가져옵니다. 「공동체를 향한 상상」은 함함의 진솔하고 발랄한 목소리로 정상가족이 아닌 공동체를 그리는 드라마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소위 말하는 ‘대안공동체’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자본주의와 성장 이데올로기를 섬세하게 짚어나갑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작년 12월 3일엔 또 다른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 들이닥친 군대를 시민들이 막아서고,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엔 매주 윤석열 탄핵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문우가 숨 가쁘게 살아낸 시간을 데어가 「탄핵 대자보 아카이빙」을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지는 「계엄 이후 구성된 학내외의 광장에 대한 개인적인 재현과 기록」은 유연이 온몸으로 경험한 광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연은 ‘모두의 광장’과 ‘하나의 광장’을 대비하며, 연세대학교 광장의 탈정치성과 순수성 강박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을 고향으로 둔 단(丹)은 「사라져가는 땅을 바라보며」에서 남태령 연

대에 주목합니다. 이번 호의 가장 긴 글인 「사라져가는 땅을 바라보며」는 단(丹)의 농촌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회고로부터 시작해, 지금의 농촌과 양곡관리법을 치밀하게 살핌으로써 완결됩니다.

문우의 눈으로 넘어가면,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필자(筆者)는 「흔들리는 존재의 기록 : 불안의 확장과 수렴」에서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불안을 조명합니다. 이 불안이 어떻게 증폭되고 또 자신에게 수용되는지를 필자(筆者)는 찬찬히 따라갑니다. 지구인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뮤지컬 ‘이터니티’에 대해서, 그리고 ‘이터니티’의 극작가가 극의 귀여움을 부정한 사건에 대해 썼습니다. 「세상은 너를 잊었다 해도 한 번도 너를 지운 적 없어」는 사랑하는 작품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직한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71호의 활동 보고는 여느 때보다 두껍습니다. 이번 학기 문우는 학외에서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공동주최단위로,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기금행동에 연대단체로 함께했습니다. 두 단체의 파견인이었던 지구인이 문우의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내적으로는 문과대학의 자치언론으로서 문과대학 운영위원회가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를 회칙에서 삭제하는 안을 총투표에 올린 건에 대해 항의하는 자보를 작성하였고,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여러 차례 성명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당 활동에 데어가 맺음글을 덧붙이며 정리하였습니다.

문우의 편집위원들은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괜찮지 않게 한 학기를 살아왔습니다. 앞서 독자분들의 안부를 물었었지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우가 이번 학기를 살아낸 기록, 71호를 찬찬히 읽으며 생각해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슬퍼하며, 껴안으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반쯤 농담으로 주워섬기며, 그건 반은 진담이라는 뜻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가끔은 한 끼도 안 먹으면서, 깃발을 흔들고,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영원히 뉴스를 들으며, 성큼 다가온 연대에 눈물짓고, 그 모든 막막함에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시대와 박자를 맞춰 숨쉬며, **편집장 유연 올림**

권두시

송승언	유리세계	2
-----	------	---

편집장 서문

유연		4
----	--	---

메인기획: 녹은 창문 안쪽에서 세계는 다정하고 ¹⁾

펑	스크린 너머의 물질 세계	8
함함	공동체를 향한 상상	19

특별기획: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²⁾

데어	탄핵 대자보 아카이빙	36
	탄핵 집회 속의 문우	45
유연	계엄 이후 구성된 학내외의 광장에 대한 개인적인 재현과 기록	46
단(丹)	사라져가는 땅을 바라보며	61

문우의 눈

필자(筆者)	흔들리는 존재의 기록 : 불안의 확장과 수렴	90
지구인	"세상은 너를 잊었다 해도 한 번도 너를 지운 적 없어"	97

활동정리

지구인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대학참가단 활동 아카이빙	111
지구인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연대체 활동 아카이빙	114
데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대자보 아카이빙	116
포도	문우 70호 독자모임	138

편집후기

		156
--	--	-----

1) 메인기획의 제목은 이영주의 시, '절멸'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2) 특별기획의 제목은 박노해의 시,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녹은 창문 안쪽에서 세계는 다정하고



스크린 너머의 물질 세계

수습편집위원 펄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가 들리면 대충 준비를 마친 뒤 바깥을 나선다. 익숙한 길인데도 지도 앱을 굳이 들여다보는 건 버스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대중교통 안에서 스트리밍 앱으로 음악을 듣거나 전자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 할 일을 하다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스크롤을 몇 번 올리면 시간이 금방 간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집. 버튼 몇 번 눌러 주문한 음식이 배달 오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시청하며 저녁을 먹는다. 휴식을 취할 겸 웹서핑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졸음이 밀려오면 휴대폰을 끄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게 녹아들어 필수 불가결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이는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 자칫 사소해 보이기까지 하나 실은 어떤 거대한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가 기후 변화에 일조하여 우리 삶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우리가 여태껏 인지하지 못했던 환경 파괴적 행위가 기업들의 전략하에 동반된다.

#잠식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었다. 오프라인 기업들의 온라인 진출 속도는 빨라졌고, 공공 서비스, 보건, 상업 등 수많은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량은 크게 증가했고,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수는 전 세계 인구수의 절반을 넘겼으며,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등이 보편화되었다. 음식이나 물건을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주문하는 것 외에도, 은행 업무를 모바일로 해결하거나 공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집에서 프린트하는 등 우리는 사소하거나 사소하지 않은 많은 일을 인터넷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강해졌다. 구글은 3년 연속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서비스 1위를 차지했고, 페이스북과 애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지배적인 위치를 지닌 IT 기업들을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라 부르는데, 이들을 일컫는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MAGA(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신조어들은 이러한 인터넷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부상하면서 답마인드, 오픈

AI, 엔비디아, 데이터브릭스, 앤스로픽이라는 5개의 AI 관련 기업을 가리키는 DONDA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분마다 약 630만 명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3만 개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 6만 개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 45만 시간 분량의 영화나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본다. 지금 이 문장을 쓰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350만 개의 트윗, 1,600만 개의 문자, 2억 개의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¹⁾ 그러나 이렇게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기업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사라진다. 브랜드 이름을 내건 간판이나 상품으로 내놓는 서비스 같은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벗어나 비물질적인 디지털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디지털 기술이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디지털 기술의 비물질성은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

일부 사람들은 실물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제품을 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여 간접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화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자원을 아끼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디지털 기술은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를 추구한다는 바로 이 지점으로 주목받는다. 옥스퍼드 사전은 탈물질화를 물리적 실체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²⁾ 가령 실제 기록물이나 문서의 매체를 종이 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면 탈물질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널리 통용되는 개념은 한 단위의 동작을 수행하거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극소량의 자원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이

1) Susie Marino. "What Happens in an Internet Minute: 90+ Fascinating Online Stats." LocalIQ, 2023.12.4., <https://localiq.com/blog/what-happens-in-an-internet-minute/>.

2) Smil, Vaclav. Making the Modern World: Materials and Dematerialization. Wiley, 2013.

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은 물질을 가상 현실에서 대체하기까지 하면서 실물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종이책 대신 전자책, 신문 대신 인터넷 뉴스를 읽으며, MP3 플레이어 대신 스트리밍 앱을 사용한다. 심지어는 사회적 교류마저 SNS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상의 디지털 세계가 실물을 점점 대체한다면 무언가를 직접 제조하거나 가동하지 않더라도 콘텐츠를 향유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기업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 에너지와 기술은 '대체'되는 대신 '추가'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1%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³⁾ 환경 제지 네트워크(EPN)에 따르면 종이 사용량은 지난 50년간 4배 가량 증가하였다.⁴⁾ 디지털 기술은 실물 자원을 대체하지 못했으며, 단지 우리 삶에 또 다른 종류의 자원으로써 더해졌을 뿐이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물질성을 탈피할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은 해저 케이블이나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 화력 발전소, 희귀 금속 등 실제 자원과 에너지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실제 기기를 제조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게임을 즐기고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점점 증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각지대

이메일을 보관하는 데에 탄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메일 한 통을 전송할 때는 약 4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메일 1GB를 1년간 보관하면 이산화탄소 14.9kg이 배출된다. 그러나 이메일의 탄소 영향력은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의 60%,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차지하는 온라인 동영상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다. 프랑스 환경단체인 시프트 프로젝트의 연구

3)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2024-2025년 세계 석탄 수요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4.08.12.,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103020000&bid=0014>.

4) 삼성물산 상사부문. "디지털 시대, 종이는 과연 사라질까요?" 네이버 블로그. 2019.10.08., <https://blog.naver.com/hongbosangsa/221671703809>.

에 따르면 온라인 영상을 30분간 재생할 때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⁵⁾ 자동차로 6.3km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는 전자 기기와 데이터를 유통하는 전송망과 이메일을 보관하는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자원 때문에 생긴다.

데이터 센터는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설이다.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는 해저 케이블이나 안테나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 및 처리되는 정보들을 주고받는다. 300만 개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데, 신속하게 웹페이지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 중복 시스템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사이트에 한 번 올리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중 적어도 7곳으로 분산되어 저장되며, 메일은 여섯 차례 복사되어 보관된다. 그래서 보안이나 만일을 위해 대기 상태로 전원만 켜져 있는 설비와 유령 서버가 많다. 또한 트래픽이 과하게 몰려 서버가 과부하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도 인프라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데이터의 고가용성을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대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끌어오는지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일례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를 차지하던 넷플릭스의 경우 약 30% 정도를 석탄을 태서 얻은 전기로 충당하였다.⁶⁾

또한 서버 가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이때 부식이나 박테리아 번식을 막기 위해 깨끗한 담수를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습도 조절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증발하고, 수질에 따라 3~10회만 재활용된 뒤 금방 배출되고 만다는 것이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탄소 배출과 물 소비는 더욱 늘어났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3는 훈련 과정에서 1,287MW의 전기를 소비하여 502톤의 탄소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100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챗GPT와 10~50개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한 번의 대화로 쳤을 때, 대화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물 500ml가 소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페트병 한 병만큼의 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⁷⁾

데이터에 접근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전자 기기는 어떻게?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이 인터

5) 지식채널 e 제작팀. 『EBS 지식채널 x 기후시민』. EBS BOOKS, 2023.

6) Gary Cook. Clicking Clean: Who is winning the race to build a green internet? Greenpeace, 2017.

7) 광노필. "대화 한 번에 '생수 한 병씩'...챗GPT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 2024.06.29., <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090180.html>.

넷에 접속하기 위한 출입문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혹은 '단말기'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전 세계적으로 약 340억 대의 디지털 기기가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많은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에 필요한 광물을 채굴해야 하는데,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원자재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시간을 거슬러 되짚어 보자. 1960년대의 다이얼 전화기에는 알루미늄과 아연 등 최소 10가지의 재료가 들어갔다. 조금 더 발전한 1990년대의 벽돌 휴대폰에는 구리, 납을 포함한 29가지의 원자재가 들어갔다. 이제 2025년.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 리튬, 마그네슘 등 54가지의 금속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각각 1g도 안 되는 재료들로 이루어진 최신 문물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도 그것들의 존재와 정확한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스마트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그것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무지막지한 양의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다. 금속을 채굴하고 전자 부품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스마트폰 한 대가 생성하는 탄소 발자국의 절반이나 되며,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80%가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쓰인다. 따라서 제품을 소비할 때 나오는 물질뿐 아니라 그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들어가는 물질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측정하는 개념이 바로 MIPS(Material Input Per Service unit), 즉 서비스 단위당 물질 투입량이다. MIPS는 제품의 제조, 사용, 재활용까지의 과정에서 투입되고 이동한 모든 종류의 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광물 자원, 전기를 만들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베어낸 나무, 끌어들인 물과 화학물질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하면 150g짜리 스마트폰 한 대에 필요한 원자재는 무려 183kg에 달한다. 게다가 2g짜리 전자 칩의 집적 회로에는 1,600배에 해당하는 32kg의 원자재가 소요된다⁸⁾ 기업들은 더 얇고, 더 가볍다는 점을 내세워 전자 기기를 광고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무거웠던 셈이다.

거대한 정보 통신 산업은 현재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12.5%, 알루미늄 생산량의 7%, 은 생산량의 23% 등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여기서 금속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희토류의 경우 화학적인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물과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채굴 후에도 화학약품, 방사성 물질, 중금속 등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해 토양과 하천, 대기를 오염시키기까지 한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희귀한 흙이 중국에 몰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환경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채굴을 그만둔 미국과 유럽이 환경 규제 및 인프라가 취약하

8) 기욤 피트롱.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2023.

고 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희토류 생산과 가공을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지인 바오터우시의 호수에는 독성 폐기물이 떠다니게 되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평균치보다 더욱 높은 방사능에 노출된 채 생활하게 되었다.

이 금속들은 채굴 과정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한다. 희귀 금속은 전자 기기에 극소량밖에 들어있지 않으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에 재활용하기도 어렵다. 폐기물은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는데, 노동자들은 처리 과정에서 화학 독성 물질에 노출된 채 일을 하게 된다. 게다가 값비싼 금속을 회수하고 나면 나머지 폐기물은 땅에 매립하거나 소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기 및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이 이미 오래전 체결되었지만, 세계 최대 전자 폐기물 생산국인 미국은 지금까지 이에 비준하지 않았다. 게다가 폐기물 수출입은 여전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협약의 강제 여부가 개별 회원국에 달려있어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전자 폐기물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중국에는 폐기물이 새로운 광물로 변하여 지구 표면의 구성마저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이제 땅에서 하늘로, 지구에서 우주로 시선을 돌려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참고로 최근 내가 목격한 것들은 안개처럼 희뿌연 미세먼지와 별처럼 반짝이는 인공위성이었다. 그렇다.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 인공위성은 그 수효에 따라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이제는 스페이스X, 카이퍼, 아테나 등 민간 기업들까지 뛰어들어 너도나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한 해에만 로켓을 약 100회 발사하기도 하였다. 로켓은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 알루미늄,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섞인 그을음을 발산한다.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자동차 한 대가 지구 74바퀴를 돌면서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⁹⁾ 게다가 로켓이 뿜는 배기가스가 성층권에 쌓여 오존층에 구멍을 뚫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이나 백내장 등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우주선에서 빠져나온 금속 덩어리들이 우주 쓰레기가 되어 지구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도 덩으로 딸려 온다. 그럼에도 각각 정부나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우주 개발 경쟁에만 몰두하여 무분별하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전달에 있어 우주 고속도로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저 고속도로, 즉 해저 케이블이다. 전 세계 트래픽의 99%가 공중이 아닌 지하, 즉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 바다

깊은 곳에 설치된 케이블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지구 둘레의 30배에 달하며, 지금도 해저 케이블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선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착각일 뿐이며, 실은 우리 모두가 '유선 세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케이블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 비하면 미미하다. 그러나 구글, 아마존 등의 거대 기업 소유의 해저 광케이블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설되는 해저 케이블은 데이터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세상의 확장을 가속하기만 할 뿐이다.

#녹색 거짓말

디지털 산업은 전 세계 전기 발전량의 10%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를 차지한다. 이는 항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2배나 많다.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9%씩 증가하고 있다.¹⁰⁾ 기업들도 디지털 인프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물질의 미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면 마치 환경 오염이 아예 없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심는 것이다.

이른바 '그린 워싱'이다. 가령 전 세계에 이미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구글은 새로운 센터를 건설할 때 구글이라는 이름 대신 병풍 회사를 대신 내세운다. 미국의 검색 엔진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도시에 엄격한 기밀 유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물이나 전기 소비량 등을 비밀에 부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는 약속, 즉 'RE100'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산은 세계 각지의 공급 업체들이 맡고 있으며, 이들의 재생 에너지 전환율은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제조 단계를 거치다 보니 이동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반도체 칩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석영을 채굴하고, 일본에서는 규소 판을 만들며, 볼 베어링은 독일에서, 그리고 조립과 내장은 각각 베트남과 중국에서 맡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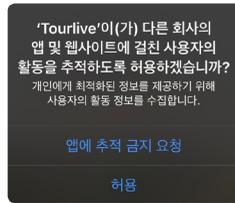
게다가 전자 폐기물 양은 전자 제품의 짧아진 수명 혹은 교체 주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광고함으로써 유행을 만들어내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면서 '구

9) 필리프 스카르조니. 『만화로 보는 디지털 시대의 기후변화의 모든 것』, 윤여연 옮김, 다룬, 2024.

10) 앞의 책.

형' 모델을 버리고 신형 모델을 사도록 부추긴다. 또한 구형 모델의 시스템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다른 액세서리와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실제로 2017년에는 애플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¹¹⁾ 그뿐만 아니라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수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나만 고장 나도 기기 전체를 몽땅 버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업들이 사용자들을 자꾸만 온라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점이다. 그들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회사에 되팔고, 타깃을 최대한 많이 설정하여 광고를 내보낸다. 검색 엔진부터 GPS 앱, 온라인 게임, 소셜 미디어, 뉴스 사이트 등... 인터넷 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후 다시 사용하면 이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앱을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해당 앱이 내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할지 말지 선택하는 알림창이 화면에 떴기 때문이다.



많은 앱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갖은 전략을 취한다. 그 결과 우리는 시선을 끌기 위해 고안된 알림, 색상,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디지털 피드백 등의 여러 자극에 노출된 채 점점 더 오래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뇌를 앱이 엿보고, 조종할 수 있게 허락한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만 간다.

#정보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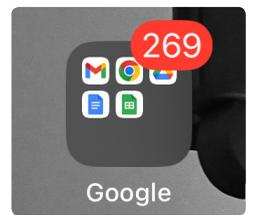
우리는 흔히 웹을 액체 비슷한 것으로 표현한다. 인터넷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데이터를 '서핑'한다고 말하고,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는 물줄기처럼 흐른다는 뜻에서 '스트리밍'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데이터를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에 저장하는 개념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언

11) 노르 난지. "배터리 게이트: 애플, 수백만 영국 아이폰 사용자에게 1조2000억여원 배상하나." BBC NEWS 코리아, 2022.06.17.,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836374>.

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한 데이터의 특성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분명 물질의 형태로 실재하며, 특정한 물질을 통해 만들어져 또 다른 물질을 낳기도 하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 한 방울을 1Byte라고 치면, 이메일 한 통 정도의 크기인 1KB는 물 100ml가 된다. 1분짜리 MP3 파일 정도인 1MB는 100L, 두 시간짜리 영화 한 편인 1GB는 10만 L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 전 세계 인구가 해마다 생산하는 47ZB의 데이터가 지중해와 흑해를 합친 정도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오늘날 우리는 넘쳐흐르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쌓여가는 이메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리를 포기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태껏 상당한 양의 탄소 발자국을 남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쯤에서 고백한다. 그리고 쌓인 메일의 상당수는 학교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도. 학교에 다닌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수신 거부'할 목적이 남았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모두 내 탓이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야 하겠지만, 조금은 억울할 것도 같다.



269통이나 쌓인 나의 메일함

어쨌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인터넷의 전략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소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메일함 정리하기, 자동 재생 기능 꺼놓기, 잠깐이라도 디지털과 거리 두기, 혹은 흑백화면 사용하기 등이 있다. 디지털 과소비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량을 줄여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한 통제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시스템의 산물이기도 하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거대 디지털 기업들의 생태계 영향력을 규제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삶은 우리의 거의 평생을 디지털과 함께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만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도구일 뿐.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12) 기욤 피트롱, 앞의 책.

것도, 얼마만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몫이다. 기술이 가져올 혜택,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실체를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술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노필. "대화 한 번에 '생수 한 병씩'...챗GPT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 2024.06.29., <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090180.html>.

기욤 피트롱.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2023.

노르 난지. "배터리 게이트: 애플, 수백만 영국 아이폰 사용자에게 1조2000억여원 배상하나." BBC NEWS 코리아, 2022.06.17.,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836374>.

삼성물산 상사부문. "디지털 시대, 종이는 과연 사라질까요?" 네이버 블로그. 2019.10.08., <https://blog.naver.com/hongbosangsa/221671703809>.

양수영·최지웅.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22.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2024~2025년 세계 석탄 수요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4.08.12.,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103020000&bid=0014>.

지식채널 e 제작팀. 『EBS 지식채널 x 기후시민』, EBS BOOKS, 2023.

필리프 스퀘르조니. 『만화로 보는 디지털 시대의 기후변화의 모든 것』, 윤여연 옮김, 다룬, 2024.

Cook, Gary. Clicking Clean: Who is winning the race to build a green internet? Greenpeace, 2017.

Marino, Susie. "What Happens in an Internet Minute: 90+ Fascinating Online Stats." LocaliQ, 2023.12.4., <https://localiq.com/blog/what-happens-in-an-internet-minute/>.

Smil, Vaclav. Making the Modern World: Materials and Dematerialization. Wiley, 2013.

공동체를 향한 상상

수습편집위원 함함

※ 이 글은 〈모던 패밀리〉, 〈포즈〉,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수박〉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 - 돌봄, 돌봄, 돌봄?!

지난 1~2세기 동안 인류는 성장을 향해 질주해 왔다.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쓰고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자본주의의 주문은 꽤나 성공적으로 통했다.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가 생기고, 그 안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생기고... 그 주문을 좇아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만들고, 팔고, 쓰려고 애썼다. 최대한 돈을 덜 쓰고, 최대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그렇게 애쓴 결과가 지금 세계가 마주한 기후위기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창출한다는 간단한 시장경제의 논리는 자연과 인간을 맨 밑바닥부터 모두 끌어모아서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기후위기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만약 자연과 인간을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류에게 남는 건 되살릴 겨를 없이 악화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뿐이다. 이미 몇 해 전, 세계는 현 시스템이 만들어낸 위기를 코로나 19를 통해 경험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간에게 전염된 바이러스, 세계화로 인해 빠르게 퍼진 전염병, 그리고 유행 동안 심화된 불평등... 기후재난이 작은 일상에서부터 전 세계까지 전부 뒤흔들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던 몇 해였다. 그리고 코로나 19는 시작일 뿐,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재난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 결국 기후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그에 함께 하는 성장, 효율이라는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더 이상 이윤 창출이 우선이 아닌, 지구와 인간이 가진 생명을 더 우선으로 하는 가치 말이다.

자연과 인류의 생명을 우선으로 두는 가치, 바로 돌봄이다. 갑자기 돌봄이라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돌봄이라 하면, 대개 세계를 지탱할 가치보다 약한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침대에 누워 병간호를 받는 환자의 모습처럼, 아주 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세계에서 돌봄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에게나 필요한 것, 따라서 부수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서, 돌봄은 재평가받아야 한다.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활동”¹⁾이다. 즉,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프거나 어린 존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주체적이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돌봄이다.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게 돌봄이다. 내가 배달시킨 점심에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에도,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의 말에도 돌봄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돌봄을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공적인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하는 개념을 ‘보편적 돌봄’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시스템에서 보편적 돌봄 시스템 실현으로의 전환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이다.

공동체가 필요해!

보편적인 돌봄 실현하기.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는 꽤 막막하다. 사회가, 나라가 돌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돌보는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돌봄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줄 만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준다면 편하겠지만...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사실상 국가가 모든 돌봄을 해결해주는 건 어렵다. 돌봄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단순 가사노동을 넘어, 개인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위와 정서 교류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가계를 돕거나, 돌봄노동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까지 정부의 힘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실제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전부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딱 1인분의 돌봄만이 주어지는 세상이 보편적인 돌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고민에서, 공동체의 필요성이 나온다. 국가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스스로의 손이 뻗어지지 않는 곳에 돌봄의 빈틈이 생길 때,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건 타인이다. 그리고 안전망 역할 이상으로, 보편적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 혹은 국가 차원이 아닌 ‘너와 나’ 차원에서 관계 맺는 공동체는 필요하다. 나 혼자 스스로를 돌보는 걸 보편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리는 당연히 없다. 국가가 공공 영역을 돌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적인 영역까지 관여

1)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 선언』 [eBook]. 니케북스, 2021, 37.

할 수는 없다. 모든 영역에서 돌봄을 우선시하는 게 보편적인 돌봄인데, 개인과 국가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편적인 돌봄에 필요한 것은 정확한 이분법적 기준으로 나뉜 특정 영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돌봄에 대한 역량이 증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영역 빠짐없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중심이 될 수 있다. 잘 돌보는 세계를 위해서, 그에 맞게 잘 돌보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

나의 상상을 도와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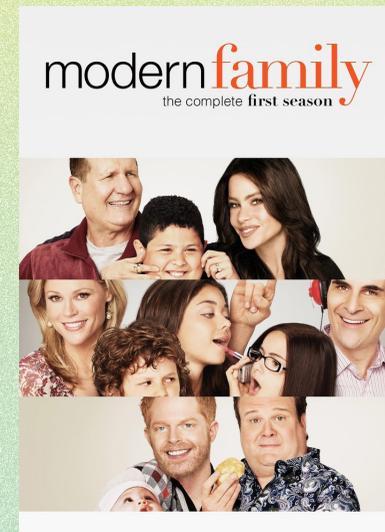
보편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돌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명쾌한 해답이지만 이걸 바로 현실로 옮기는 건 막막한 일이다. 모두가 돌봄을 받도록 맺어지는 공동체라는 이상과 돌봄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주변에서 다양한 가치에 비해 밀려나 있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체감하게 만들 뿐이다. 어떤 공동체가 잘 돌보는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 어떤 관계 맺기가 필요한지 구체적 상상을 하는 건 지금의 현실에서 제법 막막하다. 그렇다고 현실에 돌보는 공동체가 전혀 없을까? 아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뿐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그런 공동체를 열망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더 많은 돌보는 공동체를 현실에서 만들기 위해, 좋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인 상상이 필요하다. 이상은 모호하게 느껴지고 현실은 부족한 때에, 다양한 공동체를 다루는 미디어는 그 간극을 매우며 상상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상을 다루는 동시에 현실을 반영한 네 편의 드라마를 보며, 잘 돌보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평상이 아닌 가족 - <모던 패밀리>

'돌보는 공동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이다. 돌봄이라는 역할이 법으로 규정된 것도, 실제로 그 역할이 주로 맡겨지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사회를 통해 규정되고 재생산되는 현재의 가족 인식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다. 이 가족은 이성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만 구성된 '정상가족'을 의미한다. 여전히 정상가족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그 외의 형태는 비정상, 혹은 제대로 된 가족 아님으로 규정되어 소외받고 있

다. 제대로 된 돌봄은 오직 정상적인 가족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회나 그 구성원을 해치는, 불온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혼가정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을, 동성부부 가정은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말을, 아이를 입양한다면 엄마 혹은 아빠가 없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정상가족 안에서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무시된다.

<모던 패밀리>는 정상가족이 가진 그런 신화를 부순다. 제목 그대로 현대적인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리즈에는 세 가족이 등장한다. 클레어와 필 가족은 세 아이를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 가정인데, 이들은 모범적인 정상가족이다. 그런데 클레어의 아빠인 제이는 아들을 둔 콜롬비아 출신의 30살 연하인 아내 글로리아와 재혼하여 가족이 된다. 그리고 클레어의 동생이자 제이의 아들인 미첼은, 동성 파트너인 캠과 함께 베트남계 아이를 입양하여 가정을 꾸렸다. 사회가 말하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비정상가족'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가족 신화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불행해졌을까?



<모던 패밀리>에 등장하는 세 가족의 모습.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제이 - 글로리아 가족, 클레어 - 필 가족, 미첼 - 캠 가족

시트콤 장르인 만큼 매 화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건 '비정상'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냥 가족 사이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이다. 오히려 '비정상'으로 규정된

그들이 오해를 받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일어난다. 글로리아를 '꽃뱀'으로 생각하고 험담한 클레어로 인해, 캠을 아들의 남자친구라고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친구라 얼버무린 제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다툼은 그들이 서로를 한 가족이라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사라진다. 클레어와 글로리아가 풀장에 함께 뛰어들었을 때, 제이가 미첼과 캠 모두를 '내 아들들'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다툼은 멈추고 서로 마주 보며 웃게 된다. 시즌 1 에피소드 4에서 헤일리(클레어와 필의 딸)의 남자친구 달런은 세 가족을 보고 열정과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고 말한다. <모던 패밀리>를 관통하는 말이다. '정상'으로 규정된 형태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잘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로 끈끈하게 묶이는 세 가족이 보여주듯, 돌보는 공동체는 정상가족이라는 한 가지 모습을 따르는 데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양함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공동체의 돌봄이 시작될 수 있다.



제이와 글로리아 가족. 매니는 글로리아와 그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제이와 글로리아가 재혼하면서 드라마 속 세 가족의 일원이 된다.



미첼과 캠 가족. 둘의 딸 릴리는 베트남에서 입양한 아이이다.

피보다 낫한 건... - <포즈>,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모던 패밀리>의 미첼과 캠은 보수적이고 가정적인 아버지 제이에게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졌고, 글로리아는 클레어에게 제이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인정받았다. '정상'에서 벗어난 낯선

이가 원가족으로부터 환영받아 행복한 한 가족을 이룬 따뜻한 엔딩이다. 모든 이가 이런 가족을 처음부터 가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8년부터 방영된 미국의 시리즈 <포즈>는 그 따뜻한 엔딩의 대척점에 있는 퀴어들의 삶을 조명한다.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할렘가의 유색인종 퀴어들의 삶을 볼룸과 하우스 문화를 중심으로 다룬 이 시리즈는, 가족을 더 넓은 범위에서 다룬다. 결혼과 혈연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다. 어떤 연고도 없지만 내가 선택한 가족, 그것이 <포즈>가 보여주는 가족이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 대부분은 보수적인 원가정에서 따뜻한 포용을 받기는 커녕, 그로부터 버림받거나 벗어나야 했다. 유색인 퀴어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폭력과 범죄에 취약한 상태로 소외된 그들이 선택한 건 '볼룸'과 '하우스'라는 안전한 공간, 공동체다. 억압받는 이들이 모여 멋진 복장과 춤을 뽐내는 볼룸은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던 당시, 퀴어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공간이다. 볼룸 문화의 배대가 되는 하우스는 억압받는 퀴어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다. 시리즈의 주인공인 블랑카는 '하우스 오브 이반젤리스타'의 '마더'로,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원래 속해 있던 '하우스 오브 어번던스'에서 나와 새로운 하우스인 '하우스 오브 이반젤리스타'를 만든다. 데이먼, 엔젤 등이 블랑카의 '칠드런'으로

2) '볼'(Ball)은 유색인종 퀴어들(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인)이 사회의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치장(드레)을 한 뒤, 이를 뽐내고 누가 더 뛰어난지 겨루던 행사에서 출발한 문화이다. 드레 이외에 춤(대표적으로 '보깅'), 립싱크, 런웨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하우스에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모인 그들은 여러 차례 불에서 우승하며 명성을 쌓는다.

그들이 속한 하우스는 단순히 불에서 우승하기 위해,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아니다. 사회에서 취약한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선택한 가족이다. 유색인 퀴어처럼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난 소수자들은 다른 이로부터 돌봄은커녕 자기 자신을 돌볼 충분한 자원조차 얻기 어렵다. 하우스의 칠드런인 엔젤, 릴 파피는 생계를 위해 성노동과 마약 거래에 뛰어들어야 했으며 게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데이먼은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 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모델 일을 시작하고, 자신이 바라던 댄서가 될 수 있었던 건 원가정이 주는 도움도, 사회 정책의 지원도, 자기 자신만의 의지도 아니다. 취약한 서로가 모여서 이룬 하우스의 돌봄과 포용이 그들을 돕고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이었다.



하우스 오브 이반젤리스타의 모습. 중앙에 있는 인물이 마더인 블랑카다.



마더인 블랑카와 하우스의 칠드런인 데이먼. 데이먼은 블랑카의 도움으로 뉴욕의 무용학교에 다니게 되고, 나중에 유명한 댄서로 성공한다.

물론 하우스와 볼룸이라고 해서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냥 이상적인 공동체인 것은 아니었다. 유색인과 퀴어를 향한 범죄는 항상 그들을 위협했고, 하우스끼리의 경쟁과 다툼, 하우스 내 위계도 존재했다. 그러나 가족에서도, 사회에서도, 다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을 환영한 게 볼룸이고, 가족이 되어준 게 하우스다. <포즈>의 배경인 20세기보다 퀴어 인권이 더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퀴어가 차별받는 존재로 남아있는 지금도, 볼룸과 하우스는 다른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가려진 퀴어들을 위한 공간과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다.

<모던 패밀리>에는 게이 부부가, <포즈>에는 트랜스 여성과 게이들이 모여서 만든 가족인 하우스가 등장한다. 2022년 방영된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도 퀴어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퀴어가족이라는 거지? 남녀가 나란히 서 있는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면 그런 의문이 든다. 하나도 퀴어해 보이지 않는데 퀴어가족이라고? 단란하게 서서 함께 딸을 안고 있는 미첼과 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하우스 오브 이반젤리스타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소위 '정상' 범주에 속하는 이성 연인이나 부부에 가까워 보인다. 무엇이 그들을 퀴어가족으로 만드는 걸까?



좌측이 주인공 코다마 사쿠코, 우측이 서브 주인공인 타카하시 사토루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감정, 섹스에 대한 욕구를 느껴본 적 없는 사쿠코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다가 자신을 에이섹슈얼-에이로맨틱³⁾으로 정체화하게 된다. 이후 그는 자신이 정체화하는

3) 에이섹슈얼(무성애자): 어떠한 젠더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성향
에이로맨틱(우로맨틱): 어떠한 젠더에도 연정적(로맨틱한) 끌림을 느끼지 않는 성향

데 도움을 준 블로그의 주인 사토루를 우연히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 연애 감정 없이 가족이 되자는 사쿠코의 제안으로 시작해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는 과정을 그린 게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가 가족이 된다고 하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을 하거나 사귀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것을 떠올린다. 두 주인공의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동거에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둘이 사귀냐고, 그래서 결혼하려는 것이냐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불안감(?)이 생긴다.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처럼, 수많은 영화, 드라마와 똑같이 결말을 내는 게 아니냐는. 놀랍게도,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스펙트럼⁴⁾을 조명하며 동시에 연애도 결혼도 없는 퀴어한 가족을 이루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민을 깊게 다룬다. 사쿠코와 사토루는 생활공간과 가사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부터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가족으로 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한다. 그리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나간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기 위해 식사할 때는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지 않는다.

겉으로는 정상성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가족은 <모던 패밀리>와 <포즈>가 보여주는 퀴어가족보다 어쩌면 더 퀴어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던 패밀리>의 마지막, 미첼은 검사가 되고 캡은 대학의 풋볼팀 코치가 된다. 아이도 데려오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간다. <포즈>에서

4) 에이섹슈얼과 에이로맨틱을 포함해, 완전히 그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스펙트럼 상의 여러 정체성들을 아우르는 말.

하우스 에반젤리스트의 마더인 블랑카와 칠드런들 모두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마지막에 거는 성공을 쟁취한다. 데이먼은 유명한 댄서가 되고, 엔젤은 모델로 성공해서 에이전시를 차린 릴 파피와 결혼한다. 칠드런들을 성공시킨 블랑카 본인도 안정적인 직업과 좋은 애인을 얻고, HIV 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 차별받던 소수자가 성공해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결말은 물론 기분 좋지만... LGBT를 비롯한 소수자들,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사회가 내세운 가치에 부합한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남는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 온 이성애 중심 가족 모델을 따라 짝을 찾고 사랑하는 이와 결합해야 가족으로 해피엔딩을 누릴 수 있는 걸까? 기존 사회 속 가치와 제도에서, ‘이성애자’ 부분을 ‘동성애자’, ‘퀴어’로 바꾸는 게 퀴어 권리가 향할 수 있는 최대일까?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은 이런 점에서, <모던 패밀리>와 <포즈>보다 훨씬 더 ‘퀴어하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사쿠코와 사토루는 기존 제도 속으로 흘러들어가길 거부한다. 둘은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었겠지만, 언제나 연인도 부부 관계도 아닌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알린다. 질서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가족에 관한 기존의 통념에도 정면으로 도전한다. 피가 통해야만 가족인가? 연애와 결혼, 사랑이 있어야만 가족인가? 두 사람은 그들이 맺는 관계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도 질문을 던진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족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가족인가? 가족이 되어달라는 사쿠코의 제안에서부터 사토루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 떠나는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은 기존의 가족 모델을 거부한다. 멀리 떨어져서 같이 지내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두 주인공은 고민 끝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어져 있는 가족이라고 답을 내린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내내, 두 사람은 가족은 이런 것이라고 확실히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인 서로를 아군이라고 표현할 뿐. 퀴어한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한 가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모습의 공동체, 누군가 모난 부분을 깎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 말이다.

꼭 가족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깐 - <구박>

<모던 패밀리>, <포즈>,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모두 가족을 다루는 작품이다. 세 드라마를 통해 혈연이든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든, 비혈연 퀴어든 다양한 형태가 가족이란 이름

으로 묶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가 자신이 바라는 가족을 만들고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어떤 이는 그런 가족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있다고 해도, 언제나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이길 거부할 수도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새도 제 보금자리를 사랑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여야 한다는 게 사회의 통념이자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가족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압력, 기대가 어떤 이에게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렇듯, 가족이 누구에게나 유효한 선택지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가족을 기다리거나, 자기 힘만으로 스스로를 돌봐야 할까? 아니면 돈 주고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나라에서 지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셋 중 한 가지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이 글에서 찾는 보편적인 돌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족보다 느슨하지만, 서로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가족이 있든 없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2003년에 방영된 일본의 드라마 <수박>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범한 회사원인 하야카와 모토코는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을 계기로 '해피니스 산차'라는 하숙집에서 살게 된다.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한 집에서 사는 네 명의 여자들. 전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일 뿐이다. 드라마는 특별하게 큰 사건 없이 (모토코의 직장동료가 횡령한 사건이 크게 다루지긴 한다) 그 넷의 일상 이야기 위주로 흘러간다. 다 함께 아침과 저녁을 먹는다는 것을 빼면 서로에게 요구되는 건 크게 없다. 앞서 살펴

본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항상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인 유대가 깊은 것도 아니고, 서로를 생각해서 일을 딱딱 나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족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일까? 글썽... 함께 밥을 해서 나눠 먹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알리고, 고민이 있다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돌봄이 오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보다 훨씬 느슨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마지막 화에서는 느슨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해피니스 산차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교수'. 교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며 해피니스 산차를 떠난다. 해피니스 산차의 사람들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를 담담하게 보내준다. 교수를 포함해서 해피니스 산차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해피니스 산차는 인생의 어떤 기간에 잠깐 머물렀던 곳,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곳 정도에 지날 수 있다. 하지만 해피니스 산차가 가지는 느슨한 공동체로 가지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취약해지고, 다른 이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길든 짧든, 항상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항상 가족의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위한 가족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끈끈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느슨한 공동체가 중요하다. <수박>에서는 해피니스 산차라는 하숙집이 그 공동체였지만, 이것이 좁아진다면 친구 사이, 넓어진다면 옆집, 아파트, 마을이나 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짜인 느슨한 공동체는,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필

요하다면 친구가 나에게, 내가 옆집 사람에게, 다른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진다.

마무리 - 상상을 넘어 새 현실로

〈모던 패밀리〉, 〈포즈〉,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수박〉 이렇게 네 가지 픽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살펴보았다. 포용적인 혈연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선택으로 귀어적인 관계 맺기를 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본 작품은 전부 허구의 이야기지만,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법. 우리가 아직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작품에서 확인한 모습의 공동체, 그보다 더 다양한 공동체가 현실에 존재한다. tvN의 예능인 〈조립식 가족〉, 웨이브의 예능 〈모던 패밀리〉 등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를 조명한다. 그들이 픽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우리 근처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미디어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확인하는 걸 넘어, 이제는 상상해 오던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만한 제도를 요구할 차례가 왔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보는 공동체를 '정상가족' 범주에만 한정해놓았다. 일부 복지 제도에서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의 다양성을 일부 열어놓았지만, 결국 '이성부부와 그 자녀'로 정상가족에 모든 기반을 둔다. 혈연과 이성애 부부로 정의되는 정상가족 모델은 그에 속하지 못하는 공동체들, 더 나아가 정상가족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존재들, 그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존재들을 차별하고 사회로부터 배제한다. 이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을 재생산하는 게 아닌, 어떤 존재들을 취약한 상태에 놓아 고립하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돌봄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기반을 파괴해버린다.

돌봄은 차별과 배제의 반대말이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소외시킨다면 잘 돌보는 사회, 보편적인 돌봄은 생겨날 수 없다. 우리가 상상해 온 공동체들, 돌보는 공동체, 다양하게 관계 맺는 공동체들이 현실에 실현되려면 어떤 존재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틀을 부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법과 제도와 함께해야 한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혼인평등소송으로 다시 가시화된 동성혼 법제화, 동성 파트너는 물론 비혈연 가족이 법적인 보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

게끔 하는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앞의 두 제도의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까지. 점점 더 많은 존재가 외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 현실로 나올 수 있게 하라고.



혼인평등을 위해 나선 11쌍의 원고인단.

이미지 출처(삽입 순서대로)

“모던 패밀리 시즌2”, 씨네21, http://www.cine21.com/db/tv/info/?tv_id=2031.

Bob D’Amico, “Modern Family’ through the years”, USA Today, 2019.02.05, <https://www.usatoday.com/picture-gallery/life/tv/2019/02/05/modern-family-through-years/2776411002/>.

Malcolm Venable, “Pose’ Is Ending, But Its Impact Will Live on Forever”, Shondaland, 2021.04.29, <https://www.shondaland.com/inspire/a36280361/pose-is-ending-but-its-impact-will-live-on-forever/>.

Danielle Turchiano, “How ‘Pose’ Paved the Way for Better TV Representation — In Front of and Behind the Camera”, Variety, 2021.04.23, <https://variety.com/2021/tv/features/pose-final-season-steven-canals-impact-legacy-representation-1234946630/>.

Mikelle Street, “Here’s What Happened to ‘Pose’s Damon In the Final Season”, Out, 2021.05.03, <https://www.out.com/television/2021/5/03/>

what-happened-poses-damon-ryan-jamaal-swain-finale-season#toggle-gdpr.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왓차피디아, <https://pedia.watcha.com/ko-KR/contents/tlAn0NW>.

박주연, “연애, 섹스, 결혼 없는 무성애자의 ‘가족-되기’”, 일다, 2022.11.08, <https://www.ildaro.com/9480>.

“수박”, 왓차피디아, <https://pedia.watcha.com/ko-KR/contents/tl9bJpE>.

“드라마 ‘수박’에서 여름이 오는 소리가 들려”, PAP-Magazine, <https://www.pap-magazine.com/ko/category/Culture/2732/news/>.

“사랑이 이길 때까지: 10월 10일 혼인평등소송 시작”,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4.10.30, <https://hopeandlaw.org/%ED%98%BC%EC%9D%B8%ED%8F%89%EB%93%B1%EC%86%8C%EC%86%A1%EC%8B%9C%EC%9E%91/>.

참고문헌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2022.

조한진희 외. 『돌봄이 돌보는 세계』. 동아사이, 2022.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 선언』.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박주연. “꿈꾸던 나, 꿈꾸던 가족이 현실이 되는 공간, ‘볼’ 일다, 2019.11.11, <https://ildaro.com/8589>.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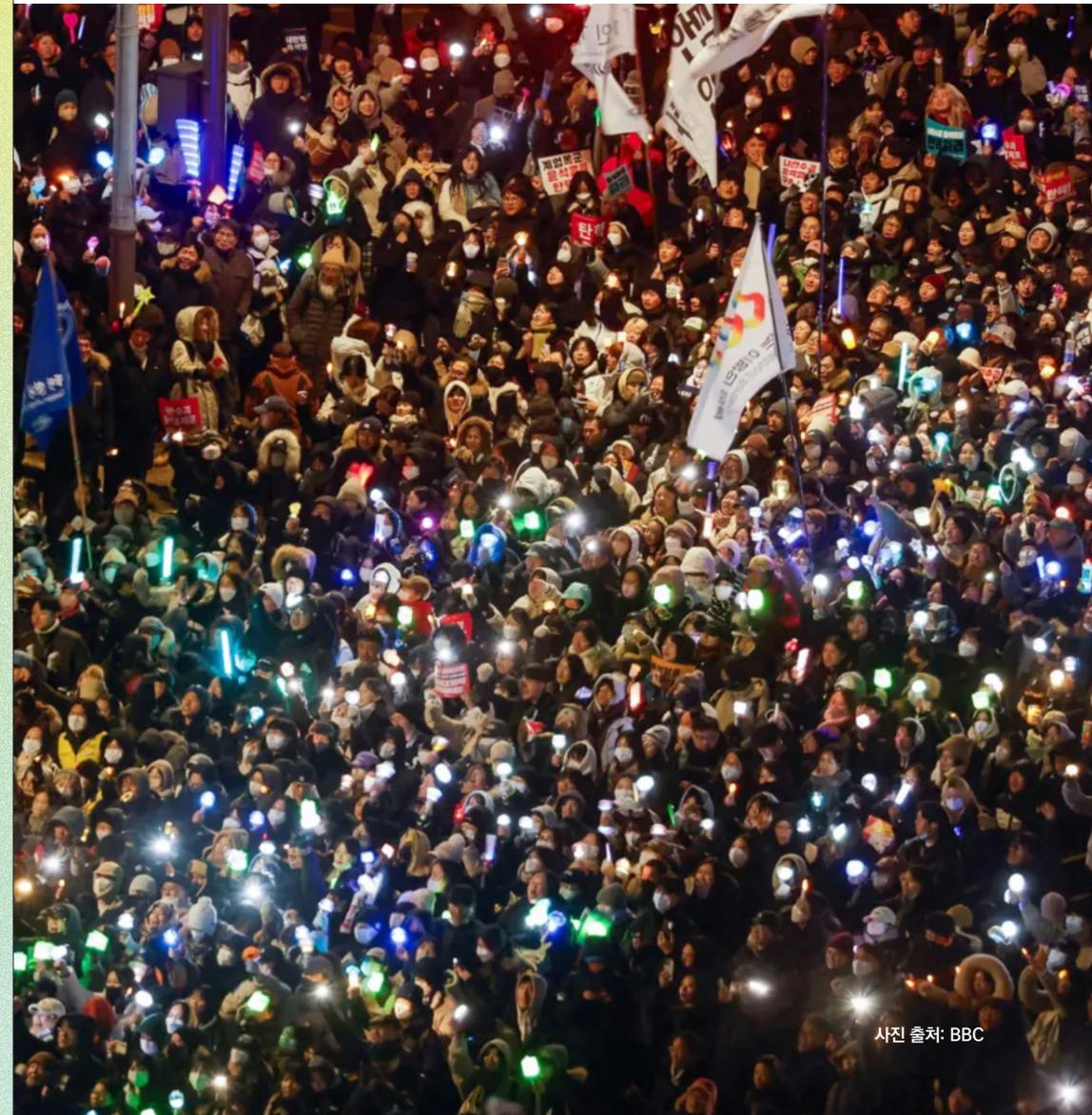


사진 출처: BBC

탄핵 대자보 아카이빙

정리정돈 데어

12월 3일 이후 문우의 시간은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문우방의 책상에 써 있던 “글로도 투쟁하는 문우가 되길”이라는 문구에 걸맞게도, 문우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계엄령과 민주주의의 앞에서 문우가 쓴 글을 남겨놓습니다.

협오와 탄압은 무너지고 평등과 자유를 세우리라 -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는 즉각 사퇴하라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9분(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문 기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당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실제적·절차적 요건이 애초부터 충족되지 않았음은 이미 수많은 기사에서, 수많은 단체의 성명서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문우편집위원회도 이에 동감한다.

문우편집위원회는 출판 단체이자 학생언론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구성하는 언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악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말했다. 여기서 상정된 “북한 공산 세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자유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은 누구이고 “우리 국민”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때껏 적극 배양한, 익숙하고 지겨운 이분법의 언어가 반복된다. 장애인으로, 외국인으로, 여성으로, 노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량한 국민과 구분되는 ‘적’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편을 갈라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약자를 배척하게 하는 모든 교활하고 혐오적인 언어를 거부한다. 그것이 종래에는 긴급계엄의 명분으로 채택되는 사태를 더더욱 거부한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실제적·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긴급계엄에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물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회로 빠르게 모인 의원들의 출입을 무려 국회 경비대, 경찰, 총을 든 군인과 특수부대가 무력으로 막았고, 의원들은 담을 넘고 총과 방패의 틈을 비집으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국회 본청의 창문과 문이 깨졌고, 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은 소화기의 연기와 맨몸으로 무기를 든 자들에게 맞서야 했다. 모두가 새벽을 뜯어내려 지새우거나 충격적인 소식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서 세상을 읽는 창구와 세상에 말하는 활동을 모두 앗아가는가? 당신이 무엇이기에 살아 숨 쉬는 자들에게 폭력적 권력을 행사하는가? 당신이 무엇이기에 혐오의 언어를 토대로 국가공동체에 연결된 모든 존재의 삶을 뒤흔드는가? 결론적으로 계엄 해제가 공고되었다지만, 이제 우리는 긴급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광경에 우리는 허망함을 느꼈고, 두려워했고, 불안에 떨었고, 절망했다. 모두가 한순간에 앞으로의 안녕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묻는다, 당신이 무엇이기에 자유와 민주주의와 존재를 위협하는가?

우리는 일체의 감시 속에서도 『문우』에 시를 쓴 운동주와 송몽규를, 결국 출판 탄압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던 『문우』를 기억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새겨진 무수한 억압과 혁명의 역사를, 불온하다며 '동료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하며 잔혹한 이분법에 맞서 존재를 주창하던 수많은 약자 '동료 시민'의 것까지 기억한다. 이 모든 기억이, 탄압에 주저하지 않고 써 내려간 글들로 우리에게 전해져 당시에 대한 자료인 동시에 앞으로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 펜을 들어 오늘에 대한 글을 쓴다. 그리고 과거의 글 속 남겨진 모습처럼 깃발을 든다. 『문우』가 몇 번이고 되살아나 발간되었듯이, 우리는 지워지는 대로 다시 적을 것이고 깃발히는 대로 다시 저항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은 지금의 쏟아지는 목소리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미래에 길이 남을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즉시 사퇴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펜/을/높/이/들/자**

탄핵 이후의 민주주의를 상상하며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온갖 곳에서 범람하는 요즈음이다.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계엄 선포 이후 모든 언론에서, 성명서에서, 집회 피켓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비록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일지언정, 우리는 잠시 멈춰 고민해보아야만 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민주주의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의원 200명이 모여 탄핵 찬성 투표를 하면,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지난 7일 시위를 우리의 상처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 부를 수 있을지 돌이켜보자. 되려 우리가 상처입는 시간이 아니었나?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읽지도 않을 것 같은 문자를 보내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뿐인 목메이는 시간들. 그들은 우리의 대변인이 아닌가? 우리는 왜 우리의 대변인에게 투표할 것을 간청해야 하는가, 그런데 어쩌서 그 목소리조차 묵살되는가.

국민의힘에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당론'이 있었다.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의 애타는 외침, 투표하라는 요구에도 그들은 민의 대신 당론을 따랐다. 우리는 분노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파고들어 봐야만 한다.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 명 한 명의 후보들은 새 정장을 입고, LED 전광판이 달린 트럭을 몰고 지역구 곳곳을 돈다. 인력 자원과 금전적 자원을 무지막

지하게 쏟아부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우리의 국회를 보자. 여성도 귀어도 장애인도 노동자도 농민도 너무 없다. 분명히 우리 국민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국회에는 없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약자가 아니라 소수의 강자들, 부자들,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다.

사실 이진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아직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 법제화를,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에게 민폐라며 야유받는 장애인운동과 노조파업을 알고 있다. 폭력 시위라며 외면받은 동덕여대를 알고 있다. 2/3의 참석 인원을 넘지 못해 탄핵 투표가 무산된 다수결에 국회 앞의 국민들이 좌절하기 이전에 먼저 다수결의 민주주의에 묵살된 그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있다.

문우편집위원회는 제안하고 싶다. 지금 탄핵을 외치는 이 자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시기가 적기이다.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목소리와 사람들이 우리이고, 우리 옆의 사람들이다. 지난 7일 집회, 페미당당의 활동가 심미섭 씨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광장에서의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어떤 이들은 내려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외쳤다. '탄핵이 먼저'라고.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나?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유린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그 민주주의조차 완전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탄핵을 동일시하지 말라. 민주주의는 우리 안의 균열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광장의 모두가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집회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뭉개려 들지 않고 함께 가야만 탄핵으로 얻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라.

문우편집위원회는 제안하고 싶다. 민의가 아닌 당론을 따른 국민의힘을 잊지 말라, 그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잊지 말라. 집회에 모인 장애인들을, 무지개 깃발들을, 응원봉을 잊지 말라. 이 시국이 끝나더라도 서로가 마주한 이 순간을 잊지 말라. 필요할 땐 '발견'했다가 다수결로 의견을 통일할 수 없을 것 같을 땐 '버리는' 것을 그만두라. 2030 여성은, 장애인, 퀴어는 민주시민으로서 항상 광장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이제 그만 '재발견'하고, 대신 민주주의를 재발명하라. 그리하여 다음 대선 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자. 국회에는 소수자를, 약자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운동하자. 하나의 목표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인 사람들을 만난 경험,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직시한 경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만나자. 공부하고 이해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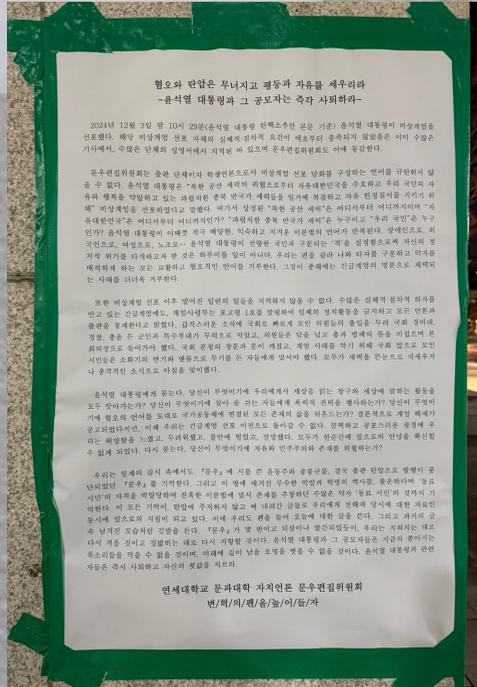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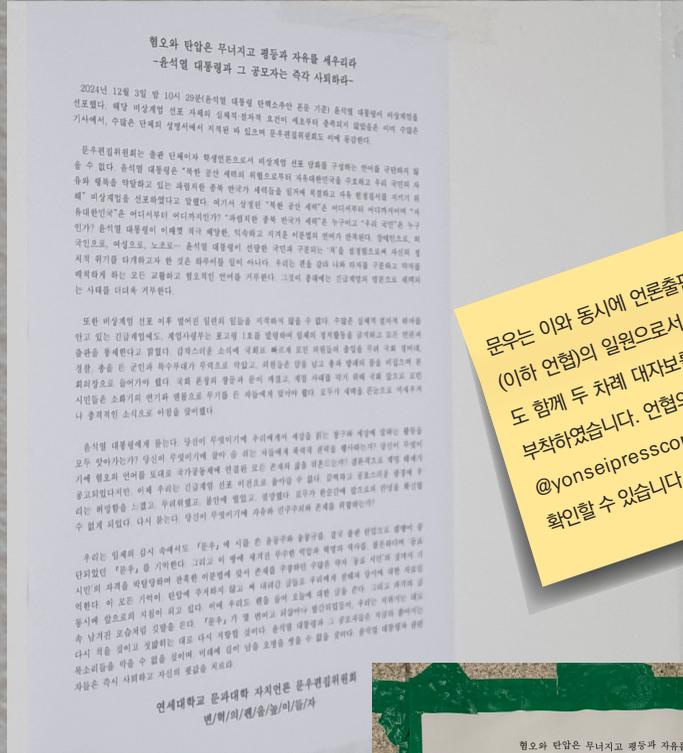
문우편집위원회는 제안하고 싶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의제-다수결의 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대의제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자의 다양화를 꾀함과 동시에, 다수결의 제도 바깥을 상상해볼 힘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 모두가 그 부당함을 아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다수결'에 의해 여전히 대통령인 이 12월 11일, 어떤 옳음이 다수결과 상관 없이 옳은 미래를 상상해보자. 다수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옳기 때문에 보장되는 미래를. 다수가 노동권 보장에 '찬성'해서 보장되

는 세상이 아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세상을. 불가능하고 막막해 보이는 미래인가? 그러나 더 막막한 건 윤석열이 아직도 탄핵되지 않은 지금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꿈꿔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문우편집위원회는 제안하고 싶다. 12월 12일 17시에 연세대 학생총회가, 그 이후 시국선언대회가 열린다. 학생회장은 학우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지난 긴급 중운위에서 이야기했다. 동시에 중운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넣지 말라고, 오로지 순수하게 퇴진만을 이야기하자는 발언이 이어졌다. 퇴진 이외의 정치적 발언을 성명문에서 하지 말자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없다. 우리 모두 총회와 시국선언대회에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 페미니스트로서 퇴진을 요구한다고, 노동자로서 탄핵을 요구한다고 말하자. 그리고 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민주주의의 회복을 원한다면 더는 '정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민주주의는 정치적 중립 따위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24.12.11

변/혁/의/펜/을/높/이/들/자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탄핵 집회 속의 문우



2024년 12월 7일 탄핵 집회 현장 사진



2024년 12월 7일자 MBC 뉴스에 포착된 문우편집위원회의 깃발



계엄 이후 구성된 학내외의 광장에 대한 개인적인 재현과 기록

편집위원 유연

0. 좁고 숨 막히는 용광로... 그것이 광장이다.

농담이 아니다. 1996년 연세대 한총련 사태 때 대학생들은 연세대 종합관(현 교과관)에 갇혔고, 2008년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에서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인 '명박산성'이 등장하여 광장을 둘러싸고 막았으며, 2009년 용산 참사 때는 남일당 건물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전장연 출근길 선전 전이 있는 아침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을 몰아넣을, 본래 용도는 휠체어 경사로였던 콤팩트 플라스틱 판을 꺼내오고, 지난달 남태령에서는 농민들의 트랙터가 지나갈 수 없게끔 경찰 버스 몇 대가 차도를 가로막았다.

광장, 우리는 그 이름을 들으면 자유롭게 너른 공간을 상상하곤 하지만 사실 광장의 역사는 이토록 고립과 봉쇄로 점철된 것이다. 너무 좁거나 너무 덥고, 몸과 몸이 부닥치며 마찰하고, 숨이 조여 오는. 때론 물대포나 최루액 혹은 진압봉이 들이닥치며 공포와 불안이 떠다니는, 언제 이 갑갑한 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끔찍하고 두려운 용광로.

찰찰하게 닫아놓은 철문에 길을 내기 위해 사람들은 용광로를 달군다. 단체를 조직하고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친다. 모든 운동은 그러한 열기가 필요하고, 끓는 열기는 용광로 속의 것들을 녹인다.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발언을 듣는 광장에서 어떤 몸들은, 그 몸들이 겪어온 시간은, 그에 부착된 감정들은 녹아내린다.

앞으로는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광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8년 전을 회상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선 광화문. 8년 전의 나는 초등학교생이었고 기억도 감정도 명확하지 않아 대신 기록과 재현에 기대어 그때를 인식한다. 작가 황정은은 그의 자전적 소설 『디디의 우산』에서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 '악녀 OUT'이라는 새빨간 팻말을 마주친 '나'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그는 자기처럼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여성들은 왜 보지 않을까. 똘녀라고 빨갛게 지칭할 때 '그 사람'의 여성은 그렇게 선명하게 보면서도, 그 팻말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

말할까 말하지 말까를 계속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니까……

모두가 좋은 얼굴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온 자리에서 분란을 만드는 일을 거리키는 마음이 내게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께말 앞을 그냥 지나쳐 왔는데 오늘 밤 집에 돌아와서 이 일을 계속 생각할 것 같다고 나는 말했다. …(중략)… 우리가 무조건 하나라는 거대하고도 괴로운 착각에 대해서도.¹⁾

8년 전의 광장에서 “우리는 우리”였고, 하나의 우리일 수 없게 하는 ‘말하기’가 곧 “분란”을 만드는 일이 되었다.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말, 비하와 혐오 표현을 문제시하는 말, 성추행을 고발하는 말이 분란이었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광장의 성폭력과 여성혐오를 고발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나의 광장’, 절절 끓는 용광로에서는 ‘암담’, ‘병신년’, ‘강남 아줌마’와 같은 말이 오갔다.²⁾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사소한 일로 대의를 망치지 말라는 압박으로 대응한 기록 또한 무수히 남아있다. 여성의 몸, 경험, 감각은 유서 깊게 사소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광장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많은 여성들은 분란이 허용되지 않는 광장에서 자신의 불쾌감과 공포를 그저 속으로 녹여야만 했고, 흘러내려 바닥에 늘어붙은 그것들을 사람들은 모르거나, 못 본 체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짓밟았다. 여성과 소수자는 공권력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옆자리의 동지를 두려워해야 했다.



『디디의 우산』의 ‘나’는 “혁명이 이루어진 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은 마침내 도래한 것일까”(314)라고 비판적으로 자문한다. 아마 아닐 것이다. 급박한 정국에서 자주 혼동되곤 하지만 탄핵은 민주주의의 도구 중 하나이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며, 그 자체로 혁명도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 대통령의 선출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도 장애인도 청소년도 상처 입고 피 흘린 광장, 그것들이 녹아 늘어붙은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도 혁명도 없었다.

1) 황정은.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306. 강조는 인용자.
2) 이유진.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여성”을 팔지도, 비하하지도 말라”. 한겨레, 2016.1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101.html.

1. 그런데 올해, '모두의 광장'이라는 선언이 등장했다.

‘모두의 광장’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이다. 이번 탄핵 집회는 두 갈래의 주최 단위가 따로 두 개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 계열의 촛불행동이고 다른 하나가 1,6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비상행동이다. 촛불행동은 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탄핵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런데 불법 계엄령의 발령 이후, 탄핵의 목소리가 드높아지며 촛불행동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단체와 개인들이 비상행동을 조직했다. 촛불행동에 김민웅 씨가 상임대표로 활동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적 있으며,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많은 참여자들이 비상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성폭력은 이제 광장에서 용납 불가하다
또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광장은 폭력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줄리 계엄이다”, “술집 여자가 영부인이 되었다”와 같은 말들이 하나둘씩 등장한다. 그러나 8년 전에는 승인되지 못했던 “분란”이 이제는 전면에 드러난다. 지난 12월 7일, 페미당당의 활동가 심미섭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어떤 이들은 투쟁 현장에서 혐오를 지적하는 의견을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자” 또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는 말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한 명의 시민으로 광장에 존재하고 싶었던 여성들의 자리를 혐오가 빼앗는다면, 그 무엇보다 심각한 “국론 분열”이 아닙니까! …(중략)… 페미당당을 비롯한 소수자 단체들은 늘 여기 광장에서 여성, 페미니스트, 퀴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며, 동시에 투쟁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를 막을 것입니다.³⁾

3) @gosms.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둔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트위터(현 X), 2024.12.07., 10:28 a.m., <https://x.com/gosms/status/1865327583388459481>.

녹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의 광장에 디딘 몸은 용광로의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놓여붙은 것들 위에 서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때 녹였던 기억과 감정을 다시 마주한다. 어렸던 나와 같은 이들은 기록과 재현을 통해 이 바닥에 녹아서 켜켜이 쌓인 것들을 보게 된다, 마침내 우리는 그만 녹자고 이야기한다. 용광로의 열기가 여전히 녹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혹 누가 '사소한' 것들은 녹여버리라고, 탄핵을 위해 하나가 되라고 압박하지는 않는지 주변을 살핀다.

용광로는 여전히 뜨겁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침내 품속에 적당한 따듯함을 안고 서로를 본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다름을 본다

우리 안의 다름이 불쑥 튀어나오고 더는 하나가 아닌 우리가 우리를 마주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광장에 존재할 수 있을까? '모두'라는 도 달 불가능한 지점은 어떻게 지향될 수 있을까?

지난 12월 22일 남태령에서 한 젠더퀴어 발언자가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성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고대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발언이 끝난 후 집회의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특정 정체성을 밝히는 이유만으로도 때로는 차별을 하고 때로는 굉장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용기 내어 자기를 소개해 주시고 발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을 떨며 새벽을 지낸 사람들에게서 크고 강한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자유발언자가 자신의 소속이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도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 광장에서는, 남태령에서의 사회자가 말했듯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젠더퀴어 같은 성정체성부터 연유덕, 뜨개인과 같은 취미인 정체성까지. 때로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직접적 목표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제 광장이 하나의 이야기가 영원히 반복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주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광장은 그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한다. 이를테면 보수적인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 젠더퀴어를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가? 혹은,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 농민을 만날 기회는?

모두는 각자가 택한 정체성으로서 광장에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22일, 남태령에서 투쟁한 사람이 "딸들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총격 논바 진짜 계심"이라는 깃발을 들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딸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에 돌아온 답은 "그렇구나 알아두겠다"였다.⁴⁾ 이때 광장에서 정체성의 인정은 김현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특정한 서사 내용("나는 레즈비언이다")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서사의 편집권에 대한 인정이다. 우리는 정체성운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더라도(뽀 femme이나 부치|butch 같은 단어를 모른다 해도) 그저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통해 그러한 인정을 표현할 수 있다("네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오늘은 레즈비언이라고 고백하고 내일은 그것을 부인해도 상관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 자신임을 인정한다").⁵⁾

이처럼,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모두'의 광장은 각자가 느끼기에 자신을 잘 설명하는 정체성으로서, 비록 그것이 남들에게는 설명되지 못할지라도 인정받음으로써, 불안정하게나마 모습을 갖춰 나간다.

열기가 만드는 우리의 하나됨은
이제 녹음이 아니라 불음이다
서로를 보고 (정체성으로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모두일 수 있게



4) @4_MY3612TH. "어떤 아저씨가 우리 딸들 수고했어!! 하시길래". 트위터(현 X), 2024.12.22., 9:52 a.m., https://x.com/4_MY3612TH/status/1870754153376735722.
5) 김현경. 『사람, 장소, 현대』. 문학과지성사, 2015, 215.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은 때로 폭력적으로 변한다. 누군가는 '어떤 정체성은 빠라'라고 요구한다. 어떤 정체성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붙고 싶지 않다고. 12월 말 트위터(현 X)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혐오를 답습하는 여성남자'일 뿐인 트랜스젠더와는 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트랜스젠더가 언제 광장에 나왔으며 그들이 '모두'의 광장에 존재할 수 없게끔 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1에서 3은 비상행동에서 배포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다. 사진 1은 여의도 곳곳에 크게 현수막으로 게시되었다. 집회를 시작하며 참여자들은 모두 사진 2와 사진 3의 약속을 함께 낭독한다. 광장에서 존재해도 안전하다는 감각, 존재할 수 있다는 느낌은 개인과 개인 간의 유대와 약속만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 공식적인 원칙, 선언, 문화가 중요하다. 혐오의 표출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참여자들의 힘은 그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과 선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광장에는 여전히 트랜스젠더가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약자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를 밝힐 수 있고, 존재한다. 혐오는 은밀하게 공기 중을 떠다니지만, 적어도 '모두의 광장'에서, 그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부산에서는 자신을 '술집 여자'로 소개한 발언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술집 여자에 대한 편견적

시선을 인지하고 있고, “무식한 사람이 나뉜다”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저기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테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시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뺀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⁶⁾

한 번 불은 사람들은 떨어지더라도 그 접합부에 다른 색을 남겨둔다. 정체성의 광장은 이미 탄핵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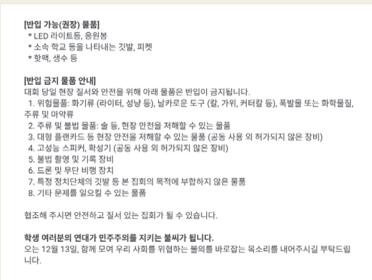
2. 그런데 동시에 대학에서는 과거의 광장이 재출현한다.

일전 대학은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공동체 중 하나였다. 학생운동은 사회운동의 큰 축을 담당했고, 대학생은 늘 정치적인 집단으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종말이라고도 불리우는

6) @roundsummer. "2024.12.11 (수) 부산 서면 집회 노동자 발언자". 트위터(현 X), 2024.12.11., 16:59 p.m., <https://x.com/roundsummer/status/1866875547948814416>.

1996년 연세대 한총련 사태 이후로 대학생은 차차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집단으로 탈바꿈되었다. 종합관이 불타고 다시 지은 교과관에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대학사회는 운동 그리고 정치와 엄격하게 선을 긋는다.

지난 12월 13일, 신촌에서는 19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 주도한 '전국 대학생 총결기 집회'가 열렸다. 참여 신청 란에는 반입 가능(권장) 물품으로 소속 학교 등을 나타내는 깃발, 피켓이 적혀 있었다. 반면 반입 불가 물품에는 특정 정치단체의 깃발 등 본 집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 적혀 있었다.



국회와 광화문 앞 광장에는 정당의 깃발도, 시민단체의 깃발도, 급조한 재밌는 깃발도 존재할 수 있었다. 국회 광장의 제1원칙은 모두의 광장이었고, 허가와 상관없이 우선 모두를 들여놓은 뒤 혐오적이거나 배제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공간이었다. 반면 대학이 만든 광장은 어떨까? 대학생이 아닌 모두를 배제하는 공간에서 정치 단체나 시민 단체에 소속된 대학생은 허가될 수 없었다. 반입 가능(권장) 물품에는 심지어 배후 정치 세력이 없음을, 우리는 정치적 반동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된 역사를 가진 '재밌고 이상한' 깃발이나 피켓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대학의 광장은 특정 대학 소속만을 정체성으로 가진 대학생들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런 대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한 대학생 되기를 요구하는 총학생회와 학내 여론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보인다. 지난 22일 남태령 집회에서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다.

저희가 자보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타에 올리고 나서 욕을 조금 먹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 정치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대학가에서 요즘 좋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집회를 하면 대학생의 순수함에 맞춰서 해라.⁷⁾

7) @nogojiri_sogang. "어젯밤 남태령으로 진입하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경찰에 의해 막혔습니다." 인스타그램, 2024.12.22., https://www.instagram.com/reel/DD3VswoSVER/?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IODBiNWFZA=.

차가운 옹광로인데도 어떤 다른 것라도 붙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색이 옮겨붙는 것은 오염이라는 감각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오염되는 것인가'
이때 오염되는 순수한 대학생은 대체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재는 이야기하지 말고, 순수하게 퇴진만을 요구하자'는 요청 혹은 강요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꾸준하며, 이는 연세대학교에서도 똑같이 등장한 논쟁이다. 연세대학교 학생이자 대학언론인인 나의 '정체성'을 렌즈 삼아, 우리 학교가 지나온 시간들, 그 속에서 내가 포착한 문제적 순간들을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12월 4일의 중운위에서 자주 등장한 말은 "좌우편향", "정치적 중립", 그리고 "연세대 총학생회의 이름을 걸고"였다. 일부 중운위원들에게 연세대 총학생회 명의로 입장문을 낸다는 건 연세대 학생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 대다수의 찬성이 곧 정당성을 담보했다. 총학생회는 의견이 있는 기구라기보다는 다수 의견 학생을 대리하는 기구였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투명한 학생정치라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일의 중운위는 시국선언대회와 학생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때 이것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실무적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할지 여부와, 시국선언대회와 총회의 개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4일의 중운위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 "[총학 명의 입장문의] 논조는 절차적 정당성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기타 하이나 후적조치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 77조나 제엄법 2조 등 법적인 내용으로만 입장문이 작성된다 한다면 좌우논리에 편향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한 정서와 공명한다. 학생회는 절차에 기대고, 법적 정당성에 기대다. 이는 그것이 중립적이고 그래서 무결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법과 절차와 그것이 보장하는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은가?

계엄 선포 이후 총학생회가 중운위와 학생총회를 통해 '공론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실시간 속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속기는 녹음으로 대신하였으며, 이후 회칙상 14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회의록과 속기록도 시간 내에 업로드하지 않았다. 중운위에는 참관인으로, 학생 총회에는 프레스로 나와 함께한 친구들은 자체적으로 실시간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공유 문서를 만들며 우리는 의문을 던졌다. 총학생회는 왜 청각장애인의 총회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간절하다면? 이에 덧붙여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른다. 턱이 높은 잔디밭에 학생들이 앉게 구성한다면, 휠체어 사용자는 어디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학생총회 공지 어느 곳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착석할 수 있는 자리는 안내되지 않았다. 쌓이는 의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로 좁혀졌다. 총학생회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우리'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다.

한편 연세대 구성원임에도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배제당하는 존재들이 있다. 학생총회가 열린 잔디광장은 '재적생'임을 연세포탈 화면을 보여주고 인증함으로써 입장할 수 있었다. 본인이 재적생임을 아는 학생들은 그 재적생의 기준이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중립적인 총학생회가 중립적인 제도를 통해 잘 처리했으리라고 생각하거나, 재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재적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학생만이 재적생의 정의에 대해 질문했다. 연세대 미래캠 학생, 미래캠에서 신촌캠 전공을 복수전공해 신촌캠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재적생이 아니었다.

대학사회는 정치에 오염되기 전의 순수한 대학생이라는 허상을 믿는다
하나의 대학생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쳐 녹였을까
연세대학교 광장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기억들이 녹아 늘어붙어 있을까

그렇게 누군가를 상상하지 않고, 호명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 '광장'은 단지 연세인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사회대 학생회장은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쳐 싫으니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대학생, 연

세인으로서 무엇이 분노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 논리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 연세인은 지성인이라는 엘리트주의다. 또한, 분노할 이유는 다른 정체성이 아닌 연세인,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로를 처음 마주하며 다양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한 집회와 다르게, 총회의 소개는 학과와 학번으로 통일되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노동자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로지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서의 발화만 허용되는 공간에서 2시간가량 이어진 학생총회는 결국 도돌이표였다. 비상식적 계엄령, 민주주의의 파괴, 선진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끄러운, 국회에 병력 투입... 똑같은 발언이 반복되자 친구가 프레스석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와서, 자신이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내가 단위 명의로 쓴 성명을 대신 낭독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친구에게 모자와 마스크가 있는지 살폈고, 빠르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쓴 성명에는 "페미니스트로서 요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나는 친구가 삼천여 명가량의 동질적인 연세인 앞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게 둘 수 없었다. 이 광장은 안전하지 않았다.

8년 전, 하나의 광장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나는 그때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지금 대학이 바로 하나의 광장이다.

3. 그런데 나는 이제 대학에서도 침묵하고 싶지 않다.

계엄 이전, 연세대에서 시국선언 대자보를 작성하자는 기획이 있었다. 오픈카톡방을 통해 참여자가 들어왔기에 기존 학내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학생회를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학내 운동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여럿 들어왔다. 오픈카톡방 참여자가 60명을 넘길 즈음, 계엄이 선포되었다. 대자보 토크방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갔고, 50명 남짓이 넘어왔다. 그 안에서 또 실무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니 서른여섯 명이 남았다. '윤석열의 계엄령을 규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모임'(이하 규탄모임)은 그렇게 구성되었다. 규탄모임은 대자보를 작성해 게시했고, 연세대 구성원을 상대로 연서명을 받았으며, 12월 8일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른 명 넘게 존재하는 이 공동체는 계엄을 시초로 구성되었고 본래 서로 알던 사람도 있었지만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본 사람도 많았다. 어떤 구성원은 대학원생이었고, 어떤 구성원들은 정당원이었으며 정당원보다는 시민단체의 회원이 더 많았다. 어떤 구성원은 아예 운동 경험이 없다시피 했

다. 연서명과 기자회견 진행을 위한 회의는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리라는 기본적인 합의는 된 상태였지만 서로의 정체성은 잘 모르거나 들어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은 아슬하고도 위태한 연대였다. 돌이켜보면 이 작은 공동체가 연세대 안의 '정체성의 광장'이 아니었는지 싶다.

그러나 이 광장은 공식성이 없었으며, '순수'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소수였다. 대학 밖의 광장에는 백만 명, 이백만 명의 시민이 있었는데, 대학 안의 광장은 서른 남짓이었다. 에브리타임과, 규탄모임이 운영한 연서명 관련 정보 공유 오픈카톡방을 통해 구성원의 순수성과 비정치성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들어왔다. 혹시 정치랑 관련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연서명에는 참여하기 싫다는 말부터 노동자연대가 엮여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럼 서명한 내 정보가 노동자연대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억측까지 다양한 의심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순수성의 증명이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순수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다.
모두의 약속도 모두를 위한 광장을 위한 현수막도 없는 이 광장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규탄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학내에서의 활동보다는 학외 활동, 즉 매주 토요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 '연세대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의 파란 깃발을 새로 뽑았고, 그 깃발 아래 학생들이 결집했다. '연세대'의 이름을 걸고 집회에 참석하는 건 총학생회로서는 할 수 없는 '정치적'인 행동이었고, 규탄모임의 의의를 그때 나는 그 지점에서 찾았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정국이 길어지며 나와 규탄모임의 몇몇은 이 모임을 장기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치 '모두의 광장'처럼, 학내에 존재했지만 서로 다르고 서로 몰랐던 우리가 느슨하게 엮이게 된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조금 더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 이에 정치적 활동을 하고 싶어 모인 학내의 사람들이 학내에서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해졌다. 절대 중립적이지 않고, 늘

다수결도 아닌 정치, 다양한 정체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광장을 학내에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함께하는 연세인권네트워크(이하 함연넷)을 발족시키게 되었다. 연세대학교와 엮인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 '우리 학교 정상 영업하지 않습니다'를 필사적으로 외치는 광장을 원하면서, 학교의 광장이 내게 존재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학교에 모두의 광장을 만들어 내 존재의 자리를 놓고자 한다. 그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며, 내가 학교를 다닐 동안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글은 나의 개인적인 기록과 재현이다. 녹은 내가 광장 바닥에 있다. 녹은 이들이 바닥에 켜켜하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꺼리는 마음, 공격에 대한 두려움, 말하지 못함에 대한 모멸감, 존재할 수 없다는 무력감, 상상되거나 포함되지 못함에 대한 허망함, 지나치게 정치적인지 걱정하다가 문득 밀려오는 슬픔. 하루 종일 에브리타임에 연서명을 검색하던 시간들과 에브리타임을 삭제한 기억, 대자보를 붙이며 뒤를 흘끗 돌아보던 순간과 다음날 대자보 자리에 남은 테이프만을 발견한 기억.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대학에, 연세대학교 광장 바닥에 녹은 기억과 감정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8년 전의 광장 위에 섰듯이. 그러면 어쩌면 그들은 그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더는 녹지 말자고, 우리는 더 이상 녹지 않겠다고.

이 글이 나의 믿는 구석이다. 나는 논바이너리가, 트레비앙 직원이, 페미니스트가, 비정규 교원이, 과학관 청소노동자가, 장애인인, 그리고 정치인이 발언하는 미래의 학생총회를 꿈꾼다.

영업

이 글이 발행될 3월, (모든 수순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함연넷은 첫 신입 회원을 절찬리 모집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학내 행동에 관심이 생겼거나, 인권행동을 함께할 동료를 만나고 싶다면, 혹은 그저 느슨하게 학내외의 인권행동 소식을 꾸준히 접하고 싶다면 함연넷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2월 초에는 함연넷에서 “계엄 이후의 수다회: 우리 대학 정상영업 한 적 없습니다”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수다회의 속기록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 글을 읽고 대학사회 탈정치화 혹은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인권 및 정치행동 등에 관심이 생겼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글을 쓰고 싶은 독자 분들은 문우편집위원회가 환영합니다 <3)

인스타그램: @yonsei.rightsaction

이메일: yonseiresignation.action@gmail.com

참고문헌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황정은.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이유진.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여성’을 팔지도, 비하하지도 말라””. 한겨레, 2016.1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101.html.

사라져가는 땅을 바라보며

편집위원 단(丹)

1. 언제 마지막으로 맨땅을 밟아보았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이 되고 고향에서 상경한 이래로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살며 내 신발 밑창은 크게 얼룩지는 일이 없었다. 내 고향 충청북도 괴산군은 지도를 꽤 확대하지 않으면 지명이 보이지 않는 작은 산골짜기 시골 마을이다. 속리산 자락의 첩첩산중 가운데 위치하여 고속도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집 가는 길에도 수십 번 산과 고개를 넘고 터널을 지나야 하는 곳이다. 요즘에는 제법 탁 트인 고속화 도로도 생겼지만, 그 위를 텅텅거리며 지나가는 트랙터와 포터 트랙을 보고 있다면 괴산은 역시나 시골 마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골인 괴산에서 내 집은 훨씬 더 시골이다. 하루에 두 번, 아침 8시와 낮 1시에 다녀가는 시내버스는 그마저도 마을 입구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걸어서 한 시간이 우습게 넘는 길을 걸은 다음에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 처음 40분 정도는 터벅터벅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시골길을 걷는다. 검은 아스팔트 대신 희뿌연 시멘트로 만든 도로인데, 트랙터나 경운기 바퀴에서 떨어져 나온 황토흙이 덕지덕지 엉겨 붙어 요즘에는 아주 갈색처럼 보이는 도로이다.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단일 차선 도로라, 차든 사람이든 먼저 도로에 들어선 것이 있으면 반대편에서 오던 것들은 갈림길 도로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마을의 파란 지붕 조립식 집들은 하나둘 사라져 가고, 점차 주위가 논밭으로 뒤덮인다. 휴경 중인 밭 어귀에서는 산고양이들이 쥐를 잡으려 동분서주하고, 아무개 집 발바리 강아지가 괜히 한두 걸음 발맞춰 따라와 준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산이다. 종종 등산복 입고 걸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진짜 산. 시멘트 도로가 뚝 끊기고 나면 가운데 잡초가 잔뜩 자라난 오르막 흙길이 나타난다. 두어 걸음만 걸어도 운동화 밑창은 금세 흙이 묻어 얼룩덜룩해지고, 흙과 돌맹이의 생경한 질감이 발밑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또 하염없이 2~30분을 걸어 올라가면 정겨운 그리운 낮은 여전한 내 집이 있다.

이 집에 살았던 오랜 시간 동안, 내 모든 신발의 밑창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나무와 풀을 원 없이 만지면서 살았다. 아무리 가느다란 나무라도 키가 크다면 그 뿌리가 깊어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비가 온 후에는 평평해 보이는 흙보다 마른풀을 밟아야 발이 빠지지 않는다. 봄이면 호미 한두 개를 들고 마당에서 삼십 걸음이 채 안 되는 곳에서 봄나물을 채취해 먹는다. 농사를 지을 때면, 고라니가 콩 새순을 뜯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 밭 가장자리에 깻잎을 두 줄 심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능숙한 녀석들 때문에 매번 골머리를 앓았다. 밤이면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짜기

가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하늘에 수 놓인 별들이 거실 창 너머로도 손에 잡힐 듯하였다. 학교에 가려면 꼭두새벽부터 엄마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하고, 문화생활이라고 친구 집 TV로 보는 영화 재방송이 전부였던 나의 그리운 어린 시절.

그러나 사실 나는 내가 살아온 농촌의 환경, 내가 경험한 농민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항상 꺼려왔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스스로를 온전한 농민으로서 정체화하기에 부족함이 크다는 사실이다. 워터로부터 농지를 물려받고, 어릴 때부터 농업을 삶 속에서 학습하고, 농촌 마을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삶. 동시에 농업으로서 삶의 궤를 이어가고, 농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다양한 농민 의제가 일상에 직접 맞닿아있는 농민의 삶과는 언제나 거리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농업인은 으레 생각하듯 선대로부터 농업을 위한 농지와 작물, 재배 방법에 대해서 전수받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땅을 가꾸며 살아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여타의 산업구조와 달리 시사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농촌 의제에 깊게 연관되어 존재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농지를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생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직업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 이상의 '농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농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한다.

그런 반면에 나는 농촌 지역에서 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은 서울 출신이시며, 조부모님 또한 여전히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미묘한 지점을 지니고 있다. 부모님 모두 젊은 시절부터 해오시던 본업이 있었으며, 몇 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본격적으로 밭을 일구시지 않는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승용차를 타고 사무실에 출근하시고, 집에 번듯한 농기구가 있는 것도, 수확한 작물을 판매하는 유통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집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그저 농업을 잠깐 경험해 본 가정일 뿐이다. 결국 나는 농촌에 대한 명확한 소속감보다, 그저 '자연환경'이 가까운 생활 공간이라는 인식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농민을 이해하는 흐릿한 연결고리였을 뿐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의 농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납작하게 이해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비수도권 지역과 농촌 지역은 면적상으로는 큰 교집합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 분포상 완전히 같이 위치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

들을 지니고 있다. 앞서 서술하였던 인프라가 열악하고 자연이 밀접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일반적인 '비수도권' 지역의 풍경으로 연상되었을지도 모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 시절 및 학창 시절을 보내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쯤 그런 질문을 들은 경험 이 있을 것이다.

“고향에 영화관 있어?”

“너희 동네에 스타벅스나 뭐... 프랜차이즈 카페 있어?”

“너네 집도 그러면 농사짓거나 소 키워?”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질문이지만, 여전히 드물지 않게 대답하고 있다. 물론 상상 속 목가적인 시골 마을을 기대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친절한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영화관 없어. 요즘은 다들 집에서 OTT 보는데, 나 완전 어릴 적에는 군민회관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족영화 상영해 준 것 같아. 아니면 차 타고 한 시간 가면 좀 큰 도시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어.”

“스타벅스는 없고, 이디야는 있어.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되어서 못 들어온대. 대신 체인점 카페는 종종 보여. 그래서 대부분 직영점인 맥도날드, 버거킹은 없고, 롯데리아가 있잖아.”

“요즘 누가 농사를 지어 먹어. 다들 직장 다니지. 근데 우리 집은 마당에서 쪽파 키워. (웃음)”

가벼운 문답이다. 관념적인 시골 마을 출신인 나에게 누군가가 내심 기대했던 대답이 튀어나 온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그렇지만 당연한 대답이 나온다.

“무슨 소리야. 너희 그거 다 고정관념이야. 수도권 아니라고 다 허허벌판 시골 마을인 줄 아네. 꼭 광역시 아니더라도 수도권 신도시 못지않게 발전된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즉 비수도권은 하나의 이름표로 통칭되어지지 않는다. 비수도권에서는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이 있고, 도시화가 되지 않은 농어촌 및 산림 지역이 있다. 게다가 도시화가 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인 것 또한 아니다. 1970년대까지 200만을 유지해 왔던 농업 가구 수는 2023년 100만 농가가 한계선을 깨며 99만 가구로 하락하

였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¹⁾ '비수도권이 농촌이며, 농촌에 거주 하는 이들은 모두 농민'이라는 무의식적 전제는 허무할 정도로 오류투성이다. 심지어는 수도권으로 통칭되는 서울 및 경기권에서도 여전히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농촌 지역 출신으로서, 고향을 묘사하고 농민 의제를 발언하는 것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표현된 공간이 그보다 넓은 인구 지역적 특성의 다양성을 가리고, 더 나아가 지방민에 대한 편 가르기와 무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오랫동안 고향인 농촌 지역에 대한 **막연한 향수감**, 농업에 대한 **흐릿한 연결점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도시민과 농촌민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를 오가고 헤매면서 어쩌면 외로움을 느낀 것 같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몇몇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깝게 농민들을 지켜봐 주는 이유만으로 농민 의제에 발언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였다. 또 한동안은 농촌 출신이라는 것이 어쩌면 소수자성으로 나를 따라다녔으며 그것을 내심 부끄러워하였다는 생각에 사로 잡히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며 나는 그저 서울에서 살아갔다.

서울에서 사는 동안 맨땅을 밟을 일이 없었다. 바닥은 언제나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으로 가득 쌓여있었고, 종종 드러난 땅에는 '밟지 마세요' 팻말 너머로 잔디나 조경수가 심겨 있었다. 서울은 마치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 같았고, 이곳의 사람들은 땅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맨땅을 밟아보았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서울은 땅이 아닌 바닥 위에 지어진 도시였으며, 종종 땅 위에 무겁게 올려놓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과연 그 땅의 흙색이 어떠한지 궁금할 뿐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1) 하지혜. "'100만 농가' 깨졌다...더 짙어진 '농촌 소멸' 그림자." 농민신문, 2024.04.2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419500820>.

2. 남태령을 보았다.

유달리 다사다난하고 많은 눈물과 분노를 가져왔으며, 매 순간 생존에 대한 불안을 여실히 느끼며 살아야 했던 2024년이였다. 그중에서도 12월 21일 동짓날, 가장 길고 긴 추운 밤이었다. 그 날 함께한 이들은 광장을 더 크게 열었고 오래된 땅이 아직 투쟁하는 우리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음을 느꼈다.

지난 12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하였다.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때 처음 만들어진 전봉준투쟁단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에도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 2024년, 이들이 농사를 위해 무엇보다 귀중한 재산인 트랙터를 걸고 바퀴가 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서울로 출발한 계기는 '양곡관리법(양곡법)²⁾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첫 번째 거부권을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에 행사하였고, '포폴리즘 법',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하며 농민 의제에 강력한 반감을 표하였다. 이에 맞서 투쟁하던 농민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시위에 함께하기 위하여 전남과 경남 등지에서 트랙터를 타고 출발하였다. 행진단은 길에서 먹고 자고, 딱딱한 아스팔트에 바퀴가 닳고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며 6일간 전국을 누볐으며, 각지의 농민들이 행진에 합류하였다. 시속 20~30km로 최선을 다해 달린 트랙터들은 '윤석열 체포구속'과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 등을 내걸고 남쪽 끝부터 서울까지 행진하였으며, 21일 남태령 고개를 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농은 21일 저녁에 "시민 여러분, 2024년의 우금치 남태령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라며 긴급 호소하였다. 경찰이 21일 오후 1시경부터 남태령 고개 부근에서 8차선 대로에 차벽을 세우고, 트랙터들을 비롯한 전봉준투쟁단의 행렬을 막은 것이다. 예고도 없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농민들을 가로막은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를 깨고³⁾ 운전자를 무력으로 끌어내리는 등 강경 진압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농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⁴⁾ 트랙터를 강제로 끌어낼 견인차들이 동원되고, 수백

2) 다음 목차에서 후술할 주제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정부에서 쌀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다.
3) 트랙터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다르게 운전석을 둘러싼 차체 벽이 전부 유리이다. 잘못 깨진다면 크게 다칠 수 있는 크기의 강화유리이며, 깨졌을 때 운전자는 문짝 없이 운행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한다.
4) 전농 긴급호소문

명의 경찰들이 투입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농민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들의 부름에 응답하였다.

X(전 트위터)를 통해 전농의 호소가 빠르게 전파되었고, 시민들이 하나둘 남태령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이 오니까 경찰이 폭력적으로 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소식은 망설이던 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 그리고 집과 학교, 직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시민이 흑한에도 남태령에 모여 농민의 곁을 지켰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길이 통제되니까 승용차나 버스에 탄 일반 시민들도 하나 둘 씩씩거리시면서 내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시민들이 우리한테 욕하려는 줄 알았죠. '농민들이 왜 시위를 해서 차 막히게 하나할 줄 알았죠. 근데 시민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들한테 가서 '지금까지 한 줄로 잘 가 시던 분들을 왜 막고 난리냐', '경찰들 빨리 차 빼라'고 마구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번에 유명해진 '차 빼' 구호가 거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시민들이 먼저 외친 거죠. 내 나이 곧 칠순인데, 그때 막 눈물이 날라 카대요."⁵⁾

저녁부터 젊은 여성들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남태령에 모여들었고, 영하 6도의 추위 속에서 농민들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유튜브 '전농tv'는 밤새 2만여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실시간 중계를 이어갔으며, 이를 지켜본 수많은 시민이 따뜻한 음식들을 남태령으로 배달시켜 보내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버스를 대절하여 보내면서 연대하였고, 경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켜보았다. 밤을 새우며 6070 농민이 '삼천만 잠들었을 때'로 시작하는 농민가를 부르며, 2030 시민은 '남만고양이'로 화답하였고, 여성 농민가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이어졌다. 밤새워 "차 빼"라고 외치며 남태령을 지킨 주축은 2·30대 여성들이었다. 하 의장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한 일이었"이라며, 추운 날 밤에 손녀벌 되는 젊은 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같이 행동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냐고 덧붙였다. 겨우 100명밖에 안 되는 시위대가 연행되지 않도록 지킨 것은 1000명의 시민이었다.

투쟁단 주축측은 진행 마이크를 내려놓고 광장의 시간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맡기자고 결정하였

5) 김성욱.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눈물...이런 적은 처음." 오마이뉴스, 2024.12.23., <https://omn.kr/2bl4d>.

다. 농민들은 시위의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넘기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구나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새벽에 발언을 신청한 사람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무대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발언 신청이 쇄도하였다. 남태령에서는 농민,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이민자, 청년 등 모든 참가자가 사회에서 각기 겪은 차별과 소외의 경험에 공감하는 청중이자 발언자였다. 소외된 이들에게 또 다른 소수자들이 손을 내밀었고, 남태령은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되었다.

무박 2일의 투쟁 끝에 이튿날 오후 4시, 28시간의 대치 끝에 차 벽이 열리고 30여 대의 트랙터 중 10대가 한남동 관저가 있는 한강진역까지 달을 수 있었다. 이날 아침이 밝을 즈음에는 응원봉과 방한용품 등을 들고 속속들이 도착한 시민들이 3만여 명까지 불어났으며, 이들은 차 벽이 열린 이후에 농민들과 함께 사당역까지 행진하였다. 투쟁단은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많은 시민도 관저로 합류하여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들은 이 사건을 **“남태령 대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남태령 대첩은 연대의 광장을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날 밤의 남태령은 ‘희한한’ 공간이었다. 시민들은 단순히 투쟁

단의 트랙터를 막는 경찰의 행위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왜 농민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분노하였다. 동시에 오랫동안 농민이 겪어온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이해하고, 동료 시민이자 함께 투쟁하는 동료로서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고령화 사회’라는 고정관념에, 폐쇄적이라 여겨지던 농촌 공동체의 농민들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의 문제에 연대하기 시작했다. 남태령의 광장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오랫동안 분리된 공간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이들이 한곳에 모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었다. ‘다시 만난 세계’가 그곳에 있었으며, 트랙터를 모는 농민의 손과 응원봉을 든 여성의 손, 그리고 깃발과 핫팩을 든 모두의 손이 서로를 맞잡았다. ‘남태령의 기적’이라는 말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28시간이었다고 사람들은 회상하였다.

오랫동안 농민은 소외되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서도 농민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이들의 목소리 또한 함께 작아졌다. 대부분 고령으로 이루어진 농촌 공동체는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운동에 함께 자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 각지에서 전개되는 농민 운동은 지역신문에 작게 보도될 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 수 없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곳에서 농민들은 외로움을 견디고, 억울함을 삼켜야만 하였다. 그러나 남태령 대첩 이후, 농민들은 젊은이들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하였다.

“어제와 그제,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농민들이 그걸 다 위로받고도 남을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시민분들이 훗날의 밤에 모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해 주고, 또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행동해 주시고, 후원으로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농민들도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도 사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사실 시골 가면 밤 되고 해 떨어지면 아무도 못 보거든요. 어제 농민들이 전부 다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줄 줄은 몰랐다’, ‘이 빛을 어떻게 깊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돌아갑니다.”⁶⁾

6) 김성욱. 앞의 기사(오마이뉴스). 하원오 전농 의장 인터뷰 인용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의 시위 현장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양재C에서 가로막힌 행진단은 끝내 서울로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의 전봉준투쟁단을 이끈 김영호 전 전농 의장은 인터뷰에서, 당시의 설움이 남태령과 겹쳐 보였다고 밝혔다.⁷⁾ 긴 트랙터 행진으로 피로에 지친 농민들을 기다린 것은 경찰의 곤봉과 발길질, 강압적인 체포였다. 당시 시위 인원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36명이 연행되었으며, 김 전의장 역시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렸다. 광화문의 촛불 시민을 침묵으로 지켜보던 경찰은, 상경한 농민에게 가차 없이 무력을 휘둘렀다. 당시 농민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에도, 자신들의 머리에 무자비하게 진압봉을 내리치는 경찰들을 보며 “농민은 이 나라의 하층민이구나”라는 생각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이라는 정체성이 진입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다. 마치 농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듯, 농민 정체성을 앞에 내걸고서는 서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부터 이어진다. “갑오년 동학농민군이 끝내 넘지 못한 그 우금치가 바로 여기 남태령입니다. 이번에는 넘고 싶습니다.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기필코 넘을 것입니다”라고 전농이 긴급 호소한 바와 같이, 농민 운동은 오랫동안 서울로 향하였다. 전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농민군은 국가의 수탈과 부패에 저항하며 혁명하였고,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제국의 손을 빌려 이를 제압하였다.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인해 농민군은 당시 한성으로의 진입이 좌절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전농, 전여농 운동이 ‘전봉준투쟁단’의 이름을 계승한 것처럼, 오랫동안 농민 운동은 ‘서울’에 맞서는 소수 세력으로서 그 의미를 지녀왔다. 그동안 농민에게 서울은 투쟁하여 쟁취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으며, 저항해야만 하는 다수 세력이 주둔하는 공간이었다. 농민들은 오랫동안 서울의 높은 장벽 앞에서 외치고 투쟁하고 외면당하고 좌절해 왔다. 그러나 남태령 대첩은 농민들에게 130년 만에 서울이라는 굳건했던 장벽이 뚫리는 순간이었던 동시에, 그 속의 이들과 연대하고 이해하고 결합하는 경험이 되었던 것이다. 서울과의 오랜 대립과 분리가 무박 2일의 투쟁 속에서 새로운 연대의 국면을 맞이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7) 이재환. “‘남태령 대첩’, 2016년 양재C서 막혔던 그때 떠올라.” 오마이뉴스, 2024.12.21., <https://omn.kr/2bljj>.
 8) 김혜형. “남태령의 젊은이들 덕분에 이제 농민은 외롭지 않다.” 시민연론 민들레, 2024.12.2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94>

한편, 남태령에서의 경험은 2·30대 여성들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농민 의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은 처음 남태령으로 향할 때, 트랙터 대행진을 하게 된 정확한 농촌 의제를 이해하고 간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⁹⁾ 이들 중 일부만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뿐, 농촌 의제에 대해 이전까지 큰 관심을 지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광장으로 올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앞서 메시지가 전달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농민 의제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기 위해 찾아간 공간은 점차 모두의 삶을 이해하는 공간이 되었다. 밤새 진행된 시민 발언에서는 다양한 개별 의제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밝혔고, 농민 의제와 탄핵 시국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양태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잘 알지 못한 의제를 발언하여도 아무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알아두겠다”¹⁰⁾라는 말처럼,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주체라는 것을 그 순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태령은 서로를 특정한 필요에 의해 잠시만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투쟁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동지로서 이해하는 공간이었다. 동시에 폐쇄적이고 가부장 중심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농민이 현대의 다양한 의제들에 연대할 수 있는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린 공간이기도 하였다. 남태령의 길고도 긴 밤 동안 사람들은 서로의 개별 의제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연대하였으며, 농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인간 대 인간으로 친밀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낮설게, 혹은 두렵게 느껴왔다. 그러나 서로를 만나고 대화하고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그들’을 ‘우리’로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의 문제는 ‘나의 먹거리로, 노동자의 문제는 ‘나의 일자리와 노동으로, 누군가의 인권 문제는 ‘나의 인권으로 인식되었다. 누군가의 문제는 곧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되었고, 누군가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었다.”¹¹⁾

9) 이슬기. “남태령 대첩 참가자 15명이 그날 밤 겪은 ‘희한한 일.’ 오마이뉴스, 2024.12.27., <https://omn.kr/2bmge>.
 10) X(전 트위터)의 한 유저(옹주)가 “딸들아, 고맙다”라고 말한 농민에게 ‘충격 논바 진짜 계심’ 깃발을 들 어보이며 자신이 논바이너리임을 밝히자, 농민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라며 대답한 것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재게시 되었다. 이후 정체성 포용과 성소수자 연대 논의의 상징적인 발언이 되었다.
 11) 장지혜. “8년 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 연대를 경험한 우리가 기대된다.” 오마이뉴스, 2024.12.28., <https://omn.kr/2bncv>.

남태령에서 시민들은 정체성이 교차하며 연대하는 감각을 일깨우고 공유하였다. 시민들은 서울을 향해 행진해 온 농민들이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 먹는 농산물이 어디서 재배되었고 생산되었는지를 느꼈다.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다른 정체성들이 한곳에 모여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투쟁을 하는 중에 서로를 만나고 의지하고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을 실현시켰다.

농촌은 농번기에 '품앗이'를 통해 부족한 일손을 채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서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데 모여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밭일을 돕는 것이다. 나의 밭일이 급한 만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밭일도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 명이 30일을 일하기보다 30명이 하루를 일할 때 훨씬 더 많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움받은 만큼 일손을 나누고, 내 마음이 급할수록 다른 사람 밭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남태령은 다른 어느 곳의 집회보다도 2-30대 여성과 퀴어들의 비중이 높은 공간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받는 불이익과 불합리함을 언제나 직접 체감하였고, 그렇기에 다른 누군가가 연대를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있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마음이 돌고 돌아, 서로의 짐을 나눠 들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품앗이가 잘 되는 마을일수록, 마을 전체의 농기계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장집에는 트랙터, 얼룩밭바리 집에는 땅속 작물 수확기계, 박씨 여사 집에는 탈곡기, 빨간 처마집에는 콩 심는 막대기가 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각자의 집에 흩어져 있다. 바꾸어 말해보자면, 필요한 물건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게 된다. 농촌 공동체의 대다수가 고령 노인인 지금, 농민들은 제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접하거나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들을 통해 농촌 의제를 전파하기에 어려움을 지낸다. 물론 농민 중에 SNS 이용에 능한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전파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교류에 능하며 실시간 소통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SNS에서 전파된 농민의 호소글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것은 연대가 앞으로 이뤄낼 수 있는 국면들을 명확하게 시사한다. 연대할 의지가 충분하게 있으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여성 청년들과 퀴어들이 농민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준 것이다. 연대가 필요한 곳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대가 전달되었다.



그렇게 연대를 위해 모인 농민,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수많은 시민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안전한 공간을 꾸려내었다. 흑한 추위에서 마지막 전철이 끊기자, 농민들은 시민들에게 이곳은 위험하니 제발 돌아가달라고 정중하였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시민들도 돌아가지 않고 농민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남태령은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공간이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음식과 방한용품이 서로의 손을 타고 뿔어나갔다. 사람들은 각자 챙겨온 핫팩과 장갑 등 방한용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넘겨주었고, 혹여나 음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 김밥 한 줄을 받으면 절반을 주변에 넘겨주었다. 따뜻한 물이 생기면 옆 사람과 나눠 마셨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너 나 할 거 없이 길을 열고 자신의 차에 히터를 틀어주었다. 인근의 여자 화장실이 붐비자 남성들이 먼저 남자 화장실을 양보하였고, 시민 발언에서는 각자의 정체성과 의제들을 들으며 모두가 호응하였다.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며, 서로를 돌보는 공간을 꿈꿔왔던 사람들은 그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전농준투쟁단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남태령 대첩'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광화문 시위에서 연대를 상징하는 1만 개의 무지개떡을 돌렸다. 다양한 색이 한데 모인 무지개떡은 전통적으로 다양성과 조화를 상징한다. 부모는 어린아이 생활상에 무지개떡을 울리며 '세상 만물과 사이 좋게, 우주와 조화롭게' 지내라는 소원을 담았다. 행운과 풍요, 평화를 비는 무지개떡은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남태령에서 시민과 농민은 '우리'가 되었고, 꿈꾸던 더 넓은 연대를 체험하였다. 김원천 전농 제주도연맹 지도위원은 "남태령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자 연대의 승리"라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시민들은 앞으로도 농민에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룻기에 마침내 투쟁단의 트랙터가 한남동에 도착한 순간, 서로의 삶에 함께하게 된 이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남태령의 기억을 통해 서울과 지방, 농촌과 도시 사이에서 흐릿하게 부유하던 정체성을 연대라는 이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남태령에서의 시민 발언 중, 한 여성은 스스로를 충남 농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흥대에서 열린 오타쿠 파티에 참석했다가 소식을 듣고 남태령에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의 트랙터를 아이돌 팬의 응원봉에 비유하였고, 농민의 삶을 쌀밥, 막걸리, 제철 먹거리 등으로 유쾌하게 연결 지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연결해 보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경계선을 넘나들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나의 부유하는 정체성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떠올릴 수 있었다. 농촌을 경험하고 농민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20대 여성으로서, 그리고 서울권 대학교에서 대학 언론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연대에 함께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고, 기대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내가 서있는 정체성들의 교차점을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경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을지 꿈꾸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겨울, 펜을 들고 남태령을 기록하기로 하였다.

“젊은이들은 과거 계엄에 맞서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앞 세대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제 그 감사를 저 젊은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정말 고맙다. 그대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것이 기겁과 반갑다. 지난 시대와 함께 늙어 소멸되는 것이 조금도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다.”¹²⁾

“남태령 대첩을 계기로 24일 전장연 집회에 처음 참가한 조수진은 민중가요 노랫말에 있던 '깨부수자 성차별'을 기억한다. (...) "옛날부터 연대를 해주신 거예요. 나도 저 공로의 혜택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점은 이 같은 일들을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임을 위한 행진곡 中)라는 노랫말로 받았다.”¹³⁾

12) 김해형. 앞의 기사(시민연론 민들레)

13) 이슬기. 앞의 기사(오마이뉴스) 남태령 대첩에 참가했던 15명의 여성과 퀴어 인터뷰 중 발췌

3. 앞으로의 농촌은 어떻게 되는가.

남태령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농민들의 삶은 지속된다.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를 끌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서울로 올라가게끔 한 도화선, 양곡관리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발의한 민생 법안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4월 4일, 윤 대통령은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맞받아쳤다.¹⁴⁾ 전례 없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사태의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효화시키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체만으로 엄중하다.¹⁵⁾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이라는 부정적 용어보다 법적 용어인 재의요구권을 사용해달라'고 한 만큼 그 파급력 또한 거대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포폴리즘 법안',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¹⁶⁾ 노골적으로 농민 의제를 홀대하였다.

쌀은 농민의 주된 소득원으로, 농가 경제 안정을 결정짓는 작물이다. 쌀값 투쟁이 언제나 모든 농민의 투쟁이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양곡관리법은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0년 2월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국가가 쌀 가격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를 매수하는 등 수급을 조절하여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이

14)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륙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다.

15)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을 지닌 정부의 수반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근래의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법치주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동시에 국회에서 '법률'을 입법 가능한 것에 반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법규명령'만을 발할 수 있다. 긴급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행정부는 반드시 법률보다 하위법령만을 발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장치가 계엄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권 발동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능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행정부에 재량이 있는 법규법보다 상위의 법령을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장치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필연적으로 국회의 입법 재량을 훼손하고, 삼권분립 법치하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

16) 2023.04.04.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폴리즘 법안입니다."

었다.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은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제1조에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내수 식량수급이 국내외 정세에 타격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법이다. 동시에 헌법 제123조 1항에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의 취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곡관리법을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위기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던 2007~2008년 즈음하여 글로벌 식량위기가 있었다. 기상이변과 중국발 농작물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세네갈, 이집트,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대와 볼리비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인접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에 들불 번지듯 폭동이 이어졌다. 한편,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는 멕시코에서는 ‘토르티야 시위’가 있었다. 미국과 UN이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자, 초국적 곡물 메이저 기업들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진출하였다. 이때 옥수수가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서 각광받으며 가격이 폭등하였다. 멕시코 시민들은 주식인 옥수수를 구매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기 전까지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금융위기에 비하여 식량위기에 둔감하였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주식인 쌀 자급률이 90%를 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이다. 주요 생산국들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가를 크게 올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였다. 그러나 이런 안전함이 도리어 국내의 식량주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안이한 대처로 이어졌다.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는데 식량위기는 모르는”¹⁷⁾ 정부가 이어졌고, 식량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 또한 줄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 쌀값을 둘러싼 문제가 점차 심화되었다. 식생활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쌀 소비가 차츰 감소하였으며, 시장의 남는 쌀과 그로 인한 폭락 문제가 되풀이되었다.

17) 차형석.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는데 식량위기는 모르는 이유 [편집국장의 편지].”

시사IN, 2023.04.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50>.

이에 대하여 정부는 쌀값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방지하려는 ‘쌀 생산조정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에 개입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21년 10월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산지 쌀값이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기존 양곡관리법의 재량 조항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기로 결정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22년, 수확기를 앞둔 9월에 시장 쌀값은 20% 넘게 급락하였다. 이는 45년 전 쌀값 통계 관측 이래로 전례 없이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무 조항이 추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여 발의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이전과 바뀐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에서 드러나듯, 원래 ‘매입할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논에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당시 야권 등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쌀 의무 매입을 통해 일시적 생산 과잉 문제를 안정시키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쌀에 집중된 기존의 국내 농업 구조를 변화시켜 구조적 생산 과잉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무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매입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을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잘 발동한다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였을 때, 쌀농사 의존도가 심해지고 쌀 재배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적 생산 과잉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며 고질적인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의무 매입 기준이 미약한 선에 그쳤다고 지적하였다. 당초 논의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졌을 때, 의무 매입해야 한다’고 지정한 바와 달리, 표결에 부친 개정안에서는 초과 생산 ‘3~5%’, 가격 하락 ‘5~8%’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쌀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이 되거나, 가격이 8% 이상 떨어지기 전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바와 다르다. 농민들은 ‘국회에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도,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도 전무하다’며 크게 유감을 표하였다.

동시에 전농과 전여농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쌀값 폭락의 원인은 농민들의 과잉 생산이 아닌 '수입 쌀'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에게 돌리고 양곡관리법을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등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40만 8천 700톤에 달하는 수입 쌀이 시장에 풀린다. 쌀 자급률이 90%인 상황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국내 쌀의 생산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논에 콩과 들깨 등의 타작물을 심을 것을 권하는 것 역시, 농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벼를 심는 논은 예로부터 침수가 잦은 저지대 평야에 위치하거나, 물에 쉽게 젖는 땅들에 위치한다. 물에 강한 벼의 경우, 홍수로 밭이 완전히 침수되어도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밭작물은 잠깐이라도 침수 피해를 입을 경우 치명적이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¹⁸⁾를 도입한 이래로 많은 농가들이 이에 참여하였지만, 재작년 작년에 잇따라 논에 심었던 밭작물들이 홍수 피해를 면치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농민들의 80% 이상은 고령농으로, 재배 작목을 손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성 있는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 재배법을 연구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하며, 밭을 새로운 작물에 적절하게 가꾸는 등 작목 하나를 바꾸는 데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영향으로 많은 쌀 농가가 재배 작물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며, 2021~2022년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벼농사에 부정적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한 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 없이 농민들의 과잉 생산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지적하는 탁상공론에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그 다음 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 실패하며 폐기되었다. 이후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 대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18) 원래 논에서 쌀을 재배하던 농민이 콩 등으로 재배작물을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내용을 수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¹⁹⁾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결국 두 법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인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후 2024년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관련 법안 4건²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²¹⁾

양곡관리법 사태는 두 가지 지점과 맞닿아있다. 우선 국내 정치사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농민을 홀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이다. 물론 과거에도 꾸준한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는 농민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농민을 대변하기는커녕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의원조차 턱없이 부족하였고, 청와대에서는 농업 담당 비서관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양육회 전여농 회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농업이 존중된 적이 없다”며 국내 식량주권 인식의 미약함을 비판하였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문제에서 정부는 언제나 농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언제나 쌀농사는 한국 농업 전반을 대변하였으며, 쌀값의 폭락·폭등 문제는 언제나 국내 농업계의 흥망성쇠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쌀값 문제에서 농민을 적진다는 것은 농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오랜 금기를 깨고 농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로 다루었던 쌀을 '시장재'로 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쌀은 시장재가 아닌 '정치재'였으며, 시장 질서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안보 자원으로서 관리해 온 작물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쌀 소비량과 상관없이 남는 쌀에 막대한 혈세를 들인다”는 전례 없는 표현과 함께 쌀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2023년 1월 16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회

19) 이는 애당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하여 요구한 바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일각에서는 더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농민의 요구사항이 크게 희석되어 원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측의 반발이 극심하였다.
20)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21) 하 전농 의장은 이에 대하여, “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농민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농민을 죽이는 거부권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농민을 버렸다”고 하였다.
22) 최지현. “양곡법 거부, 체포도 거부… 거부의 시대에 만난 대학생-농민.” 오마이뉴스, 2025.01.11., <https://omn.kr/2btwn> 2025년 1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을 그리는 청년 대학생 사진집회: 농민과 대학생이 함께 외치는 농민생존권이 보장받는 세상' 보도기사 발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몇몇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며 크게 반발하였다.²³⁾ 쌀이 초과 생산이 되었을 때는 국가가 수매를 해야 하는데 양파는 왜 방치하냐는 발언, 형평성과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발언이 이어진다. 심지어는 “도시 근로자들은 왜 일해야 됩니까? 자기의 임금은 시장에 맡겨져서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는데, 왜 농민은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까?”²⁴⁾와 같은 도발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아이러니한 점은 농민들 또한 당연하게도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 소득 또한 최저시급의 선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작물의 가격이 1년의 수입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작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해 제대로 수확을 한 농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고된 육체노동을 해야만 하는데도, 폭염이나 폭우 한 번에 한 해의 수확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하루아침의 천재지변으로 손해만 잔뜩 안고 그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일말의 이해조차 없는 정부에 의해 선한 도시민과 악한 농민 갈라치기의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결국 양곡관리법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한 달 뒤,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양곡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짤막한 입장이 표명되었다. 헌법을 무기로 휘두르며 오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순간이었다.

주목할 것은 쌀을 시장재로 바꾸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늘 그러하듯 이분법의 언어로 선량한 국민과 구분되는 ‘적’을 설정하였다.²⁵⁾ 장애인, 외국인, 여성, 노조 등 편을 갈라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약자를 배척해 온 역사는 농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그늘을 드리웠다. 현 정부에서 공정과 자유에 반하는 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쌀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처럼 쌀은 양파 농가, 도시 근로자, 시장경제의 적이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을 갈라칠 수 있는 손쉬운 무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고령자인 농민층에서는 온라인을 포함한 각계의 공론장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스피커’가 거의 없다. 게다가 쌀 농가 상당수는 호남 지역에 있다. 현 정부의 갈라치기 혐오주의 정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화물차-건설 노동자에 이어

23)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발언. “어떤 경우에도 모든 남은 쌀을 완전 격리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고 가는 것은 지금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발언. “쌀에 대해서는 초과 생산이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양파는 왜 초과 생산 났을 때 가격 떨어져도 방치해두느냐,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2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발언.
 25)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비상계엄 규탄 대자보 참고. 2024.12.05.

현 정부가 때릴 만만한 적이 바로 농민”²⁶⁾이라고 할 법하다.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의 저자 김태호 교수는 이번 양곡관리법 논란을 바라보며, 과거 한국인에게 ‘마음의 빛’과 같은 존재였던 농촌과 농민에 대하여, 최근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라는 모멸적 시선이 많아지는 것에 유감을 표하였다. 또한 여성, 쿨이, 이주민에 이어 농민 또는 시골 사람도 혐오 정서의 대상이 되었다며 사람들의 고민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오늘날 쌀 중심으로 고착화된 농업 생산구조는 오랫동안 이어진 정치적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농업 주체인 농민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식량부족 문제를 타개하고자 ‘쌀 지급률 100%’를 목표로 쌀 재배를 적극 지원하였고, 통일벼 보급을 위해 높은 가격에 쌀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쌀 한 톨이라도 개방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김영삼 대통령 시대를 지나며, 농민은 ‘쌀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신뢰하게 되었다. 동시에 양파 파동이나 고구마 파동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쌀만큼 가격 폭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다. 1990년 시작된 농산물 개방에서 쌀만은 제외한 ‘쌀 예외주의’가 농정을 지배하였고, 기상이변이나 과잉 생산 등 농작물 가격파동이 일 때마다 피해를 본 농가들은 쌀농사로 속속들이 전환하였다. 여타 농작물을 재배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쌀농사 외에 열린 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추곡 수매, 직불금, 휴경 보상 등 쌀 생산에 편중된 정책 지원과 보조금이 이어지며 농민은 쌀 재배에 의존해야만 하였다.

오랫동안 정치재로서 예외주의의 대상이 되었던 쌀은 결국 시장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었다. 1995년 20kg에 30,143원이었던 쌀은 2022년에도 46,869원이었으며, 2024년 말에는 오히려 조금 감소한 45,675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쌀 가격이 동결되다시피 유지된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단순추산하였을 때에도 1995년 30,143원의 가치는 오늘날 6만 원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처음부터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면, 양곡관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높게 쌀값이 책정되었을 것이다.

쌀 재배면적 역시 꾸준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훨씬 더 많은 농

26) 이오성.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견어쳤다.” 시사IN, 2023.04.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6>.

가가 쌀농사로 전환하면서, 쌀농사 의존도가 심해지고 과잉 생산이 이어질 거라는 현 정부 및 여당의 예측과는 달리 쌀 재배면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2년만 해도 105만 헥타르였던 쌀 재배면적은 현재 70여 헥타르에 불과하다. 쌀 중심의 생산구조라 할지라도, 결국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농민 인구가 줄게 되면서 절대적인 쌀 생산량도 하강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정말 더 많은 농민이 쌀농사를 짓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농가 인구가 늘거나 농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척이나 선부르다. 2023년 통계청은 2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연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귀농해볼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소득' 자체는 암울한 수준이다. 통계 자료 속 연 5천만 원을 넘긴 농가소득은 농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 외에도 '농업 외 소득'과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 중 식당이나 도소매업 등 다른 부가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은 '농업 외 소득'이 39%, 국가 보조금과 정부의 노령연금, 직불금, 자녀의 용돈 등으로 이루어진 '이전소득'이 33%에 달하는 수치이다. 농업소득 자체만으로는 전체 소득에 21%에 불과하며 한 해 평균 천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인 것이다. 주목해 볼 점은 하나 더 있다. 위에 서술한 평균 소득이 농민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농민이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의 한 해 소득이라는 것이다. 즉 2인 이상 가구일 경우의 농업 소득이 연평균 천만 원에 불과하다.

농촌의 4인 가구를 상상해 보자. 5060 세대의 부모님은 농민으로서 적당한 규모의 오이 농사를 짓는다. 이들은 새벽에 밭으로 나가 밭일을 하다가, 태양 빛이 뜨거워질 무렵에는 작은 백반집의 문을 열고 점심 장사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농기계를 손보고 밭을 보수하고, 다음 주 장맛비에 맞춰 사용할 비료 사오십 포대를 옮긴다. 서른을 바라보는 이들의 두 자녀는 결혼하지 않고, 가구원으로 남아있다. 첫째는 차로 40분 거리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둘째는 근처 노인복지관 행정팀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모든 소득을 합쳤을 때, 농가의 한 해 평균 소득이 책정된다. 작년 대한민국의 1인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농가의 살림살이는 마냥 넉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음식과 숙박, 도소매 서비스 등에서 농업 외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봄겨울 등 농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농한기 등이 있고, 기상이변이나 농산물 가격 폭락이 잦아지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현실이다. 농민들은 최저시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시간 및 강도 대

비 낮은 수입만을 기대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농촌 지자체에서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에 수백 장의 지원서가 날아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농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 손으로 일구기 어려울 만큼 큰 농지가 필요하다. 상품성 있는 작물을 길러내기가 어려울뿐더러, 가뭄이나 장마가 길어질수록 한 분기의 농사를 '엎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농작물을 납품처에 출하할 수 있을 정도의 농가에서는 몇천 평 내지는 몇 헥타르 이상의 양질의 농지가 필요하며,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 없이는 수확하기 어려울 정도의 농지여야 그나마 수입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경지 규모가 3헥타르 이상인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7천만 원 정도인 반면, 0.5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소득은 4천만 원 언저리에 그쳤다. 경영 규모가 크고 농사를 전업으로 해야만 일정량 이상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소득의 불안정성 또한 늘어난다는 한계도 있다.

충남 서산에서 3헥타르 이상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농민은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 '고정된 수입'이라는 것은 없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생계가 유지된다"²⁷⁾고 설명하였다. 농작물 가격이 좋다고 하여 무조건 수입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결국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에 출하할 만한 농작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산지에서 출하가 시작되면 농작물의 가격이 무조건 내려가는데, 인건비와 비료값, 농약값 등 부자재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도매가격으로 팔지만, 각종 재료비는 소매가격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 속에서 점점 손해를 입는 상황이다.

'농사지어도 본전은커녕 손해만 본다'는 농민들의 말처럼, 오랫동안 악화되던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농업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가격 등락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²⁸⁾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이다. 2020년을 기준인 100으로 설정하고, 교역조건지수를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으로 계산하였을 때, 농가의 교역조건지수는 90 정도에 불과하다. 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일 때 채산성이 좋아진 것, 100보다 낮으면 채산성이

27) 이수연. "'연소득 5천만 원'이라는데 나도 농사나?"...사실은." KBS, 2024.05.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5028>.
 28) 손익을 따져보았을 때, 이익이 남을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사업을 할 때 좋은 채산성이 있어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내빠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올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올랐지만, 농가가 사서 쓰는 구입가격지수가 더 많이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다.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떠한 일을 ‘업(業)’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그 일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식당, 마트, 건축, 중장비 등을 전전하며 무엇이 본업이고 무엇이 부업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농가의 20%를 차지하는 1인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천만 원 정도에 그친다. 국가지원금, 직불금 등 이전소득과 기타 소득을 제외하였을 때, 단순 농업소득은 48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번 연평균 농가소득 통계는 1인 농가 소득이 전부 제외된 수치인 만큼, 농가소득 연 5천만 원의 실체는 한없이 나약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농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농업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장 하루 세 끼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다 잘 먹고 잘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먹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양파 가격 폭락도 해결하러던 국회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가로채는 유통업체들의 횡포에는 침묵한다. 우리나라는 농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의 가격이 서울 가락시장 속 도매법인의 경매에서 결정된다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원양어업, 철강, 건설사 모기업의 거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업체를 거치며 높은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더해진다. 그러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산물에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의 요청은 결국 또 다른 농민을 공격하고, 농민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우는 수단으로써 왜곡당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농민 혐오’를 강하게 비추는 시대적 징후이다. 취약한 농민에게 갈라치기가 무기처럼 휘둘러지고 있다.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농민이 기본비용을 마련하면 지자체 등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구입한 트랙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사용된 트랙터 지원 비용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²⁹⁾ 남태령 시위 이틀 뒤에 전농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관련 출석요구를 익일 특급으로 보낸 경찰 등 남태령 이후에도 농민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농촌과 농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양곡관리법 기사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오랫동안 농민이 겪어왔던 억울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늘어났다.

29)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해당 국회의원이 속한 지역구는 대부분 산림 및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땅을 단으며.

“역사는 지난 이들을 ‘남태령 대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저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힘오와 차별 속에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노인, 도시 빈민, 농민이 만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별도 세대도 지향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연대를 넘은 ‘대동의 남태령’을 열어냈기 때문입니다.*³⁰⁾

농민들의 세상은 남태령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의 현대적 의제, 신자유주의 하의 경제와 효율의 논리에서 고립되고 스피커를 잃은 채 공격당하였던 농민들은 새로운 연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남태령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농민 단체는 가부장 질서에 익숙하다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성인지 감수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동시에 남태령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여전히 농민과 농촌 밖 사람들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타인을 감각하고 소통하는 방식,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방식들이 종종 생경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경제 구조는 자극히 인위적이고 개인적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실내 공간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규칙에 맞춰 일하고, 일해서 성과를 낸 만큼 그 보상을 가져간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서 나의 성과를 만들고, 그 보상으로 나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개인의 어려움은 종종 개인의 게으름, 능력 부족으로 여겨지며, 모두가 동등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착각되곤 한다. 반면에 농촌 속 농민들의 삶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연속이다. 이른 서리에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죽어버리고, 온난한 겨울 탓에 병충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개개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주변에 손길을 나누며 어려운 계절을 견딘다. 풍작과 흉작은 한낱 개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며,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땅이 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30) 전봉준투쟁단 총대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 2024년 12월 22일 성명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도시민들과 ‘내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농민들은 서로의 삶의 궤를 낮설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태령의 기억은 결국,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꿈꾸게 하였다. “대동의 남태령”이라고 칭한 하 전총 의장의 성명처럼 농촌과 도시가 서로 연결된 세계로서 대동³¹⁾하게 된다면, 그제야 우리는 같은 땅 위를 밟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땅에서 난 것들을 먹고, 땅 위에서 살아가며, 결국 땅으로 돌아갈 한 생애 동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땅과 멀어지고, 땅을 잊어가는 오늘의 우리는 결국 얼마나 땅을 그리워하게 될까? 이 땅 위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언제든 서로 연결되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땅 위에 나를 일으켜 세웠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글을 남기며.

31) 대동: 1) 큰 세력이 합동함. 2)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게 됨. 3) 조금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같음.

참고자료

남태령 자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긴급호소문] 시민 여러분! 2024년의 우금치 남태령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4xoNVMb35/>.

김성욱.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눈물… 이런 적은 처음” 오마이뉴스, 2024.12.23., <https://omn.kr/2bl4d>.

이슬기, “남태령 대첩 참가자 15명이 그날 밤 겪은 ‘희한한 일’ 오마이뉴스, 2024.12.27., <https://omn.kr/2bmge>.

농촌 농민 자료

이오성,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걷어찼다” 시사IN, 2023.04.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6>.

이수연, “연소득 5천만 원이라는데 나도 농사나?”…사실은” KBS, 2024.05.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5028>.

한국농정. 2016년 ‘농민운동 현장을 찾아서 -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투쟁’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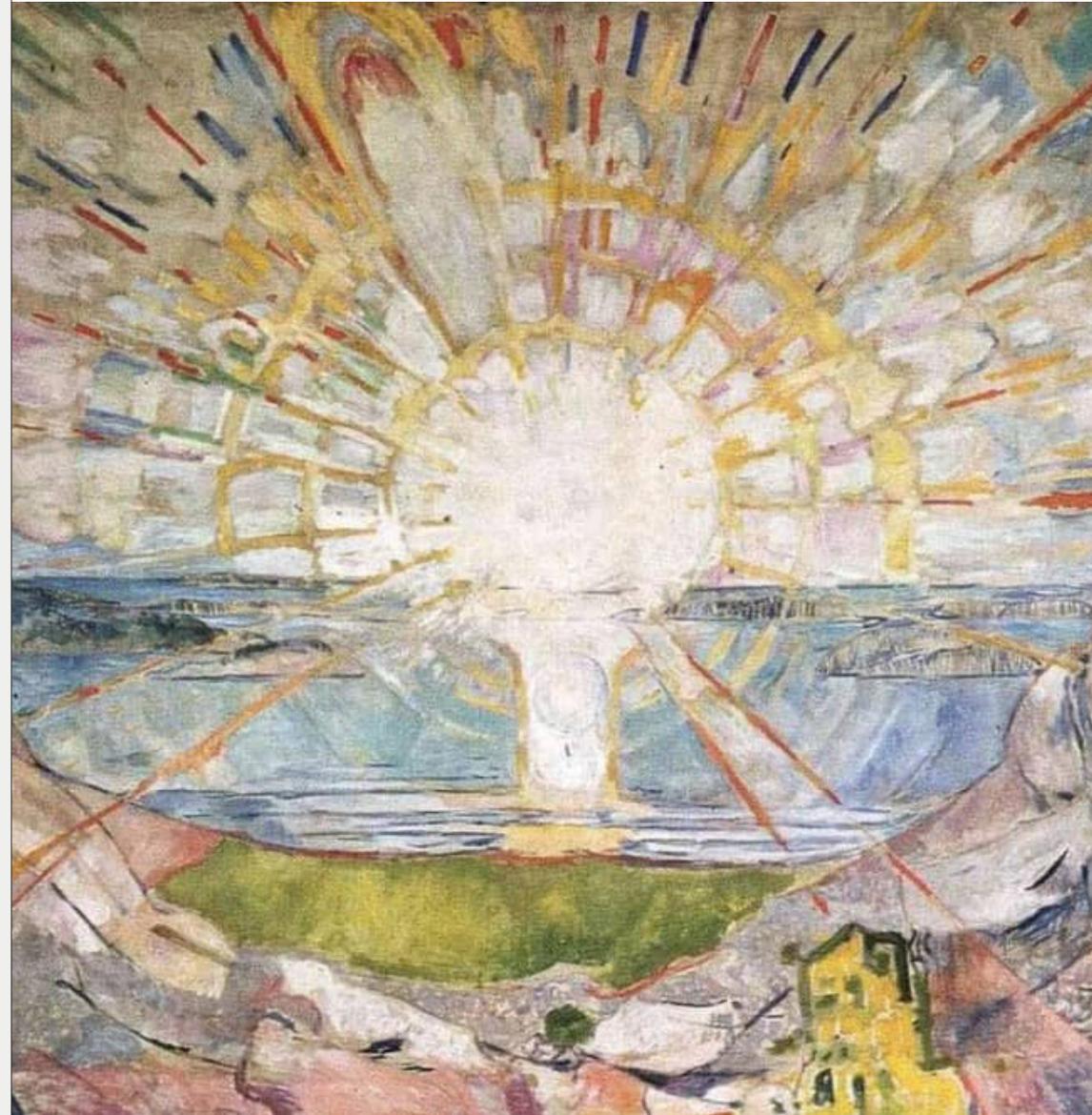
첨부 이미지 출처 (본문 내 첨부 순서와 같음)

장윤, “남태령 경찰차벽 철수… 트랙터 시위대 “대통령 관저로 행진”” 조선일보, 2024.12.23.,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22/SVFFAZSCMF AVZB77XTH7QJBKG4/.

김성욱.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눈물...이런 적은 처음” 오마이뉴스, 2024.12.23., <https://omn.kr/2bl4d> 기사 내 권오성 사진.

이수연, 앞의 기사(KBS)

문우의 눈



흔들리는 존재의 기록 :

수습편집위원 필자(筆者)



불안의 확장과 수렴

“나 너무 불안해”

지난여름, 오스트리아의 한 호수마을을 여행했다. 첼암제(Zell am See)라는 지명을 가진, 관광객도 많이 없는 아주 작은 그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호수를 닮아 고요하고 평안했다. 많은 수도권의 대학생들이 그렇듯 바쁜 도시 속에서 살다 보면 ‘고요’라는 단어와 마주 치기가 참 어렵다. 매연을 뿜는 시끄러운 자동차들,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 번쩍거리는 대학가의 네온사인. 그 혼돈 속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첼암제 (Zell am See) 호수의 모습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불안을 ‘세계 내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근본적 한계, 즉 죽음을 자각할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는 인간을 단지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인간은 첫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불안을 짊어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평생 그와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삶은 그 불안을 끊임없이 억누르며 무심히 지나간다. 도시의 빠른 리듬은 스스로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조차 인지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는 어느 순간 불안을 망각한 채 일상을 이어간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을 살아가던 익숙한 세계와 동떨어진 한 장소에서 그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아, 나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철없던 십 대를 지나 사회에 나선 후, 내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던져진 존재'이며,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에 막연하게 슬퍼했다. 그 막연한 서글픔은 새로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 존재해 왔던 불안이다. 다만 그것을 낫선 나라의 호수 앞에서야 발견했을 뿐이다. 내가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 본질을 규명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뤄보기 위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펼쳤다.

불안은 자각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축복받은 무지에서 벗어난 인간을 조롱하듯 일상에서도 뚝뚝 나타난다. 발 디딘 도시의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낀다. 그렇게 불안은 아주 서서히, 안에서 바깥으로 확장한다. 나를 흔들던 작은 두려움은 이제 세계 전체를 낫설고 불안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작은 심장에서 시작된 불안정한 두근거림이 주변으로 번져가며 점차 몸집을 키운다. 모호하고 흐릿했던 형체 없는 감정이 어느새 모양을 갖춰 나타난다. 그것은 빛이 번지는 가로등으로, 벽에 둘러싸인 세 평자리 방으로, 때로는 눈앞의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내면에서 시작된 불안은 외부로 확장되며 한 인간의 세계를 서서히 물들인다. 이 감정의 확장성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불안은 마치 절벽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발걸음과도 같다. 결말이 번히 보이는 길 위에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총동. 절벽 끝에 다다르기 전, 발끝에 묻어 있는 망설임의 흔적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답하려는 생각은 어느 순간 절벽의 반대쪽을 향해 흐른다.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말 앞에서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태생적인 불안을 마주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인 동시에 삶인 셈이다. 불안은 두 세계의 연결 고리와의 같다.

삶은 죽음보다도 잔인하다. 죽음은 이성이 깨어있는 채로 경험할 수도 없고, 이미 겪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으니 한계 너머의 것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미지의 무언가는 대개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해방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상상할 수 없기에, 그것은 오히려 자유롭다. 그러나 삶은 다르다. 삶은 너무나도 실재적이며, 숨이 붙어 있는 한 매 순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든 경험에 기반한 귀납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추론 과정은 종종 목이 울거림에 걸린 듯한 답답함을 불러온다. 죽음이라는 도망칠 수 없는 확정적인 미래. 지나온 삶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손바닥 위의 도착점. 다시 말해, 삶에 대해 고찰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속을 붙여 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내 안에 은밀히 자리 잡아 존재를 흔들어 놓는다. 마치 본질을 망각한 인간들에게 남겨진 퇴화한 꼬리뼈처럼. 불안은 내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은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파헤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불안은 우리를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동시에, 존재의 깊이를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결국,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물두 해 전에 나와 함께 태어난 한 우주, 그리고 그것이 예정한 마지막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불가분의 실체가 바로 내 존재의 근원이자 불안의 원천인 셈이다.

“이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특이하게도, 불안은 확장하는 동시에 수렴한다. 주변의 아주 사소한 일상적 사건부터 사회 구조와 세계적 흐름에 이르기까지,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며 불안을 주입한다. 아침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경제 위기, 정치적 갈등,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까지도 심리적 평정에 도통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이데거의 주장대로, 인간은 '던져진 존재'로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세계와의 단절과 괴리를 느끼는 순간 그것은 불안을 낳는다. 불안은 외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갈등을 두려워 않고 불의에 목소리를 낼 때마다, 사회의 부조리함에 질려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마다, 세계는 점점 낫설어지고 나는 내면으로 더 깊이 침잠한다.

외부 세계의 안정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롯이 내 불안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내면의 것임을 깨닫는다. 외부 요소로 인한 불안의 전이가 사실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를 '자기로의 소환'이라고 부른다. 내면으로 수렴하는 불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존재의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다. 수렴하는 불안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죽음과 삶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언제 세계를 낯설게 느껴왔을까. 강아지를 싫어하는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들으라는 듯한 욕설이 날아올 때,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나 홀로 어울리지 못하는 기분이 들 때, 혹은 친한 친구와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대화가 어딘가 어긋나는 듯한 어색함을 느낄 때. 매일 같이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불안은 활성화되고, 그것은 내면 깊숙이 스며든다.

비록 시간이 지나 그 불안이 결국은 내면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해도, 그 감정을 자각하게 만드는 트리거는 외부에 존재한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세계 속 존재'다. 외부 세계에서 비롯된 사소한 균열이 우리의 내면으로 흘러 들어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시작되어 내부로 수렴하는 과정을 나는 '불안의 수렴'이라 부르고 싶다.

예민한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일상이 아니더라도, 요즘 사회는 정말로 트리거 덩어리이다. 작년 12월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는 모두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무력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선언 앞에서 그 누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어진 뉴스들 또한 불안을 가중하면 했지 절대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의 자질에 대한 의심, 국가 시스템의 부재, 양분화되어 싸워대는 정치권과 시민들. 매일 같이 이어지는 정치 사회 뉴스는 세계를 불안정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정치 리스크로부터 시작된 환율 급등과 경제 불황 등은 피부로 체감되는 또 다른 위협이다. 미우나 고우나 평생을 나고 자란 내 나라가 이렇게 부서질까 두려웠다.

이 거대한 불안 요소 앞에 무력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나와는 다른 사상을 가진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대학생이지만 나름대로 두려움에 맞서 노력했다. 글썄,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행동은 세계로부터 나를 더더욱 고립시켰고 내면으로 파고들게 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행동하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갈등 상황은 세계와 단절되었다는 감각을 심화시켰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직면한 위험은 점점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고, 이는 곧 확산하는 위험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험은 사회의 문제이지만 해결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불안이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내가 느꼈던 불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를 둘러싼 세계에서 발생한 위험을 해결하려 들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수렴시켰다. 그리고 내부로 전이된 불안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불안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앞선 본질 탐구 과정을 반복한다.

불안한 매일을 보내는 모두에게

나의 내부에서 시작된 미묘한 떨림이 외부 세계를 통해 확산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나는 불안이라는 감정의 순환 속에 갇혀 있음을 느낀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나는 왜 이 사라지지 않는 감각을 자각하게 되었는지, 왜 남들보다 예민한지를 끊임없이 자책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평온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불안은 결국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임을 수용하게 된다.

불안은 분명 나를 처절하게 사유하게 하며 삶을 버겁게 만드는 무게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죽음을 자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어차피 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란 불가능하고, 어쩌면 인간다움은 바로 그 불안 속에서 빛나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심 없이 머리를 굴리며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무게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움직일 때도 필요하다. 어려운 일인 거 나도 알고 있다.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끊임없이 드라마를 찾아보고 열두 시간씩 자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멍청해지는 기분이다. 그래도 괜찮다. 모든 본질 탐구자에게는 잠시 치열함을 멈추고 둔감해지는 순간이 필요하다. 완벽한 해답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두고, 뇌가 과열되어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쉬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을 완벽히 정복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과 함께 흔들리면서도 끝내 걸어가는 것이다. 도중에 지쳐 마음속 불안을 외면해 버리고 홀로 서서 걸어

갈 수도 있다. 끝까지 불안을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가 죽음이라는 이 감정의 원인이자 나의 한계를 마주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멋진 일을 하는 모두가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때로는 작은 유머와 온기를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올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옮김. 새물결, 2014.

“세상은 너를 잊었다 해도 한 번도 너를 지운 적 없어”¹⁾

편집위원 지구인

- * 해당 글은 가정폭력, 퀴어 혐오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혐오 발언 또한 등장합니다.
- * 뮤지컬 '이티너티'의 스포일러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 글의 모든 제목과 소제목은 뮤지컬 이티너티의 대사 혹은 가사에서 차용하였다.

“이건 시작이 시작된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투명인간이라면?'이라는 상상을 해보는 듯하다.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글을 인터넷에서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몰래 놀이기구를 타겠다는 답변부터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겠다는 답변까지, 다양하고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나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이 질문은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투명인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내가 이 세상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모두에게서 지워진다고? 젠더퀴어²⁾인 나에게 절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내가 싫어' 조차 아닌, '너는 존재하지 않아', '너는 뭐야?' 라는 말들. 존재의 부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혐오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순간의 외로움, 고독,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순간들을 무수하게 마주치며,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두려워했고, 간절하게 '존재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어했다.

그런 기억이 처음으로 생긴 지 십몇 년은 더 흐르고 나서, 나는 생뚱맞게도, 그 아픈 기억들에 대한 위로를 작년 가을 해화의 작은 무대 위에서 마주했다.

“아빠 난 그냥 아름답고 싶었던 거야”, “내가 누굴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

작년 10월, 나는 글램록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같이 보러 가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말에 내 생애 처음으로 내 돈을 내고 소극장에서 뮤지컬을 봤다.³⁾ 락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그런 소재를

- 2) 젠더퀴어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나뉘는 성별 이분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를 뜻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젠더퀴어는 지정성별(출생 시에 육안으로 해석된 성별)과 자신의 정체성이 불화하는,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속한다.
- 3) 내가 대학교에 오기 전 살았던 곳에서는 소극장은 고사하고, 큰 규모의 극장을 가려고 해도 한참을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했다. 그렇기에 당연히 '서울에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많이 하는 대학로라는 곳이 있다더라'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었지, 내가 직접 그런 작은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대학로의 공연들을 보면서, 소위 대학로 연극/뮤지컬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수도권/비장애인/고소득층/고학력자/신경전형인 중심적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이 글의 주제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연극/뮤지컬 문화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지고 어떻게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학로 공연의 실제(?)도 궁금했다. 그때는 정말 '이 뮤지컬의 소재는 글램록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가서, 이외의 정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그 뮤지컬, '이터니티'는 이후 내 몇 개월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터니티에는 '블루닷', '카이퍼', '머머' 총 세 캐릭터가 등장한다. 블루닷은 가발, 화장, 반짝이는 의상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화되는 '글램록' 장르를 대표하는 70년 전의 슈퍼스타이다. 실제 우리 세상에서 1970년대에 활동했던 글램록 장르의 스타, 데이비드 보위의 이미지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화려한 인기도 잠시, 시간이 지나며 블루닷과 글램록은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고 잊혀져간다. 반면 카이퍼는 21세기에 사는 인물이다. 카이퍼는 70년 전의 락스타인 블루닷을 동경하며, 자신 역시 가수가 되어 이미 잊힌 장르인 글램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제 아무도 글램록을 듣지 않는다는 카이퍼의 꿈을 무시한다.

즉, 이 극에는 '70년 전'과 '지금'이라는 두 개의 시간대가 교차한다. 각자의 시간대에서 블루닷과 카이퍼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블루닷은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기억할 카이퍼 같은 존재들을 떠올리며, 카이퍼는 글램록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블루닷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위로의 메시지를 상기하며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극 내내 블루닷과 카이퍼의 이 모든 행보를 줄곧 지켜보는 캐릭터가 시간이자 공간 그 자체인, 무어라 규정짓기 어려운 존재인 머머이다. 머머는 블루닷의 매니저, 유명 토크쇼 진행자, 카이퍼가 찾은 글램록 클럽의 사장 등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블루닷과 카이퍼를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바라본다.



사진사 마카오시 스키타가 촬영한 데이비드 보위의 모습

위는 최대한 건조하게 정리한 이터니티의 내용이고, 내가 이터니티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다른 아닌 내가 바라본 '귀여한' 캐릭터를 때문이었다. '남자로 태어나' 화장을 하고 '여성스럽게' 꾸민다는



뮤지컬 이터니티 속 블루닷의 모습 (사진: 배우 김준영)

는 이유로 가족의 학대를 받고, 스타가 되어서도 너는 "남자"인데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중의 눈초리를 받는, 아름다운 락스타 '블루닷'. 그런 블루닷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카이퍼'.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극의 진행상, 블루닷과 블루닷이 사랑하는 글램룩은 '사라지고' 잊히는' 존재이다. 블루닷은 가발을 벗으라고, 화장을 지우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너의 정체성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당한다.

나는, 나 자신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젠더퀴어 이기에 꼭 나 같은 캐릭터를 보면 마음이 쓰인다. 그들의

서사에 공감하기도 쉽다. 내 눈에는 블루닷이, 자신의 '남성 되지 못함'에 평생을 아파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은 퀴어 인물로 보였다. 즉 세상이 강요하는 성별/성별 표현/성적 지향의 정상성에 부합하지 못하여 언제나 '정상'이 되기를 강요받은 나의 퀴어 동지들 같았다. 그에게 화장과 가발, 글램룩을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에 함께 슬퍼했고, 혹시 연인이 남자라는 질문에 같이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대 위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렇기에, 극 후반에서 자신을 기억해 줄 카이퍼의 존재를 떠올리고 그가 포기하려던 화장과 가발을 다시 쓴 뒤 무대에 서는 블루닷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모든 죄악들 / 금지된 신의 영역을 침범해 / 오 나는 모든 금기들 / 무덤에 잠든 사체에
키스해 / 키스해 신들과 / 키스해 천사와 / 키스해 소년과 / 키스해 소녀와”
넘버⁴⁾ '이터니티 reprise' 가사 중

4)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를 '넘버'라고 부르더라. 나는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아 이 명칭이 꽤나 어색했기에 각주를 단다.

이 세상의 시선에서 죄지는 존재, 금기를 저지르는 존재, 신과 천사를 '감히' 탐하는 존재, 그리고 소년도 소녀도 사랑할 수 있는 귀여한 존재. 그가 좌절을 딛고 일어나 자신이 바로 그런 무엄한 존재라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될 때마다 이터니티를 다시 보러 갔다. 그 극장에 있노라면 지구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정상성을 강요당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존재들과 내가 진실로 이 지구에 존재함을 인정받고 허락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 주변인들에게도 이 극에서 내가 읽어낸 귀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고, 그 덕분에 이터니티를 실제로 보고 온 몇은 나의 감상에 공감하면서 함께 블루닷을 사랑하게 되었다.

“혹시 조금 다른 취향인가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터니티의 노래를 듣고, 이터니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연대하는 팬들의 말을 찾아보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날들에 벼락이 내리쳤다. 이 극의 작가가,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질문 및 답변 기능을 이용하여 이터니티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던 중 '이 작품에 퀴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답을 작성하신 것이다.

- Q. 혹시 이터니티 작품 안에 퀴어에 대한 상징이 녹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관객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느끼면서 보고 있어서... 궁금했어요.
- A. 이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이 작품에 퀴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토크쇼2에서 나오는 그에 대한 것들은 블루닷의 걸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대중과 언론의 얕은 편견이라 생각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작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췌

“토크쇼2에서 나오는 그에 대한 것들”이란, '토크쇼'라는 넘버 중 블루닷이 바에서 남자와 껴안던 모습이 목격되었다며 "혹시 조금 다른 취향인가요?" 등의 말로 토크쇼 진행자에게 추궁당하는 장면을 뜻한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다음으로 내가 바로 한 생각은, 이상하게도, "이 소식을 퍼뜨리지 말아야겠다"였다. 그의 답을 보자마자, 이 말이 이터니티로 위로를 받은 나의

주변 소수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리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당장의 내 슬픔을 잠시 억눌러두고,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 척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굴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한 구석에는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연히, 나처럼 이터니티를 좋아하게 되어 계속해서 관련한 소식을 찾아보던 주변인들에게도 금세 이 답변 내용이 전해졌다. 주변인들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슬픔, 분노, 좌절 등. 그리고 나에게 이 소식을 보았냐고, 괜찮냐고 묻는 연락들이 쌓였다.

이터니티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 나와 내 주변인들만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른 이터니티의 팬들도 한동안 떠들썩한 반응을 보였다. X(트위터)의 반응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반응들의 종류를 나름대로 분류해 보았다.

★ 가장 많은 반응은 분노였다. (1) 대사와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퀴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퀴어한 서사, 퀴어한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는 뮤지컬임에도 '퀴어와 관련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일이 (슬프게도 놀랍지는 않으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퀴어들에게는 이런 '퀴어 지우기적' 전유와 차용이 익숙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되풀이되었다. 늘상 반복되는 "그래서 퀴어나"고 물으면 결국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화가 나는 지점이며 퀴어혐오라는 지적이었다. (2) 또한, 자신이 퀴어라고 당당히 밝혔던 글램록 슈퍼스타 보위의 여러 시각적 이미지를 참고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뮤지컬에 대한 이런 해석은 보위에게도 퀴어에게도 모욕적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3) 이외에도 퀴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발언은, (그 대상에 퀴어도 포함되는) 소외받고 잊히는 자에 대한 위로를 다루는 해당 곡의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짚는 경우도 있었다.

★ 위와는 조금 결이 다른 분노와 지적도 있었다. 작가가 곡의 해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반응들이다. 해당 상황이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이용한 문답의 상황이었고, 작가에게 질문을 보낸 관객도 "관객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느끼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기에 더욱 '전혀 없다'는 단언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작품에 대하여 관객의 특정한 해석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 이 소식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나 퀴어 당사자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이터니티에서 소수자에 대한 위로를 읽어내고 본인도 그에 힘을 얻었는데, 작가의 발

언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식의 발언이 여럿 있었다.

★ 이런 상황에 많은 이가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글도 꽤 있었다. 부정적 반응의 당사자가 퀴어 본인으로서 슬퍼했든지, 작가의 발언 기저에 퀴어 혐오가 깔려있다 판단하여 분노했든지,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터니티라는 작품에 대한 기억에 부정적 감정이 추가되는 것을 아쉬워했다. 작품에 대한 감상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이터니티로 자신이 받은 위로가 훼손되었다 느낀 이들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어떠한 이유로든 상처받았을 서로에 대하여 위로가 오고갔다. 이 과정에서 이터니티의 특정 공연 회차에서 배우가 즉흥적으로 받은, 퀴어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위로의 일환으로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다.⁵⁾

★ 작가의 해석은 그러하지만, 자신의 해석은 다르다고 자신 나름의 해석을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자신은 이터니티가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극이라 해석했다고 밝히거나, 소외된 자들을 향해 위로를 건네는 극이라고 보았기에 퀴어에게도 이 극의 위로가 유효하다는 반응들이었다.

★ 작가의 발화 의도를 좋은 식으로 추측하며 최대한 상황을 선해하는 글도 종종 있었다. 이런 글은 공통적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가십'에 시달리는 스타 블루닷의 모습이기에 블루닷이 무조건 퀴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요지였다. 글 작성자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뉘앙스인 경우도,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라며 추측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뉘앙스인 경우도, 둘 다인 경우도 모두 있었다. 이런 반응들의 경우 이 또한 혐오적이라는 반응을 받아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모든 이가 위의 반응 중 하나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며, 복합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아주 많았다. 나의 경우에도,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이 받았을 상처가 걱정되어 다른 사

5) 이터니티의 극중에는 블루닷과 머머(해당 장면에서 토크쇼의 진행자로 분한다)의 토크쇼 장면들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토크쇼인, 넘버 '라잇이어 토크쇼 (Instrument)'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에서는 사전에 질문함에 모집한 토크쇼 시청자의 질문 중 총 세 개를 블루닷이 답해주는 토크쇼 코너가 진행된다. 이 중 앞 두 질문은 이미 대본상으로 정해져 있는 질문이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실제로 뮤지컬 이터니티의 해당 회차 관람객들이 공연 시작 전 작성한 질문 중 하나를 추첨으로 뽑게 된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의 경우 블루닷 역을 맡은 배우는 이에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한다. 본문에서 말한 "퀴어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란, 해당 장면에서 블루닷 역의 배우가 "블루닷님, 팬덤도 괜찮나요?"라는 질문에 "boys, girls, others, 다 좋아요(남자든, 여자든, 그 이외이든, 다 좋아요)"라고 대답한 것을 말한다. 해당 발언은 이터니티 팬덤 내에서, 1975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데이비드 보위가 시상자로 나서며 말한 "Ladies, gentlemen, and others."를 차용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람들의 안부를 살피고 최대한 위로해주려 노력하였다.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게시물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분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나름의 해석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또 이 작품으로 받은 나의 위로를 잃지 않고 싶어서, 상처를 덜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나의 생각이 작가님의 의도를 좋게 보려는 방향으로도 흘러갔다. 그래서 팬덤 내의 이 모든 반응 하나하나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었기에, 이 상황이 더 마음이 아팠다.

“사라져 영원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나와 비슷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관된 부정적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실망을 겪은 적이 있는가? 내가 겪었던 것과 꼭 비슷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작가가 내가 생각하는 작품의 메시지에 배치된다 여겨지는 발언을 한 경우였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배우가 있는 매체의 경우 배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창작자 층 누군가가 작품의 메시지와는 관련이 없지만 혐오적인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작품 자체가 다시 돌아보니 혐오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아주 많다. 내가 떠올린 그런 예시들을 나열해 보겠다.

★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는 20세기 공포 문학, 장르 문학의 거장으로 불린다. 러브크래프트의 여러 유명 단편 중, 특히나 〈크툴루의 부름〉은 해당 단편을 기반으로 한 동명의 호러 롤플레잉 게임이 크게 흥행하여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는 극심한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성차별주의자였으며, 그의 작품에도 인종차별과 남성중심주의적 사고가 만연하다. 또한 그는 반유대주의자였으며, 우생학을 신봉하였다.

★ J. R. R. 톨킨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 많은 유명 소설을 집필한 작가이다. 그의 판타지 세계관 속 설정들은 이후 아주 많은 판타지 작품들의 기반이 되었기에, 현대 판타지 장르에 톨킨이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의 세계관 속에서 명석함, 예의바름, 아름다움 등 소위 '우월한' 특성을 가진 종족들은 서구권 1세계의 민족 및 백인이 연상되도록 묘사된 반면 어리석음, 무례함, 못생김 등 소위 '하등한' 특성을 가진 종족들은 여러 아시아 및 아시아권의 민족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즉, 서구권 1세계의 민족들을 '우월한' 것과 결부시키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을 '하등한' 것과 결부시킬 여지가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다.

★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2018년 트랜스여성⁶⁾을 “치마를 입은 남자”라고 칭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SNS 게시물에 ‘좋아요’ 반응을 표현하였고, 이는 실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앤 K. 롤링은 지속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게시물에 공감하거나, 그런 발언을 스스로 SNS에 업로드하는 등의 행보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영화 《해리포터》의 출연 배우들이 조앤 K. 롤링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트랜스젠더 혐오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나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예시 중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읽었다. 내가 그중에 특히나 좋아했던 캐릭터는 ‘통스’라는 인물이다. 그는 외모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 늘상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던 나는 통스의 능력을 매우 부러워했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며 내가 느끼는 내 몸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 나의 젠더퀴어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해리포터》도 어릴 때의 내가 나 자신과 연결 지어 독해한 책으로 재정의되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을 접하고 나니 작가는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크게 당황하고 놀랐다. 그 뒤로 나는 《해리포터》를 이전과 아주 동일한 감상으로만 읽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어쩌면 우리를 살아가게 해준 작품, 혹은 그 작품에 연관된 어떠한 사건이 나를 실망시킨 경험을 하곤 한다. 나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지점’과 ‘내가 받아들인 작품’을 분리하지는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가령 작가가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 그건 작가의 일이고 작품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식이다. 예를 들자면 위에서 말한 《해리포터》의 경우, 특히 영어권 팬덤에서, 트랜스젠더 팬들을 향해 《해리포터》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유효하고 작가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말라는 뉴앙스의 글들이 SNS상에 여러 번 공유되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실제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대처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취하면 내가 받아들인 작품은 작품의 창작자 등 작품과 관련된 인물, 작품이 쓰인 사회 등과 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고, 향유자는 ‘작품이 아닌’ 것에 위험받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문제가 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작품의 해석을 좋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6) 지정성별은 여성이 아니나,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을 만든 이가 괴물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서 콘스탄스 그레이디는 영화 <가위손>을 좋아하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는 어렸을 적 본 이 영화를 정말 사랑했지만, 후에 <가위손>의 주연 배우인 조니 뎀의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보고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힌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와 '작품' 분리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혐오감의 감정은 작품에 대한 애정과 함께 여전히 공존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전략으로 조니 뎀의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꼭 <가위손>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창작자 등 관련인이 범죄나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향유자들 사이에서 작품을 소비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식의 논의들이 꾸준히 등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그에 대한 비판 및 실존하는 피해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덧붙여, 폭력 사건의 가해자이거나 혐오적인 관점을 가진 창작자의 작품을 구매 및 향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당 가해 사실이나 혐오에 대한 응호로 일하기도 한다. 이러나저러나, 실질적으로 작품을 사회와 유리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널리 공유되는 '문제와 작품의 분리' 방안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게 아닐뿐더러,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기도 힘들다.

다시 그레이디의 글로 돌아가서, 그가 분리 대책 대신 택할 수 있는 방안들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자.

★ 저자와 창작자에게 "해석상의 힘(그들 작품에 대한 관객의 해석 방식을 좌지우지하는 힘)과 제도상의 힘(뒤따르는 응징 없이 남을 부당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론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므로 "세상의 모든 예술작품에 골고루 비판적인 관심을 쏟을 수는 없"고 "비평가가 작품을 약간의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

★ 쟁점을 "이 작가는 괴물인가?"가 아닌 "이 작품은 독자인 나에게 작가의 괴물 같은 모습에 연루하기를 요구하는가?"로 두는 방법

★ 특히 작품으로 수익을 얻는 창작진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작품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들이 글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그레이디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만능인 정답은 없"(15p)다고. 또한 자신의 글에서 밝힌 여러 이론들을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여러 가지 발상을 듣고 나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는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예술에 대해서요."(16p)라고도 서술한다. 그레이디의 주장은 나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며 실질적으로 유용하기도 하다. 만능인 정답을 찾을 수는 없고,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 해결 방식을 상기하며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작품에 관련된 일로 예상치 못한 실망을 겪는 일에 대한 내 생각의 흐름을 적어 보려 한다. 먼저 떠오른 대책은,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왜 화나고 슬프고 실망했는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낱말이 정리해서 의견을 공유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었다. 즉 비판하는 글쓰기이다. 실망스러운 일을 만든 장본인이 시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런 반성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방법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취할 경우, 작품의 향유자도, 창작자 등 관련된 사람도, 자신이 몰랐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활발해지면 추후에는 작품 창작의 과정에서, 그리고 창작자와 관련인에게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경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운이 좋다면(?) 창작자 등 관련인에게 정말로 해당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시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분명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대책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것만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터니티가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돌아해보았다.

먼저 나는 앞서 정리했던 팬덤의 반응에 큰 힘을 얻었다. 솔직히 나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모두가 작가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어 극이 귀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에 동조하는 방향의 여론이 조성되면 어떡할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터니티 팬이 작가의 해당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팬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이터니티를 좋은 마음으로 보지 못했을 것 같다. 특히나, 나와 비슷하게 이터니티에서 귀여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며 이터니티를 사랑한 이들이 나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감동적이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각자의 소중한 가치와 아픈 부분을 나눌 수 있었음에 행복했다.

또 몇 배우의 무대인사⁷⁾ 속 발언도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터니티라는 극에서 좋은 머머가 나올 때도 있고 나쁜 머머가 나올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굽히지 마시고 꼭 더 단단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자기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수많은 외계인 여러분들, 본인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그 또한 똑같은 지구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지구인으로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나는 내가 생각한 이터니티의 메시지, 즉 '이터니티는 소수자를 향한 위로와 인정을 담고 있다'는 해석에 배우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점이 큰 위안이 되었다.

즉 정리하자면, 나의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첫째로 같은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공감과 위로였고, 창작과 관련된 인물들이 보인 내게 소중한 가치를 응원해주는 행보였다.

“내가 널 기억해”

그래서 이 글을, 위에서 그레이디가 언급하였듯 자신이 아끼는 작품에 관련된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는 일에 대처하는 방식이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 내기'도 아주 유효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끝맺고 싶다. 모두가 자신이 사랑하던 메시지와 가치가 부정당해도 자기 스스로 극복해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정말로, 오로지 '혼자서'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기는 할까? 우리 모두는 타인이 가득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이 지구에서 당신이 있을 자리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누구도 이 지구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지구인으로서 남을 수 있게, 우리 모두

7) 무대인사란 뮤지컬, 연극 공연 등에서는 무대가 끝난 뒤 배우가 관객에게 간략히 인사 및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뜻한다.

자신 곁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로를 건네주었으면 좋겠다.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며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당신에게 공감하고 연대한다고 말해주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이러한 위로가 활발해지는 창작의 세계를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려 노력한다면, 돌고 돌아 자신이 상처를 받을 때에도 따스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문제 상황 그 자체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 혹은 자주, 따스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장은 모두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 팬덤도, 창작과 제작에 달아 있는 자도. 온갖 힘오와 폭력의 목소리가 드높아도 내가 널 기억한다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누군가는 슬픔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 모두에게 요청한다. 당신의 보듬음을 기꺼이 나누어달라고. 당신이 항유자의 위치이든, 창작자의 위치이든. 나도 내가 찾는 결론을 따라 아픔을 겪은, 겪을 당신을 위해, 여기서 소리치고 있겠다. 내가 널 기억하노라고.

참고문헌

Masayoshi Sukita. (1973) David Bowie[Photography].

@rndworks. X(Twitter), 2024.10.17. <https://x.com/rndworks/status/1846848260444770557?t=Zq3TbJj2RYhJW3Wb2kt0cg&s=32>.

콘스탄스 그레이디. 김혜연 옮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을 만든 이가 괴물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1.03.31. <https://philo-electro-ray.org/>.(전기가오리 자료, 기타 텍스트)

활동정리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대학참가단 활동 아카이빙

정리정돈 자구인

문우편집위원회는 2024년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대학참가단으로 함께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1)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및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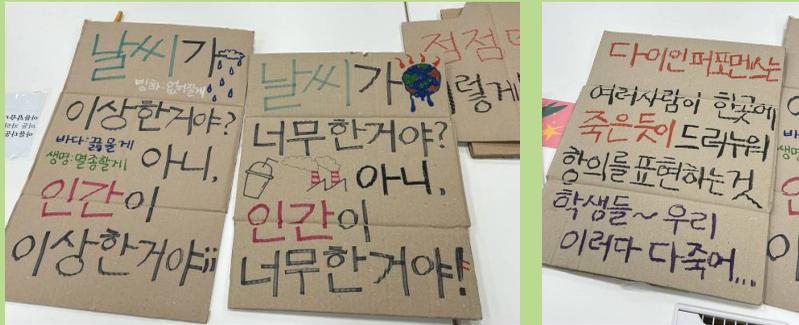
다이인 퍼포먼스 및 행사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미지



다이인 퍼포먼스 및 행사의 공식 포스터

907 기후정의행진 당일 행사에 앞서, 2024년 9월 4일 연세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다이인 퍼포먼스 및 발언을 진행하였다. 907 기후정의행진 대학참가단 내부에서,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가 각 대학에서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및 연세대학교가 다이인 퍼포먼스를 포함한 각 대학 행사를 기획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문우편집위원회와 연세대학교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 및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가 공동으로 해당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였다.

행사에서는 먼저 이 행사의 취지가 기후위기를 알리고 907 기후정의행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임을 알리는 발언들이 진행되었다. 이후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다이인(Die-In) 퍼포먼스란, 여럿이 한 장소에 죽은 듯 드러눕거나 자세를 취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의 형태이다. 위 행사에서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동원하였다. 현장에서는 다이인 퍼포먼스와 함께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재생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참가자들은 주치 측에서 만들었거나 혹은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죽은 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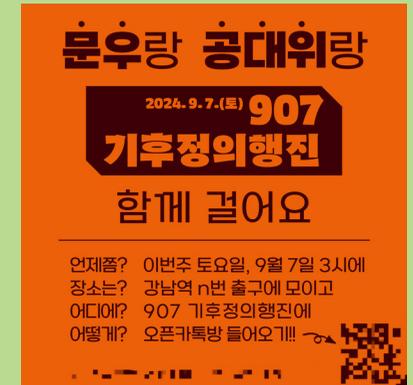
현장에서 사용된 피켓들

2) 907 기후정의행진

문우의 편집위원들은 2024년 9월 7일 진행된 907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참여하였다. 문우는 907 기후정의행진 사전에, 에브리타임 홍보 등을 통하여 문우 및 공대위와 함께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문우편집위원회와 공대위의 소속 인원이 아닌 사람들과도 함께 907 기후정의행진의 현장에 모일 수 있었다.



문우-공대위 인원과 함께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 홍보 이미지



907 기후정의행진 공식 포스터



기후정의행진 현장 사진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연대체 활동 아카이빙

정리정돈 지구인

문우편집위원회는 팔레스타인과함께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의 연대체로서, 2024년 10월 5일 진행된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행사에 참여하였다.

해당 행사에서는 먼저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을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공연 및 연대 발언, 추모시 낭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중단하라’, ‘한국은 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하라’, ‘Stop Genocide in Gaza’, ‘Stop Arming, Israel’ 등의 구호와 함께 ‘연대의 행진’이 진행되었다. 해당 행진의 동선에는 이스라엘 대사관 바로 앞의 길도 포함되어 있었고, 참여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대사관 앞에서 항의의 구호를 외쳤다.



행사에서 배부된 피켓



행사 공식 포스터



행사 현장 사진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대자보 아카이빙

정리정돈 데어

지난 11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는
문과대학 학생회칙의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고
문과대학 총투표 실시를 공고했습니다.

[문과대학 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문과대학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문과대학 학생회칙 전면개정안이 지난 정기 제20차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재적단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문과대학 학생회칙 제82조(회칙 개정안의 공고)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문과대학 법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학생회 내 법제를 정비하고,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니자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이자 전대 법제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문과대학 학생회칙을 전면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을 갖춘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회칙 제24조와 제96조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조항은 동일한 시기에 제정되어 조항 간 우열을 가릴 수 없으나, 현재의 문과대학 학생회칙은 회칙의 제정 의의와 달리 권한대행의 겸직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이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문과대학 학생회칙 제96조제2항제1호에는 저촉되나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이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선례가 있고 무엇보다 권한대행의 경우 현직 문과대학 운영위원 중 1인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칙의 제정 사유를 지난 정기 제9차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직위가 아닌 의결권 중복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진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있고 합당한 회칙으로 개정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본 회칙 제27조제2항에서 다루는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과 관련한 내용이 제81조(회칙 개정안의 상정)와 제84조(회칙 개정안의 의결)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의 설립 이후인 2020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작년 정기 제2차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에서의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상의 효력 또한 상실한 상황입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회칙마저 소실된 상황에서, 문과대학 내에서 실질적인 성 관련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칙상으로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이관하여야 하지만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계류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를 회칙상에서 삭제하여 성 관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문과대학 학생회칙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 ① 사문화되어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 ② 충돌 조항이 있어 회칙의 해석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 구체적인 조항은 첨부해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구조문 대비표

공고 시 필요한 드라이브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7yfVEdXljGEu1liUhLV4zBAcTlyX6wT?usp=sharing>

2.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문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신정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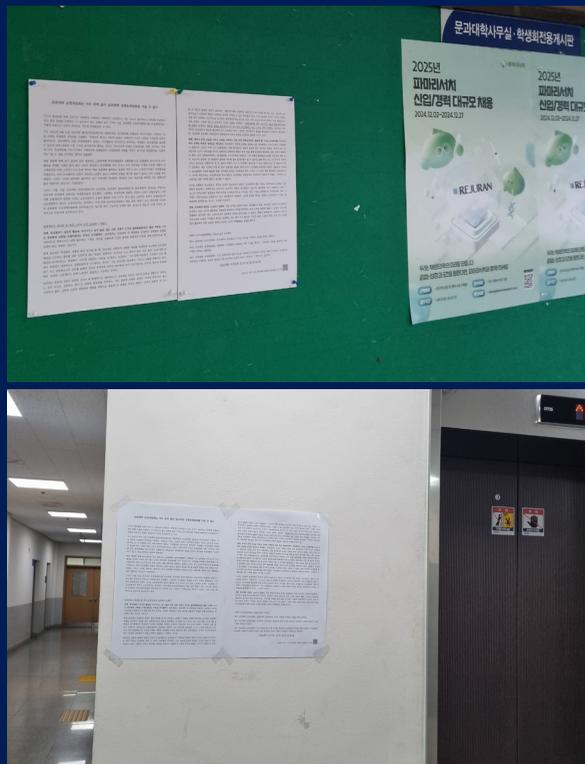
국어국문학과 부학생회장 고은솔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 박찬미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김찬혁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신정빈
 노어노문학과 학생회장 김세인
 사학과 부학생회장 신민서
 철학과 학생회장 배종윤
 문헌정보학과 부학생회장 구서영
 심리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차유진

게시물 담당자: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중

게시물 책임자: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중

문우는 해당 개정안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이하 문성평위) 삭제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문운위가 문성평위 조항 삭제의 이유로 언급한 '사문화된 단체', '실질적 활동 없음', '회칙상 효력 없음'은 문성평위를 삭제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운위의 문성평위 삭제는 2023학년도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이하 문확운위)가 문성평위장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의결하며 문성평위의 활성화를 의도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우는 위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작성하여 문운위에 발송했으며, 이후 대자보를 작성하여 문과대학 외솔관과 위당관 내부에 부착하였습니다.



각각 외솔관과 위당관에 부착한 대자보입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아무 흔적 없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를 지울 수 없다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기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목록에서 지워졌으니 더는 존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학생회칙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기구는 바로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이하 문성평위)이다. 이렇게 지워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자리에 문성평위가 서 있다.

지난 2023년 9월 13일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이하 문확운위)는 문성평위를 문확운위 자치기구에서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회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문확운위 위원은 회칙상 자치단체 겸직이 불가하므로, 문과대학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성평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인원 구성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치기구의 삭제는 문성평위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이어, 문성평위를 자치기구에서 삭제한다면 문확운위가 문성평위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므로 문성평위를 "도외주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해당 설명에 대해 당시 참석한 문우 대표자는 △문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사례처럼 사고 단위였던 자치기구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사례가 없지 않고 △이전 회칙에서 문성평위를 자치 기구로 두어 자치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보아야 하며 △자치기구의 존재 여부는 해당 공동체에 불러오는 효과의 차이가 크고 △자치기구에서 문성평위를 삭제한다고 하여 문성평위의 인원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안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과대학 학생회칙 개

정안은 문우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문확운위 출석 대표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1월 19일,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는 문과대학 법제위원회(이하 문법제위)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문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안을 학생총투표에 상정했다. 그중에는 문성평위와 관련한 조항의 삭제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문법제위가 설명한 사유는 △문성평위가 실질적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지 않고 △회칙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문성평위의 회칙이 소실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우편집위원회는 해당 글과 내용이 같은 성명서를 작성하여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 송부하였으나, 명시한 회신 기일까지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운위에 요구하고자 한다.

문법제위가 제시한 세 개의 근거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문성평위가 실질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은 것은 조항 삭제의 근거로 불충분할뿐더러, 활동 여부를 근거로 문성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문성평위는 문과대학 내 성폭력을 견제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로, 이러한 성평위의 기능은 문과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문운위의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를 볼 때, 문운위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학생회에 신고하여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공식적인 신고 창구가 없는 것은 물론, 23년 9월 문확운위 속기록에서는 학생회가 “사건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겠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학생회가 사건에서 손을 뗄 테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성평등센터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문과대학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문운

위가 가진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피해자 개인과 문과대학 외부의 센터에게 전부 떠넘기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문과대학이 ‘안전한’ 공동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문운위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결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개인 간 권력의 불균형을 반영하고, 이는 공동체 전체의 위계적, 수직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 성평등의식의 확립이, 나아가 공동체 내 구성원 간 책임과 돌봄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해당 공동체의 분위기와 위계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소속 당사자로서 공동체적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문성평위 같은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사건을 예방하려면 외부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을 받으면 되고, 만약 사건이 터지면 외부로 넘겨 해결한다는 식의 사후적, 수동적 태도는 공동체의 건강한 성찰을 저해한다. 성평등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지원과 문과대학 공동체 내부의 주체적인 돌봄과 성찰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문성평위는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 문운위는 일차적으로 문성평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문성평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문과대학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문성평위의 목적과 활동을 승계하여 활동할 의무가 있다.

둘째, 회칙상 효력 상실을 이유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작년 문확운위에서 ‘활성화’를 이유로 문성평위를 자치기구에서 삭제한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성평위가 회칙상 효력을 상실한 것은 문성평위가 자치기구에서 삭제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삭제 당시, 문확운위는 이를 문성평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시 문확운위의 논거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문확운위 위원의 겸직 등을 통해 문성평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

야 했다. 당시 문학운위에서는, 문성평위를 자치기구에서 삭제하고 나서 어떻게 활성화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우 대표자의 질문에 “본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올해 법제위에서 할 수 있다면 올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후대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안건에 37명 중 문우 대표자를 제외한 3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면 더욱이, 문학운위 차원에서 문성평위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고민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해당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어떠한 학운위원도 문성평위장을 맡지 않았다. 문성평위는 문학운위의 안전에조차 올라오지 못했고, 이외에도 문성평위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성평위의 ‘회칙상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성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문학운위는 2023년의 회의에서 말했듯 문성평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상실하게 하지는 어이없는 회칙 개정을 감행했다면, 문성평위를 ‘위해’ 이 삭제가 이루어졌음을 문학운위가 몸소 증명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반대로 회칙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제는 문성평위를 없애겠다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셋째, 문성평위 회칙은 소실되지 않았다. 설령 회칙을 문운위 측에서 분실했다고 한들, 문운위는 2020년 문성평위가 운영되고 있을 당시에 활동하던 인원에게 연락하여 회칙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다. 문우편집위원회의 경우에도 내부 드라이브에서 문성평위 회칙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물며 문운위에서 작년까지 산하 자치기구였던 단체의 기록물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23년의 회칙 개정 이후 문성평위의 활성화에 대한 문운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부재했음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문우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이 공동체로서 가지는 의무를 기억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 구성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이전 문학운위의 발제 의도를 존중하고 문성평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라. 문성평위를 회칙에서 삭제하고 실질적 대응을 논할 것이라면 실질적 대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230913 정기 2차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 속기록

다음은 이에 대한 문운위의 답변입니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성적 문제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문우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답변문

안녕하세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문우편집위원회에서 문과대학 학생회 메일을 통해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학생총투표의 진행 이전 숙고해야 할 지점에 대한 성명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9일 제61대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11월 20일 문과대학 학생회장단 권한대행이 선출되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확인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관련한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 문과대학 권한대행이 관련 메일을 확인하였으나, 문우편집위원회에서 전달한 성명서는 아무런 글도 쓰여있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의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임기가 종료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시한 회신 기일까지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명시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합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논의와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과대학 권한대행이 해당 메일에 답신한 이후 파일을 받아볼 수 있었으며, 확인 이후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가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답변서입니다.

문우편집위원회 측에서 주신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학생회에 신고하여 공동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 및 학생회칙 전면개정안의 상정 이유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문제 상황을 이관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라는 체계가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는 문성평위의 공백 이후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모든 행사 및 상황의 해결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과대학 내에서 어떤 유관기관을 거쳐 해결하는 절차가 아닌, 직접 학과 차원의 일차적 책임자를 포함한 학생단체가 센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평등센터의 설립 배경입니다. 학생회 및 책임자가 성평등센터와 연결하여 공동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대표자가 부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존속은 실질적인 성 관련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학우 분들이나 대표자분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할 뿐입니다.

더욱이, 연세대학교 교내 단체인 성평등센터를 통한 해결을 '외부로 넘겨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항상 학내 성 고충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성평등센터를 통한 건설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사후적이고 수동적 태도라 명시한 사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평등센터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단체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우편집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지원과 주체적인 돌봄과 성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이한 개념이 아닙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문우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문과대학 법제위원회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한 일부개정을 통해 성평등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아닌, 전면개정안의 발의를 통한 '문과대학 학생총투표'의 실시라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우분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총투표에 있어서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문과대학의 학우분들께 제안하는 제안자일 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조항의 삭제는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의 표결은 결국 학우분들의 선택입니다. 일부 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이번 회칙개정안의 발의가 정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총투표에 반대표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는 현재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회칙상의 효력이 상실되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당 사건은 성평등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문우편집위원회에 묻습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부재한 불안한 상황을, 성평등위원회의 부활 가능성을 상정하여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또한 성평등위원회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학생총투표의 실시와 관련한 의결이 진행되었던 241113 정기 제20차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문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 안의 통과로 인한 회칙의 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제62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측으로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의 부재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60대 이과대학 학생회의 성평등위원회 폐지 사례와 같이, 성평등위원회의 재개편 혹은 교체와 관련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문과대학 학생총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문우편집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문과대학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문과대학을 위한, 문과대학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회칙 개선과 법제위원회의 활동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연세대학교 제61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

문우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활동 보고에 맺음글을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우편집위원회(이하 문우)입니다. 답변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우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앞서 저희가 문의했으나 답변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23년 9월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이하 문확운영위)는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이하 문성평위) 활성화를 위해 문성평위를 기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문우는 이에 대해 문성평위의 활성화가 목적임에도 단체의 의결권을 삭제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후에 문성평위를 활성화하려는 문과대학 차원의 노력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운위가 문성평위 관련 조항을 회칙에서 삭제하는 것은 전기 문확운영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문운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성명서에서 문우는 문성평위를 삭제한 개정안 총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서 문성평위의 목적과 사업을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자보에서, 문우는 만약 문성평위를 삭제한다면 이후 문성평위가 시행하던 사업과 업무를 문과대학 학생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문비대위)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가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문성평위를 공식적 기구에서 삭제하는 것이 그 단체가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업무 자체는 문과대학 학생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문비대위 집행부 또는 문운위 내부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승계할 것인지를 말씀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또는 이과대학의 경우와 같이 문성평위를 대

체할 다른 기구를 구성할 생각이셨다면 그 논의에 대해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우는 문성평위의 업무를 성평등센터에 이관하겠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내 단체인 성평등센터를 통한 해결을 ‘외부로 넘겨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항상 학내 성 고충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성평등센터를 통한 건설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사후적이고 수동적 태도라 명시한 사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문운위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우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문운위가 문과대학 학생사회 내부에서 진행해야 할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성평등센터에 ‘이관’하는 것만 해결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우가 언급한 ‘내부’는 문과대학 학생사회를 의미합니다. 성평등센터는 문과대학 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과대학 공동체가 가지는 역사성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사안에 대처할 기구가 별개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를 선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해자에 대한 사과문 권고, 사건이 발생한 수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 등 성평등센터가 아니라 학생사회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후 대처 사항이 많습니다. 문운위는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센터로 사안을 ‘이관’한 뒤에 문운위는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논의할 생각입니까?

또한 문성평위의 업무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문과대학의 성평등 문화 확립을 포함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일회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문과대학의 성평등 문화는 문과대학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문성평위는 정기 세미나, 학기 초 OT와 새터의 성인지 교육, 문과대학 자치규약 제정, 일상적 성차별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 등의 사업을 집행해왔습니다. 문운위는 이러한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할 수 있습니까? 문운위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문우는 문운위가 공동체의 정의와 역할, 성폭력을 포함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응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운위는 이 문제가 총투표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과대학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우가 지적하는 것은 문과대학 다수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문과대학 법제위원회(이하 문법제위)와 문운위의 논의로 발의된 개정안 자체가 문성평위의 역사와 의의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과대학 내 대책 수립 없이 단순히 기구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기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계승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사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며 다수결을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택하고 있긴 합니다만, 학생의 의사를 물음에 있어 투표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당장 지난 달 저희는 다수결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치들은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문성평위가 지키고자 하는 성평등과 반폭력의 가치 또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학생회칙 개정에도 있어, 개정안 발의에 앞서 문과대학에 소속된 다양한 학생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과대학은 연속적인 공동체입니다. 현재 문과대학의 모습에는 역사와 맥락이 있습니다. 문성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전기 문확운위, 멀게는 2016~2020년의 문성평위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맥락에서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운위가 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우편집위원회 드림.

문과대학 학생회칙의 전문은 '문과대학 학생사회를 주어로 갖습니다. 이는 문과대학 학생, 그 들을 구성원으로 한 문과대학 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 문과대학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 문 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공동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문과대학의 학생들이 나름의 문화와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과대학 (학생사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할 의무와 권 리가 있습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는 2016년 30여 명의 남학생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 15~16 학번 여학생을 상대로 외모를 비교·평가하고, 성희롱 및 여성혐오적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된 '연 세대학교 남특방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학 내 성차별 문제는 학과 기층단 위부터 연세대학교 전체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전체 단위의 성평등 단체가 사안에 일 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과대학 내의 성차별·성평등 문제에 대응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였 습니다.

문성평위가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 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¹⁾ 임금성장률이 낮은²⁾ 세상에,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20대 여성 이 한쪽 청력을 상실할 정도로 폭행당하는 세상에,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일부로 존재하는 학 생사회에 문성평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과대학이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가능하 기 위해, 문과대학 학생사회는 문성평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문우는 문운위에게, 문과대학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책임을 확인하고 실행하라 는 요청을 드립니다.

문운위는 개정 취지와 답변서에서 학내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성평등센터를 통한 건설적인 문 제 해결 도모를 언급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평등센터(와 유관 기관)를 통한 제도적, 사법적 절차와 동시에, 문과대학 학생사회가 주관하는 공동체적 해결이

1) 김창환, 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 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권, 1호, 2019, pp.167-204.

2) ChangHwan Kim, Heeyoun Shin. "The gender gap in earnings growth at the early stage of work careers in Korea". Online articl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ume 94, article 100979, 2024.

필요합니다.

음보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사법체계에 의존하는 해결은 그 한계가 명백함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회복적 정의 운동가 하워드 제어를 인용하여 설명하자 면, 범죄와 사법은 몇 가지의 기본적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다.

: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법 절차는 유죄의 확정을 위해 태생적으로 과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의 해결, 또는 범죄 원인의 해결 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무죄의 이분법은 그사이의 회색지대, 갈등이라 명명될 수 있는 사건들을 배제합니다.

- 유죄인 자는 '정당한 응보'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응보를 위해서는 고통의 부가가 필요하다.

: 사법은 가해자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고통 즉,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보복의 세상을 전제합니다. 사법은 근본적으로 폭력의 순환이며, 결과적으로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 정의는 절차에 의해 평가된다.

: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절차적 정의는 실체를 간과합니다. 예컨대 한 국의 대법원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 니라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따지는 것으로, 2심의 법적 절차가 정의로웠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황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에 대한 고려없이"³⁾ 평등하게 불평등할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 범죄는 법 위반으로 정의된다.

: 다시 말해 범죄 행위는 규칙에 대한 침해, 규칙을 설정한 국가에 대한 피해입니다. 형사 재 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만 등장하며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라 는 것은 그런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때 탄원서 등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요구는 고려사항으 로, 양형사유로 다루어질 뿐입니다.

3) 하워드 제어.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대장간, 2019, 114

이러한 사법적 문제 해결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Brithwaite(1999)는 회복적 정의란 “범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범죄로 야기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김지혜, 2024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제시합니다. 근본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합니다. ‘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 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론장으로 이끌어, ‘범죄’가 만들어낸 상처를 수선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상호 개인의 차원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개별 사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제어는 자신의 책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에서 동료 데이브 워스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점이 찢겨 나간 곳에는 새 살이 돌아서 빈자리를 메워야한다. 새 살이 돋으려면 적절한 조건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안전과 위생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가 되면 움직일 수 있고 제 기능을 하게 되며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처와 치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상처가 생기는 조건과 상처가 치유되는 조건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처가 생기는 조건을 변화시키고, 상처입은 사람에게 상처가 치유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229p)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치유인지를 질문합니다. ‘어떻게’라는 절차적인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다원적인 현대 사회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기를 보류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사법 절차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문우는 문운위에게, 문과대학 학생사회에게,

4) 범죄는 사법 체계상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립하며 모든 성차별·성폭력 사건이 범죄는 아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범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답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맥락,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정하고 중재하고 숙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인문학도로서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 고민을 남에게 넘기지 않아주십시오. 성평등센터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문과대학 공동체의 문제를 문과대학 내에서 해결하기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문성평위는 지난 몇 년간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문운위의 말씀대로 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우는 문운위와 문과대학 학생사회 전체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남기 위한,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과 사람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참고문헌

하워드 제어.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대장간, 2019.

김지혜. 「대학 인권센터에서 회복적 정의의 적용에 대한 고찰」. 『역사와 융합』, 제21호, 2024, 517-548.

김창환, 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권, 1호, 2019, pp.167-204.

ChangHwan Kim, Heeyoun Shin. “The gender gap in earnings growth at the early stage of work careers in Korea”. Online articl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ume 94, article 100979, 2024.

70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포도



0. 자기소개

포도 각자 어떻게 문우를 접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지난 호에 제 글을 집필하진 않았지만 지난 호에서도 독자 모임 진행을 맡았던 편집위원 포도입니다.

유연 저는 유연이고,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좋습니다.

비상 저는 비상입니다. 70호에 제가 쓴 글이 4개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소풍 같고 좋네요.

단(丹) 저는 단(丹)입니다. 문우 편집위원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현 저는 김서현이고, 단(丹)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문우에 속해 있어서 몇 번 글을 읽긴 했는데 독자모임에 초대받아서 온 건 처음입니다.

산도 저는 70호에 글을 썼던 산도입니다.

고요 저는 고요이고요, 2학기에 합류해서 70호에는 이름이 없는 수습 편집위원입니다.

유자 저는 유자이고, 옆에 있는 고요의 친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글 정말 잘 읽었어요.

1. 내지 구성

단(丹) 제가 집필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70호 표지 회의할 땐 같이 있었거든요. 표지 글씨의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멋있을지 흐름 정도는 어떻게 할지 등 사소한 것들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시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오래 고민하다가, 오히려 제일 심플하게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너무 직설적이긴 싶었지만 보다 보니 까 정이 들었습니다.

서현 이거 제목 정할 때 어떻게 정해진 거죠?

비상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팔복이라는 시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하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70호 메인 기획인 사회적 참사라는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팔복을 이번 호에 활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목까지 됐어요. 제 의견이 관철되어서 기쁩니다.

2. 권두시/비상

서현 이 시를 읽으면서 표지와 제목과 연결 지어 생각을 해봤어요. 70호가 24년 여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맞닿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2024년을 계속 슬프게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슬픔의 무게에 잠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지를 작성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외부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연 슬픔이라는 것이 이번 호에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제목과 연관 지어서 권두시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산문보다는 시에서 훨씬 더 정동적으로 와닿았어요. 이 호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슬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단(丹) 제목의 마지막에서 영원히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권두시 첫 문장이 바로 ‘눈물을 흘려라’여서 제목이랑 권두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시너지를 만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70호가 발간된 이후인 24년도 2학기에 기후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런 권두시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들이 다음 학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산도 눈물이라는 게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연대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이 시를 읽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눈물이 강

이 되어 사회를 적시고 다 같이 그 슬픔을 느끼면서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3. 편집장 서문/유연

고요 첫 번째 문장이 ‘2024년은 유독 슬픈 해입니다’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읽자마자 ‘그렇지’ 하고 고덕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름방학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들만 끝없이 닥쳐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름에 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해 나가야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런 소망이 언제쯤 없어질지, 당연한 것이 되어 없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자 저도 이 글을 애경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읽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 시의성이 너무 커서 조금 힘들어하면서 읽었거든요. 고요처럼 첫 문장을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책이 여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가 정말 쉽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이제 독자 여러분께 우리의 슬픔을 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좋아서 계속 곱씹게 됐는데, 표지랑 권두시, 서문까지 쪽 이어지는 눈물과 슬픔의 모티프가 좋았어요.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서문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글들에 애정을 가지고 쓰신 게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4. [메인기획] 재현과 사건/데어

유연 디자인이 정말 좋았어요. 다들 알아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소제목이 끝말잇기처럼 연결이 됩니다. 사건과 서사, 서사와 왜곡, 왜곡과 경청, 경청과 재현, 다음에 저의 재현의 글로 넘어가는 구조라서 그 점이 좋았어요. 내지 디자인에도 소제목이 다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상 이것도 노벨 문학상 수상하시기 전인데 『소년이 온다』가 나오더라고요.

단(丹) 저는 이 글을 되게 오랫동안, 여러 번 읽었어요. 한 권의 책이나 다큐멘터리, 아니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되짚는 모든 기록물들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에서 흐릿하게 느꼈던 인상에 대해 데어의 글이 '이건 이런 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이나 걱정에 대한 대답이 되어준 것 같아서 이 글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슬픈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게 나을지 빨리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게 나을지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데어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재현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다른 맥락들을 되짚어보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재현을 해낼 수 있겠다는 의지를 얻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서현 이 사회가 유독 참사가 많은 사회잖아요. 근데 이 연속적인 사건들을 안에서 바라보는 거시적인 요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글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서사', '경청', '재현'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키워드들을 관통하는 것 중 하나인 기록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거시적인 걸 바라보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적인 요소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있는 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생각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글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포도 재현에 있어서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말하는 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가 다 전달되지 못하거나 발화하는 사람이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여도 객관적으로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저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언어를 저희가 또다시 정리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고민들을 데어 글에서 되게 잘 짚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미나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그때 느꼈던 고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았어요.

유연 어쩔 수 없이 최근 한국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슬슬 집회에서 있었던 발언이나 깃발들을 아카이빙하고 기록하는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런 기록 작업 아카이빙 작업에 붙는 이야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아카이빙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고 가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연속기획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아카이빙 작업을 보면서 '그렇지, 아무래도 진실이 파묻히면 안 되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어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것, 우리가 행동하고 말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의 장이기에 기록이 중요한 거구나. 데어 글에 '그러므로 유가족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공론이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뭔가 문우의 일원으로서 글을 적으면서 우리의 역할은 기록함으로써 이런 의견, 사실들이 있었다는 걸 적어서 공론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언이나 깃발 등을 기록하는 것은 투쟁의 의미로서 기록되는 것이겠지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도 '위안부' 관련한 예시를 보면서 이 재현이라는 게 '위안부'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조금 민족주의적인 담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피해자나 당사자의 고통을 도구화한다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재현이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고 그래서 윤리적인 재현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줬던 글인 것 같아요.

5. [메인기획] 피해와 사건과 글과 연대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유연

포도 초반에 '집회 가면 연대인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글을 썼을 때의 유연은 지금과 다른 마음이었겠지만, 저는 최근에 있었던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점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받는 것보다는 집회에 나가서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게 해소된다는 거였어요. 적어도 같은 뜻을 가진 매우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의 그 문장에 대해 '그렇지'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대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현 이미 오래전에 쓰인 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비슷한 맥락에서의 고민을 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계속 연대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 단어의 정의만으로는 절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게 맞지'라고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의 연대가 있음을 추상적으로나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대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연대의 방법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이 글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글이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각자가 느끼는 연대는 다를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부터가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유자 제가 했던 고민을 다른 누군가가 정돈된 글로 써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반에 '결국에는 이 글이 어떻게 끝맺어질지를 앞에도 정리를 한다'라고 쓴 부분이 좋았어요. 저도 항상 연대라는 단어처럼 좀 거창해 보이는 개념들을 쓰면서도 저는 언제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효능감을 얻는 게 맞나?'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까. 그 고민이 좀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반부가 좋았던 게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주신 부분에서 그 방식이 리얼리즘이라는 말로, 거리를 둔다는 명목으로 그 안에 있는 스스로를 편집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타자로서 직접 다가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자체가 좋았어요. 메타적으로도 이 글에서 보이는 작가의 고민이 드러나서 좋았어요.

고요 저도 연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와닿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보다는 제 개인의 동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진짜로 연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불행한 서사를 접한 뒤 일종의 소비를 하는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글을 읽고 연대가 무엇인지 생각을 조

금 더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연대자는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부터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해자에게 연대를 하는데 그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왜 싸워야 하나, 이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6. [매인 기획] 기억할게, 애도의 언어로 적는 삶의 편린 / 도토리

포도 70호 편집 회의 할 때도 느꼈지만 저는 이 글이 정말 좋아요. 제가 최근에 주변인의 죽음을 겪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가까운 타인의 상실을 겪고 나서 도토리의 글을 다시 읽어보는데 '어떤 죽음은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그 애도가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저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다가 다음 날부터 낮이 나간 사람처럼 감정이 훅 물려와서 힘들었거든요. 도토리의 글은 물론 국가적인 참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상실과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다룬 글이잖아요. 분명 70호가 발간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인 상실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상실을 겪은 후에 이 글을 다시 읽으니 어떻게 개인의 상실을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상실과 죽음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계속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도토리가 쓴 말과 비슷하게 그 상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토리의 글이 저한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현 저도 이 글을 읽고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다가 '유효기간 없는 애도의 행복'이라는 그 기사를 발견하고 이 글과 이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사 이외에도 죽음은 누구와도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개인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진 모순을 공유하자면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서운데 또 그 단어에 압도돼서 죽음이 너무 무겁지만은 않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다 연소시키면서까지 죽음에 너무 몰두하거나 그 무게에 눌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소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 글을 통

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좋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마지막쯤에 '애도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낙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문장에서 저는 이 '나아가는'이라는 단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라짐과 남겨짐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떠난 사람을 기억하면서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상 죽음이라는 것은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겪는 횡수가 많아질 거고 주변인들의 죽음이나 재난, 사회적 참사 등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하거나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죽음이 예기치 않게 삶을 침범한다.'라는 문장처럼 삶을 엄청나게 침범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거나 최근에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를 보기만 해도 상당히 삶이 뒤틀리고 일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감정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계속 겪으면서 무뎠지는 방법뿐인가 생각했었어요. 실제로도 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나름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도토리야 글을 보면서 예전에 어떻게 애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견뎌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을 때 읽으면 참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읽히고 더 많아져서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 애도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매인 기획] 애도와 함께 모두의 내일로 / 비상

단(丹) 저는 비상 글이 좋았던 이유가, 글에서 하우스랑 불륜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비상이랑 같이 불륜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저는 비상이 다른 주제가 슬프다고 느꼈었어요. 많은 소수자들을 계속 목살하고 애도도 하지 않는 슬픈 일들에 대해 비상이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을 '함께 사랑을 하자', '서로 위로하고 돌봐주자'라는 이야기로 맺는 게 저한테는 큰 인상을 줬어요. 비상과 같이 불륜을 가서 비상이 생각하는 슬픔과 애도, 삶의 방식, 방향성을 와닿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

실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는 대신 깊은 상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이 하는 기본 상상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이걸 현실적인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연 저는 글을 읽기 전까지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도 단(丹)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상상이라고 글에는 적혀있어도, 이것이 현실로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상상이지만 동시에 실존하는 것이잖아요. 실존하는 공간이고 실존하는 존재들, 실존하는 문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실존하는 존재들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아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상상과 동시에 실현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유자 이 글을 정말 잘 읽었어요. 저는 항상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할 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가책이 있지만, 개인적 고통에서 시작된 발화는 항상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애도랑 개인적 애도를 나누는 부분이 좋았던 게, 바로 이전 글이 개인적으로 애도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글이잖아요. 이전 글과 이어져서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의 글로 이 글이 나오는 흐름이 좋았어요. 사회적 애도 같은 경우는 응어리진 게 풀어지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죽음에는 가해자가 없잖아요. 만약 있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사회적인 죽음의 경우 명백히 사회라는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해결할 의지도 없는 사회 속에서 나는 계속 살아야 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빗대면 자기를 가정폭력을 행하는 부모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아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폭력에 대해 구별해 주는 부분이 좋았어요. 또 마지막에 현실의 공동체를 제시하는데, 저는 언제나 사람들이 나와 다른 타인을 포용한 사회에 대해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인에 대한 포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현실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믿는 것들만 현실화해가며 살아가는데 그런 현실을 깨고 어떻게 바람직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8. [문우의 눈] 선의의 함정/산도

유연 저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처음에 본인의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다시 언급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확 와닿아서 아름다운 개인의 성장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저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작동하게 하고, 이 말이 어떠한 함의들을 갖도록 기저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인식이 문제인 거라고 짚어준 것이 좋았어요.

비상 우리 사회에 있는 소위 다문화 가정이라는 언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인식이 어떻게 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 준 것 같았어요. 이런 글을 정책을 만들거나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서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글로벌 어찌구 학교로 선정이 돼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진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동시에 혐오감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 글의 제목이 ‘선의의 함정’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곧 ‘프레임의 함정’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이미지화해서 그게 정답인 양 만드는 이 구조,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뺏어 와서 우리가 언어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문제는 급진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서 구조적인 것과 하나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글들을 통해서 논의의 장이 좀 더 커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유자 이런 글은 유독 간결한 언어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주셔서 글이 잘 읽혔어요. 제가 환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환대에 대한 논의는 외국인에 대한 담론이 많잖아요. 저는 외국인에 대한 조건부적 환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별이든 혐오

든 조건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민족차별 같은 건 왜 전 세계가 권장하는 차별이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저는 민족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 인권 관련해서 조사 하다가 국적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갖춰야 하는 인권 자체가 국적에 종속돼 버린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사립초랑 학구열이 강한 중학교, 외고를 나왔는데 한 번도 다문화 가정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문화 가정,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일생 자체를 통해서 경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연 한나 아렌트였나, 누가 ‘권리를 가질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인권이 침해되면 우리는 항상 국가를 찾게 되잖아요. 국민이 아니라면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그래서 국민이 된다는 것은 사실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문화라는 사람들은 국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위치성에 놓여있고, 국가에게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권리를 말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에 집회하면서 중국인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식의 말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왜 중국인이 한국 집회에 참여하는 안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글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9. [문우의 눈] 천막을 붙잡아 세우며/어쭈, 비상

포도 읽으면서 학교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학교의 구성원인데 왜 이렇게 까지 악랄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노동자분들이 일을 안 하면서 투쟁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학교는 맨날 돈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청소 업체 부를 돈은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매년 학기 끝나면 등록금 인상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하잖아요. 등록금 인상을 설령 한다고 해도 청소 노동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등록금 인상을 해도 돈을 써야 할 곳에 돈을 쓸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유연 이 글이 나오고 나서 10월쯤이었나? 타결이 되긴 했어요. 연세대학교가 제일 나중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결을 축하합니다' 하고 다 같이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 글이 여름에 나왔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고 나서야 타결이 된 걸로 기억해요.

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작년에 고소 사건 때문에 투쟁하면서 학생들 수업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쓰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진 않아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기숙사에서 맨날 아침마다 그렇게 크게 스피커로 방송을 해도 저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거든요. 그게 수업에 방해가 되면 얼마나 방해가 된다고 굳이 고소까지 해서 그 이후에 투쟁을 하면서도 또 학생들이 고소할까 봐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유연 관련해서 연세대 노학 연대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의 교육이라는 교육 공동체 벗에서 내는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80호의 <돌봄 사회로의 전환과 교육의 과제>였나 그 책에 연세대 학생운동 인터뷰에서 '대학의 위기와 대학 안의 운동, 2024년 노학 연대의 고군분투와 쟁점들 인터뷰,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풀네임인데요. 공대위 김태현 대표의 되게 긴 인터뷰가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참고로 그 책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희관 015B 자치 도서관에 있어서 관심 있으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서현 저 궁금한 게 이전에 청소 노동자 관련해서 또 쓰인 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유연 '아코디언'이라고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언론 모임을 옛날에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투쟁 역사를 정리해 놓기도 했었는데 이때 쓰였던 글들이 문우에도 몇 개 실려 있고 문우 말고도 이때 같이 참여했던 다른 언론 단체들 매체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도 이 글을 69호에 실린 쓰레기 탐험대 글과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연세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를 쓰탐이랑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70호에 실린 이 글은 학교가 청소 노동자

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 69호 쓰탐의 글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읽으면 읽을수록 연세대라는 학교와 공간에 대한 정이 떨어지지만.

유연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어요. 어쨌든 문우는 학내 언론이고 학내의 이야기들을 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 기획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주고 그걸 잘 정리해 글을 써서 감동적이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현 외부인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글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2024년 5월부터 크게 선전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 이슈를 학생들에게 익숙해지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 선전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동아리나 단체들이 모여서 인권 네트워크를 출범했어요. 이때는 제가 막 편집장을 넘겨받은 시점이라서 조금 나중에 듣기는 했는데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이쯤에 이 이슈가 또 한 번 크게 있었대요. 저희 교지에서 인터뷰 따고 다큐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겼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2023년이 10년째가 돼서 노학 연대도 좀 더 크게 활성화되고 움직임이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4년 5월에 다시 모인 학생들끼리 이 의제로 처음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든 이 모임을 이어가고 싶다는 이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연대 필요한 일 있으면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부록에도 쓰신 것처럼 옛날에 했던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학생 운동이든 뭐든 다 흐지부지해진다고는 하지만 다시 모여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현재의 움직임과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임이 이어질지 두고두고 보면 여러 의미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연 이 단체는 언제까지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서현 사실 많은 단체들이 고민하는 거긴 할 텐데 소진되지 않을 때까지예요. 재생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10. [활동 정리] “길이 참 좁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마음은 따뜻하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푸

포도 이거 얘기할 때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데어 글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참사 희생자들을 두고 ‘미처 다 피지 못한 꽃’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는 게 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이태원 기억 담기 활동 때 오셨던 활동가분들께서도 포스트잇 정리할 때 그런 문구가 되게 많지만 사실 그런 문구는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 지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사 피해자가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태원은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게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모든 피해자들을 아우를 수가 없는 말이라서 그런 표현은 좀 지양해 달라고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런 문구 보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 활동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말이다’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누군가를 배제해서 또 다른 피해와 상처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어요.

서현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유연 연희동에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찾아가는 이태원 기억 담기 활동으로 진행하는 추모 메시지 아카이빙하는 활동이었어요. 포스트잇 같은 거 너무 훼손된 거 있으면 떼고, 포스트잇에 테이프나 다른 이물질 붙어 있는 거 다 떼서 흰 종이 같은 거에 붙여서 스캔을 뜰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포도 활동가분들께서 직접 연세대학교로 와주셔서 자치도서관에서 진행했었는데 메시지가 담긴 박스를 되게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셔서 놀랐었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남기고 갔구나.

유연 활동하면서 포스트잇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았어요. 되게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처럼 우리가 접하기 쉬운 언어도 있었고 완전 모르는 언어들도 있어서 그걸 분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어떤 이야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서로 이 언

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하고자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들은 글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을 읽어볼 수 있어서 그걸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좋았어요.

단(丹) 이태원 참사 때 정부에서 애도의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고, 시민들끼리 서로 아픔을 위로하는 등의 당연히 있어야 할 애도의 과정들을 묵살한 것을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랑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태원 참사처럼 사회적 애도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면당한 참사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그 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편지 같은 모양으로 애도의 흔적이 남기게 되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고 연대하고 싶고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잘못된 대처 때문에 애도하고 싶은 본인의 마음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비상 드랙쇼나 볼룸 이런 걸 이태원에서 많이 해요. 이태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소위 문화적으로 다양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을 정말 자주 가는 편이라서 이때 할로윈 즈음에도 이태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관심 가지는 드랙 같은 행사만 해도 할로윈 시즌 되면 이태원에서 행사가 열리는 편이라 이태원은 저의 추억이 담겨 있는 여러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뒤로 저는 되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내가 이태원에 가면서 봤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장소고 정말 많은 즐거운 일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그런 행사들이 열리지 못해서 저도 못 갔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서 이 당시에는 제가 뭔가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푸가 정리해 준 글을 읽고 또 여러분의 감상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10월이 되면은 한번 이태원을 가서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아카이빙 활동 당시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저도 이태원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저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지 말고 10.29라고 부르자는,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태원에 갈 때 때 종종 이 일에 대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장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태원을 제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장소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번 10월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태원에 가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11. 마무리

포도 저는 독자모임이 있어서 제가 계속 문우에 매달려 이름을 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가 귀하네요. 저는 글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라서 참 좋네요.

유연 이 연대에 관한 글을 쓸 당시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도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글을 누군가가 읽었다고 생각하니깐 좋네요. 이것이 제가 문우에서 계속 글을 써오면서 했던 생각들이고 고민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읽고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고 느꼈는지를 듣는 자리는 우리의 동력이 되어주어서 소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상 유연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독자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감상을 듣고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저도 독자 모임 할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때 글을 굉장히 급박하게 써서 이게 괜찮을까 고민이 됐었는데 다들 재밌게 읽어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고요. 앞으로도 자기 이야기를 좀 더 거리낌 없이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 담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단(丹) 저는 교지라는 글이 독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소통이 되는 SNS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지가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학교 가판대에 있는 책들이 매일 조금씩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그 가판대가 비었을 때뿐인 것 같거든요. 그 순간 묘한 후련함이 있고 모든 작가들이 그러하듯 독자들과의 한마디 코멘트나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하는 말들이 그다음 글을 또 쓰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원래 독자모임을

마감 다 한 다음에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마감이 아직 몇 주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독자모임을 진행했다는 게 이번 호에 글 쓰실 분들한테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좋은 마음이에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 저는 완벽한 외부인으로서 이렇게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은 외부인이지만 그래도 같은 대학생으로서 고민하는 지점이 겹치는 게 많다는 걸 느끼고 늘 말하지만 저희 소진되지 맙시다. 앞으로도 글 계속해서 잘 읽을게요.

유자 사실 독자로서 이렇게 글을 읽고서 그 글을 쓴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일단 그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는 내내 고마움과 부끄러움과 공감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읽었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내에 존재하고 이런 공동체가 나의 동료 시민이라는 점에서 오는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외부인 아닌 외부인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요 저는 독자모임 이번이 처음인데 약간 토론 꼭지 없는 세미나 4개 정도 한 번에 하는 느낌이라서 익숙한 느낌과 낯설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번 호에 글을 쓰기엔 이미 너무 늦었지만, 다음 호에는 꼭 열심히 써서 내년 이맘때 즈음 제가 쓴 글로 독자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집후기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네덜란드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사실 지금도 네덜란드에 있답니다 ^< 마감대축제와 그 이후를 함께하지 못하고 시차 8시간의 타국으로 날아가 버린 편집장이라니. 그럼에도 멋지게 글을 완성한 편집위원들 모두 정말 대단해요. 저의 공백을 채워 주는 (어쩌면 문우 창립 이래 처음일지도 모르는) 비상대책위원장 지구인에게는 특히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기분이 상송생송합니다. 돌이켜보면 문우에 참 오래 있었다 싶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꿈꿨고 여러 가지를 가꾸면서 늘 최선이 아니라는 속상함이 있었고 역량 부족에 대한 아쉬움에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문우에서 무겁게 받은 시선과 경험, 글과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지요. 앞으로의 문우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공부하고, 함께 글을 읽고 또 쓰고, 지지치 않고 투쟁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공동체로 남아주면 참 기쁘겠습니다. 각자에게 나름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문우가 되길.

유연



정리글에 짧게 쪽글을 써서 씁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많았지만,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원래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혁의 편을 높이 들자는 문우의 기조가 새삼스러운 연말이었습니다. 슬프고 화나고 두려운 일이 실 새 없이 터져 나왔지만 거리로 나온 사람들 곁에서 앞으로 함께할 투쟁과 연대를 확인하게 되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감정으로, 이 겨울이 잘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문우의 글과 함께해주시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우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상냥한 사람들. 학교에서 누가 또 저를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문우는 거의 유사 돌봄공동체였으니까요.) 꾸준히 만나고 함께 해요, 연락할게요. 늘 고맙고 사랑해요.

테어



길고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눈을 간질이는 함박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우는 시민들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 비로소 봄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들의 71호가 올 한 해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들 충분히 아프고 지치고 힘겨워한 후에, 다시금 위로받고 응원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봄이 되길 바랍니다.

단(丹)





주제를 여러 번 돌아보며 처음엔 많이 헤맸지만, 결국 현재의 나를 기록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다보니 많이 어렵고 난해했지만 우리 편집위원 분들의 피드백으로 훨씬 나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인데 역시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단 누군가의 도움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며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을과 겨울을 보내왔는지 알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을 응원하고 동경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치열함 속에 쉼이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필자(筆者)



유독 추웠던 겨울, 어느 해보다 더 간절히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글을 쓴 문우 편집위원들의 글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글이 많은 만큼 더 소중한 호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편집위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감히 전하며, 이번 호에도 독자모임 정리정돈으로 이름을 같이 실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포도



이번 겨울, 저는 무심코 찾아간 어떤 작은 지하의 극장에서 빛의 현신을 마주하고 반짝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도 찬란했기에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비로소 제가 존재하기에, 상처받은 모두를 위해, 사라져가는 모두를 위해 눈물 흘리며 어떤 종교도 써내려가지 못한 기도문을 읊으려 합니다. 연말의 저 자신을 바친 이 글로 제 사랑을 나눕니다. 이 절망 속에서 저를 일으켜준, 지금도 제가 무너질 때 저를 붙잡아주는, 저의 소중한 기억들과 문우의 편집위원들에게 제 진심과 이번 호의 제 글을 바칩니다. 여러분이 저라는 외계인을 지구인으로서 환대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외계인이라 불리는지요? 당신에게, 우리 함께 지구에 자리를 잡고, 지구인들은 모를 아름다운 우리의 우주를 나눌 앞날을 고대하겠노라고 전하며 편집후기를 마칩니다.

지구인



처음이라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은 글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완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우에서의 한 학기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글을 쓰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문우 편집위원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는 저도 조금 더 진솔한 글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우의 글이 꿈꿨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기를, 그리고 다가올 봄과 여름이 너무 무뎠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펍

“

지난 한 달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번 호에 제 글을 실게 되었습니다! 마감을 제때제때 못 했는데도 항상 꼼꼼한 피드백을 남겨준 문우 편집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함 마음 둘 다 드네요... 첫 글이라 부족한 점 많지만, 재밌는 글이라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글이길 바랍니다... 작년 12월부터 2월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혼란하지만, 모두가 지치지 않고 따뜻한 봄바람을 맞을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함함